

시로 읽는 성보순례
법주사 석연지

국보 제64호 법주사석연지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7월 12일) · 주간

제903호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받고
남을 꾸짖으면 나도 꾸짖음 받고
남에게 성내면 나도 성냄 받는다.
「법구경 상권」

불교계, 禪 응용 '명상·뇌과학' 바람

관련 주제 사찰 강좌부터 연구 · 책 출간 연이어

조계사, 뇌과학·마음치유 관련 강좌 잇달아 개강
금강선원, 가천의대와 '명상과 뇌' 영향 연구

'힐링'과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명상과 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에도 참선을 응용한 명상과 뇌과학 관련 강좌와 연구, 저술들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조계사(주지 도문)가 9월부터 진행하는 불교대학 강좌들은 이런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하고 있다.

조계사불교대학은 오는 9월 7일부터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를 신설 ·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명상을 통해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4기를 맞는 실전호흡 수행도 선의 다양한 수행법을 살필 수 있는 강좌다. 9월 7일 개강하는 실전호흡 수행 강좌는 호흡수행, 선체조, 걷기 명상 등을 실참하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에서도 명상을 바탕으로 한 강좌를 실시한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알아차림 명상을 이용한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을 신설했다.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번 강좌는 좌선, 행선을 통한 마인드케어 기술과 마음 과학, 심리학, 상담 이론까지 배울 수 있다.

평생교육원 산하 기관인 국제마음건강센터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향기로운 삶'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같은 강좌에 대해 조계사 전법국장 효진 스님은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은 끊임없는 치유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명상과 뇌과학 등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현재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기획이사도 "매뉴얼화 된 명상은 대중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평생교육원도 이에 대한 대중화와 고급화를 기조로 삼고 강좌를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금강선원(주지 혜거)과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가 함께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명상 수련 후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있음이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명상 집중 상태에서 고위 정신기능을 담당하는 안와전두영역이 평상시보다 활성화됐고, 15주 수련 후에는 그 활성화가 더 커졌다"며 "명상 수련은 주의 집중 능력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도 오래 전부터 질병,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마음공부를 통해 해결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불교식 명상을 통한 질병 회복 경험', '시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관(觀)의 효과'를 주제의 논문을 대한간호학회지, 대한스트레스학회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출판계 역시 마찬가지다. 불광출판사의 〈붓다브레인〉이후 명상과 뇌과학의 상관성을 논하는 저술들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리타 히데호, 겐유 소큐가 저술한 〈선과 뇌〉가 번역돼 나왔다. 이 책은 호흡법과 뇌의 관계, 선(禪)적 생활이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부산에서 약사로 활동 중인 조순희(위덕대 불교대학원 박사)의 〈자기 치유〉는 질병의 병리학적 이해와 마음을 통한 치유 방법을 설명해 놨다.

명상과 뇌과학의 저변 확대에 대해 장영갑 마인드플러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장은 "불교문화가 전무한 서양이 불교의 명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고통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뇌와의 상관성이 연구되며 점차 과학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소장은 "뇌과학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학문이지만, 선수행이 근간인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불교계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방송은 8월 20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사옥 앞에서 '불교방송의 공영 미디어렙 지정을 촉구하는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불교방송과 사찰, 시민사회단체들은 "불교방송은 상업방송이고, 기독교방송은 공영방송이냐"며 현 정부의 종교편향 미디어 정책을 규탄했다.

방통위 '종교전쟁' 검박… BBS "근거 제시하라"

불교방송·사찰·시민단체, 20일 방통위서 규탄법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교방송을 일방적으로 민영미디어렙 편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불교방송 임직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옥 앞에서 '불교방송의 공영 미디어렙 지정을 촉구하는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불교방송은 성명서에서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지정한 방통위의 입법예고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교방송은 홍성규 부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의 '종교 전쟁' 발언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홍 부위원장은 불교방송이 공영렙으로 변경하면 원칙이 허물어진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며 "불교방송이 공영렙으로 가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런 조항이 미디어렙법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 사찰,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참가해 불교방송을 공영렙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방송 임직원 대표는 법회 이후 방통위원장실에 불교방송 공영렙 편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신중일 기자



지하철에서 일상생활의 감동과 지혜를 전하던 풍경소리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랑의 편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하철 아이콘 '풍경소리' 철거되나?

서울시, 지하철 환경 개선 이유… 박원순 시장 직접 지시

지하철 역사에서 일상의 지혜를 전하던 문화 콘텐츠 '풍경소리'가 철거 위기를 맞았다.

풍경소리(대표이사 선묵 혜자)는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난 8월 16일 '서울지하철 불편사항 개선사업' 일환으로 5, 6, 7, 8호선 141개 역에 걸린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철거 이유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월 발족한 '서울지하철 환경개선 시민개혁단'의 표본조사 결과 5백여 건의 개선 사항이 접수됐고, 이중 종교 관련 부착물에 대한 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풍경소리 반발… 서명운동
"결정된 것 없다" 市 · 공사
회의 자료에는 철거 수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7월 31일 열린 시민정책 토론회에서 종교적 형평성 문제로 철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처장은 "서울도시철도의 게시판이 철거되면 차례로 전국의 게시판들도 철거되고 '풍경소리'도 함께 해체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공익성 비영리 단체의 오랜 활동을 칭찬은 못 할망정,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조치를 비판했다.

서울시의 철거 정책을 막기 위해 풍경소리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올렸다. 향후에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사찰, SNS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불교계의 이런 반발이 알려지자 서울시와 해당 지하철 공사는 "계획이지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신만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팀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민개혁단에서 도출한 의견들로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양 지하철공사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림 서울도시철도공사 영업관리팀 차장도 "철거는 계획일 뿐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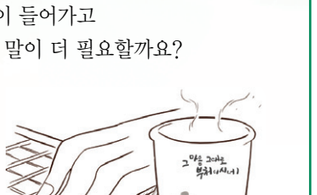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종교관계자와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대책에 △종교 관련 부착물 및 선교 행위에 대한 시민불편에 대한 의견 설명 △토론회 결과 지시사항 사업과 병행 추진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사실상 철거 수순을 밟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용성 사무처장은 "이미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양 측의 의견을 접수한 것"이라며 "불교계의 '풍경소리'와 기독교계의 '사랑의 편지'가 종교적 형평성에 어떻게 위배가 되고,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신중일 기자

903호 INDEX

종합 2·3
세계유산 등재 잠정 목록 선정
백양사 종단 감사 거부
사찰음식 우수성 발표회

시방세계 5
〈한국전통사상총서〉 발간 의미



학술 9
경허 스님 여색·음주 후회했다.



한간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75mm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64호 법주사석연지



법주사 석연지

임 강 빈

사람의 손은 거의 직선을 만든다
자연의 손은 곡선이다
곡선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 곡선을 따라 법주사를 찾는다
보은에서 안내판을 만난다
천왕문에 들어서니
금동미륵대불이 대자대비하시다

석연지는 돌로 피어난 연꽃이다
돌이파리가 파르르 떨고 있다
8각의 받침돌 위에 버섯 모양의 구름 무늬
반쯤 피어난 연꽃이 반긴다
윗부분에는 큼직한 연꽃잎을 두 겹으로 둘러 놓았다
절제된 화려함 속에 우아함을 더했다
돌로 거대한 연꽃을 만들었고
그 속에 생명의 꽃을 띄어 놓았다

8세기경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었다 한다
우선 규모부터 놀랍다
둘레는 장정 세 아름만큼 크기의 대작이다
단단한 몸 돌을 끌과 정으로 내부를 깎아 내었다
그 노고가 얼마일까
석공의 곡진한 정성이 놀랍다
석연지는 중생의 소망으로 피어났다

속리산 신록의 푸르름이 일제히 하강하고
석연지 주변을 옹위하고 있다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에서 자란다
극락세계로 흐르게 한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임강빈 시인은… 충남 공주 출생. 195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당신의 손〉, 〈집 한 채〉등.

전통사찰 유네스코 등재 '첫 걸음' 뗐다

국가브랜드위, 통도사 등 7곳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전통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전통사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잠정 목록 대상사찰로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선암사, 부석사, 봉정사, 통도사 등 7곳을 선정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문화재청(청장 김찬)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협의회가 전통사찰 700곳 중 50곳의 사찰을 선별·답사하고 2년간의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협의회에는 고건축 전문가인 이상회 성균관대 교수, 김봉열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불교사 전문가 김상현 동국대 교수, 불교 측에서는 장적 스님 등이 참여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선정 이유로 "7개 사찰이 조선시대 이전 창건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화엄, 법상, 선종 등 다양한 불교사적 역사를 가졌다"며 "선교융합과 예불, 강학, 공동생활이 복합돼 불전, 강당, 승방이 공존하는종합 수행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국 설치… 2014년 등재 추진
운주사, 폐사지는 단독 등재 예정
9월 21~23일 관련 국제 세미나
조계종 "유산 가치 드높여" 환영

또한, 사회적 측면으로는 "조선시대 국가적 억불정책 속에서도 불교의 신앙적 전통을 유지·계승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문가협의회 위원 장적 스님은 "더 많은 사찰이 등록됐으면 했지만, 등재를 위한 국제적 보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월정사, 송광사는 6.25 동란을 거치면 많은 전각들이 전소됐고, 금산사도 화재 이후 훼손이 심했다. 주로 건축물과 사격이 잘 보존된 곳을 위주로 잠정 등재 목록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운주사와 전국에 산재된 폐사지는 단독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말 전수 조사를 위한 사무국이 발족한다. 사무국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종단 내에 구성할 계획"이라며 "신청서는 올해 중 제출하고 2014년 최종 등재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 양산 통도사에서 '한국 전통사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사찰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학자는 물론,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결정에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문화부장 진명 스님 명의로 22일 발표한 환영 논평을 통해 "한국의 전통사찰은 1700년 동안 예불, 참선, 강학 등이 행해진 수행 공간이자 역사공간이었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한국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잠정목록 등재 대상 사찰 선정을 통해 전통사찰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종단 역시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난해 유교서원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잠정 등록했으며, 내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등을 등록할 방침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백양사, 이번엔 종단 감사 거부 '물의'

포살법회 날인데 7직까지 부재… 3차 감사도 무성의 일관

지난 8월 17일과 18일 진행하기로 했던 고불총림 백양사의 종단 특별감사가 주지 시몽 스님과 7직 소임 스님들의 부재로 이뤄지지 못했다.

뒤이어 진행된 3차 감사에서도 무성의로 일관해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종단 특별감사를 위해 16일에 정식 통보하고 17일에 백양사로 내려갔다. 17일이 포살법회 날이었음에도 주지 스님부터 7직 소임 스님까지 모두 부재했다"며 "종무원 누구도 주지 스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종무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백양사의 종단 특별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토지 회계 및 불사금 불법 전용 등으로 종단이 특별 감사를 통보했지만, 故 수산 스님 장례 등을 이유로 감사 준비기간을 요구하며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백양사의 사실상 감사 거부가 연이어 이뤄지자, 총무원도 이례적으로 8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실한 감사 이행을 촉구했다.

총무원은 입장문을 통해 "백양사는 사중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집행과 안정적인 삼보정재 관리를 위해 실시된 금번 특별감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재개된 감사도 상황은 같았다. 특별감사반이 감사를 진행하자 주지 시몽 스님은 21일 감사반에 "사중 살림에 관여하지 않았다. 보연 스님이 와야 감사가 가능하다"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암도 스님 예방을 이유로 백양사를 떠났다. 특별감사반은 현재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원 일부를 철수시켰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모바일 웹서비스 개시

종단 소식, 사찰 소개 등 구성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조계종이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한다.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1일부터 종단 모바일 웹 페이지(www.buddhsim.or.kr/m)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통신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종단 모바일 웹은 종단 소식과 포교, 문화, 결사 소식 안내, 조계종 사찰 검색, 템플스테이 등을 불자들에게 서비스하게 된다.

종단 모바일 웹은 기존 홈페이지 하단에 '모바일 웹 QR마크'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조계종은 "모바일 웹 서비스는 차후 종단에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탑재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영담·등운 스님 종회의원 사실상 당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8월 23일 제257차 회의를 열고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영담 스님(쌍계사)과 등운 스님(고운사)의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없음' 판결을 내렸다. 영담스님과 등운스님은 28일 열리는 산중총회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재가불자 하안거 결제식

한 달간 전국 사찰서 봉행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한 달 간의 하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천태종(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8월 22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도용 종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회 임진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번 임진년 하안거에는 전국 천태종 사찰서 신도들이 일제히 한 달 동안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한다. 해제식은 9월 21일 오후 10시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다. 결제식에서 도용 종정 스님은 "색(色)에 물들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무량한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욕심과 번뇌 없이 청정 보살도를 행해 세상법(世上法)에 물들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한 달 동안 마음자리 찾는 데 정진하기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총정 도용 스님이 8월 22일 열린 하안거 결제식에서 법어를 내리고 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봉 행

제9대 총무원장 경원스님 취임식

삼보에 귀의 하옵고
금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는 일붕존자의 유지와 법통수호를 위해 선출된
제9대 총무원장 경원스님의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제방에 사룁니다.

• 일 시 : 불기2556(2012)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 문 의 :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02)991-8176

■ 봉행위원회 ■ 증 명 무찰(3세종정). 지공(현원로의장). 혜운(전 재단이사장). 도기(현 재단이사). 혜천(현원로부의장). 원각(전고시위원장)
봉행위원장 법선 추진위원장 법해 기획위원장 법성 준비위원장 도안
집행위원장 석성 동원위원장 동청 행 위 원 장 용운 분 과 위 원 고봉. 대각. 도허. 만성. 보해. 승원. 지언. 현오. 호원
■ 재단이사회 ■ 이 사 장 경원 부 이 사 장 일명 상 임 이 사 혜광 이 사 도기. 혜운. 경담. 자명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 9대 총무원장 취임 봉행위원회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전화 02)991-8175 전송 02)991-8176

“자전거 타면서 빨래도 해결하자”

숲과에너지, ‘자전거세탁기’ 전시

에너지 절약이 인류사회의 과제가 된 가운데 사찰에서 재생에너지 실천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민모임 숲과에너지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재활용품으로 버려진 세탁기, 중고 헬스기를 사용해 전기 없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세탁기’ 3종류를 제작하고, 체험과 전시 행사를 진행했다.

자전거세탁기는 자전거와 중고 운동 헬스기에 통돌이 탈수기 및 드럼세탁기를 연결해 페달을 돌리면 세탁기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세탁물을 약간의 친환경세제로 불린 후 약 20여 분간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면 세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실험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학생들이 지난 2005년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 지역 등에 자전거의 힘만으로 세탁기를 쓸 수 있도록 고안된 아이디어 상품이다.

손상훈 숲과에너지 기획국장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사찰을 오가는 신도들과 방문객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절약정신을 확산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숲과에너지는 8월 22일 조계사 일주문앞에서 ‘자전거세탁기’ 3종류를 전시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건강한 사찰음식 먹고 힘내세요”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단 오찬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사찰음식 공양으로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8월 20일 경기도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초청 사찰음식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춘배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장, 조향현 훈련원 원장, 체육인불자연합회 이경훈 회장 등 출전 선수 및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선전을 다짐했다. 또한 런던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금메달 리스트인 오진혁 선수와 양궁 대표팀 장영술 총감독이 특별 방문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 영양학적으로 완벽”

문화사업단, 21일 ‘사찰음식 우수성’ 연구 발표회



8월 21일 열린 ‘사찰음식 우수성 연구 발표회’에서 시연된 사찰음식. 사찰음식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찰음식이 왜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영양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21일 ‘사찰음식 우수성 연구 발표회’를 열고 사찰음식이 영양학적으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12종 사찰음식 성분 의뢰
주요 영양소 골고루 분포
항산화 · 면역 증강에 효과
심혈관 위험인자도 낮춰

이번 연구를 위해 문화사업단은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이 만든 연입밥, 산채모듬밥, 아욱국, 사찰김치, 취나물 들깨무침, 우엉잡채, 무왁저지, 방아잎장떡, 송차 등 12개 음식을 한국식품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사찰음식은 주요 영양소와 일일 영양권장량에 부합하는 완벽한 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을 촉발하는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전무했으며, 현대인의 부족 영양소인 칼슘과 철분이 풍부했다.

산채모듬밥, 사찰김치, 아욱국, 우엉잡채, 송차로 구성된 사찰음식을 한끼 식사로 먹었을 경우, 열량은 705kcal였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1일권장량의 30~45% 가량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찰음식의 영양분석결과’를 발표한 정경완 한국외식산업연구소 연구원은 “사찰음식은 한국인의 영양 권장량에 맞춘 고른 섭취가 가능하다”며 “특히 충분한 식이섬유는 식물성 식품군 섭취가 감소하는 한국인의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 결과는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임 혜전대 교수는 사찰음식의 특징으로 채식과 △약용식품 섭생 △천연 조미료 △저장음식 발달 △제철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인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찰음식의 장류, 김치에는 발효 유익균, 식이섬유소 등이 풍부해 장운동을 도와준다”며 또한“항산화와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낮고, 식이섬유, 무기질 섭취량이 많아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죽음 행렬 막기위해 100일 행동 나설 것”

도법 스님 등 종교대표 21일 국회 환노위 방문



5대 종교인들이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도법 스님은 이 자리에서 “5대 종교가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100일 공동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사태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인들이 국민행동을 전개한다.

5대 종교는 9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0일간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100일 국민공동행동’을 평택 등 사회갈등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을 비롯한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대표단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쌍용차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도법 스님은 이날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한명숙 · 은수미 민주통합당 환노위 위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등 환노위 위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국민적 분열과 갈등, 대립을 풀기 위해 제도권과 종교계가 나서보자는 마음에 국회를 방문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100일 국민행동’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 주관으로 9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100일간 진행된다.

이해학 목사는 “쌍용차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태풍을 막지 못한 우리 국가의 슬픈 운명”이라며 “지속적으로 죽어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거미줄 같은 분위기와 체제 속에 노동자들이 억압받아 온 이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환노위 안에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해 소위를 설치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특정 사업장을 명기해 소위를 만들면 수 십 수 백개의 소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소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차기 대통령,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법륜 스님,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서 강연



안철수 부상 현 정치 무능 보여줘
MB 정부 통일 정책 비판 받을 것

법륜 스님이 8월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대정신통합과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강연했다.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한길)’이 주최한 강연에서 스님은 통일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회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영선 의원, 통합진보당 강동원, 김제남 의원,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 등 국회의원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스님은 “선거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잘 운영할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일치하면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실력 없는 대통령이 뽑혀 국정을 잘못 운영하면 다 죽는다. 실력이 부족하면 안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법륜스님은 안철수 현상에 대한 기존 정치권의 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뭘 하는지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오죽하면 정치를 10, 20년 전문으로 한 정치인은 외면당하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 기대가 커지겠나?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님은 독도 방문으로 독도 분쟁 지역화 빌미를 내주고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이 역사적으로 명백한데 우리 땅이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잘 협력하고 포용해서 더 넓은 땅(북한)을 갖는 데 치중하는 게 낫다. 통일한국은 독도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한국은 동아시아공동체를 견인해내고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5년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외국인들 “연등회서 진짜 한국불교 체험”

봉축위, ‘외국인 모니터링 조사 연구서’ 발간



외국인들에게 보여진 연등회는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였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최근 ‘연등회 외국인 모니터링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모니터링단은 이번 연등회에서 “진짜 한국과 불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손꼽았다.

특히 연등행렬이 토요일 저녁으로 옮겨지면서, 스님과 보다 가까이서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스님이 일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전통문화마당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당수 외국인들이 스님과 직접 마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축제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실제 사찰 조계사를 방문한 점은 외국인들이 ‘진짜’를 경험한다고 느끼게 된 계기였다.

이어 모니터링단은 ‘다양함의 가치’를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데 동의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불교, 다양한 체험, 다양한 사람 등을 언급했다. 축제 홍보시 다양성을 잘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연등회를 종교 축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미흡함은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또 외국인 모니터링단은 방문객 관심사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안내를 요구했다.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통역을 통한 정보나 실시간 안내 부족을 언급했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말레이시아 3명, 필리핀 2명, 이스라엘 2명, 브라질, 모로코, 남아메리카공화국, 스위스, 미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각 1명으로 구성됐다. **신중일 기자**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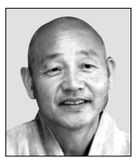
도선사 조실 추대

현성 스님은 8월 3일 문중회의에서 도선사 조실로 추대됐다. 진산식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02)3216-4822



정조 · 다산 토크 콘서트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9월 1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정조 · 다산 리더쉽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031)234-0163



도자 대장경 봉안 회향법회

양산 통도사 서운암 주지 성파 스님은 8월 21일 서운암에서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의 도자 대장경 봉안 축하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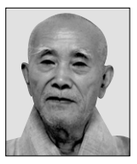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은 8월 31일까지 반월당 보현사에서 불교 청소년 지도자 상담연수를 실시한다. (053)623-6388



천일기도 회향 법회

양산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은 8월 13일 원각사 극락전에서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을 모시고 천일기도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법문DVD와 CD 무료 보시

예천 법연선원 대공 스님은 불교TV 무상사 초청 일요법회 법문 내용을 담은 DVD와 CD를 무료 보시한다. (011)861-6252



수류도법 등 문화강좌 개설

법헌 스님은 서울 낙원동에 두타선원 문화센터를 개원하고 9월 3일부터 수류도법,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등을 강의한다. (02)747-4268

제7대 정각회장 이해봉 의원 별세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 제7대 회장을 지낸 이해봉 前 국회의원〈사진〉이 8월 19일 오후 1시 3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2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오전, 장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산이다.

1942년 6월 15일 대구에서 태어난 故 이해봉 의원은 제23대 대구광역시장, 1992년 제 2대 체육청소년부 차관, 국회15,16,17,18대 국회의원, 200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 6월 30일부터 2008년 7월까지 제7대 정각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재임 기간동안 불자 의원 신행 활성화와 불교 규제법령 철폐를 위해 노력했다.

황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최근 저서 〈바보같은 인생〉을 출간했다. **신중일 기자**

"정기 해외 순회법회 자주 열겠다"

조계종 전법단장 계성 스님 미주지역 순회 마치고 귀국



불교가 최근 서양에서 그곳의 풍토와 문화에 맞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 틱낫한 등의 존재가 서양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심리학, 재가 수행을 중심으로 불교가 널리 전파되고 있다.

조계종 전법단장 계성 스님〈사진〉은 지난 6월 18일~8월 12일 미국불교의 전법활동을 위해 미주지역 10개 사찰의 순회를 마치고 귀국했다.

스님은 ▷6월 17일 보스톤 문수사 ▷6월 24일 뉴욕 원각사 ▷7월 1일 뉴욕 불광사 ▷7월 8일 필라델피아 관음사 ▷7월 15일 뉴욕 원각사 ▷7월 22일 시카고 불타사 ▷7월 29일 토론토 대각사 ▷8월 5일 LA 정혜사 ▷8월 10일 LA 원명사 ▷8월 12일 LA 태고사를 차례로 돌며 순회대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지난 8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에서 한국 스님들이 전력을 쏟으며 포교활동 하는 것을 보고 '불교는 절대 망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귀국 소감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430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한국사찰은 130여 개에 불과하다. 한인교회도 돈을 지불해 예배당을 빌려 쓰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한국 스님들의 포교상황은 이보다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토론토 대각사 스님은 사찰 창건을 위해 신문배달, 택시운전, 식당청소, 비행조종사 등 온갖 궂은일을 마다 않고 오직 불교홍포를 위해 힘써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현지 스님 및 신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종단차원에서 힘써야 될 부분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직접 미국 사찰을 방문하니 신도분들과 스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며 "그만큼 신심 깊은 불자들이 부처님법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미주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종단에서 ▷한국사찰건립 ▷총무원장스님의 미주지역 정착 스님 임명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3가지 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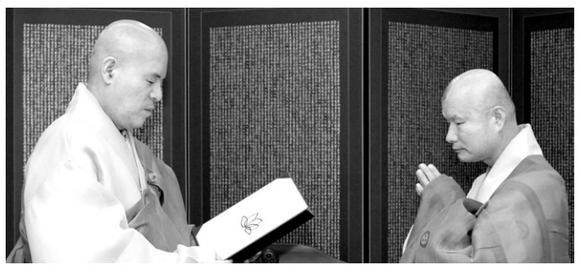
스님은 "현재 미국에 있는 대부분 사찰은 한국과 달리 가정집에서 법회를 보거나 소규모 포교당이 대부분이다. 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전파하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는 대형사찰이 있다면 한국교민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지역 스님 대부분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신도들이 스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 불안해한다"며 "종단에서 직접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스님들을 임명해 임기를 두고 그 곳에서 생활하게 한다면 포교활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현지교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전법단의 미국포교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스님은 "포교원과 논의해서 전국 전법단 소속 300여 스님들과 면담을 통해 해외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들을 선출하고, 정기적으로 해외지역 전법순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조계종 전산특보 진화 스님 상임감찰 탄탄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받는 진화 스님(사진 오른쪽)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2일 총무원장 전산담당 특별보좌관에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을 위촉했다. 前 상임감찰 진우 스님의 후임에는 탄탄 스님이 임명했다.

자승스님은 위촉 · 임명장 전달을 이후 "진화 스님은 봉은사에서 계시면서 전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종단 가람지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탄탄 스님에게도 "호법부 업무를 파악하고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진화 스님은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85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송광사 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현재 서울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탄탄 스님은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9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졸업했고 대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佛法 바탕한 인성교육 할 터"

구립 어린이집 수탁 받은 도림사 주지 대훈 스님



"미래의 주역으로서 밝고 건강한 새싹 불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고 싶은 어린이집,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에 매진하는 어린이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동작구청으로부터 구립 우리어린이집 수탁자로 선정된 (사)한국불교교화원 도림사 주지 대훈 스님〈사진〉은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구립 도림사 우리어린이집은 총 421 제곱미터 규모로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은 99명이다.

대훈 스님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은 불타의 자비정신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자리이타의 실천과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전국적으로 교도하여 새 생활 불교운동의 전개와 구국도 생활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되었다"며 "그동안 양천구립 신월청소년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어린이 보유시설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어린이집 위탁 신청 배경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종단 쇄신은 근본적 개선부터"

결사추진본부, 17일 봉선사서 대중공사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8월 17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종단 쇄신안에 대한 종도들의 공의를 모으는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한 봉선사 대중공사는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스님의 '결사추진본부 활동과 종단쇄신안 도출 추진 과정보고' 와 참석 스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은 선거제도,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수행과 정진을 바탕으로 종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성과 쇄신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밀운 스님은 "백번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모든 종단이 힘을 모아 쇄신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봉은사 '판전' 보수불사 고불식

추사 김정희 선생이 별세하기 3일전 현판을 썼다고 전해지는 봉은사 판전이 오는 11월까지 전면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26일 봉은사 판전에서 보수불사 입재 고불식을 열고 실물 경판을 이운하는 의식을 최초로 봉행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3호인 봉은사 판전에는 〈대방광불화엄경〉 목판을 비롯해 〈금강경〉, 〈유마경〉 등 13종류 경전의 목판 3,749장이 보관돼 있다.

강민수 봉은사 홍보팀장은 "판전 내부바닥과 경판 보관판가, 지붕 기와 등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 내외부를 전면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불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경판을 해충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훈증 소득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국내 대학 중 장학금액 1위

금강대가 국내 전체 대학 가운데 장학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꼽혔다.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8월 23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2011년도 장학금 수혜 현황에서 국내 전체 대학 1위를 기록했다. 교과부가 밝힌 2011년도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46만원으로 금강대는 이보다 5배 가량 많은 723만원이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소수정예 교육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학제도와 뛰어난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佛敎 淨衆宗 창종 선포문

"깨끗하고 맑은 무리의 중생들이 불국정토를 염원하는 종단"

曉起專心絶一體 夢見如實破空寂 願我繼創淨衆宗 五更一轉無住跡
효기전심절일체 몽견여실파공적 원아계창정중종 오경일전무주적

새벽에 일어나 전심하여 일체를 끊어버리고
꿈속에서 여실하게 공적을 부수는 걸 보았네
원컨대 정중종을 이어 다시 창종하노니
오경이 한번 굴러 흔적조차 없다네.

부처님 입멸 후 정법과 상법이 쇠락하고 말법시대에 이르러 중생심은 탐욕에 물들어 무명에 휩싸인 채 나아갈 길을 몰라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세계 인류구제와 정신문화 계도, 민복안락과 전법도생의 길을 열고자 자성을 밝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열어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서원하는 바이다.

이제 시절의 인연이 도래해 법의 당기를 우뚝 세워 종문을 여니 곧 불교 정중종 창종을 시방세계 불보살과 역대 조사들께 고하는 바이며, 무상선사의 염불선풍을 만세반석에 다시 쌓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교 정중종으로 제종을 통섭해 일체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수행문을 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불교 유사 이래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불교 정중종 종조 무상선사는 신라 성덕왕 셋째 아들로 군남사에 출가, 44세에 당나라로 건너가 오조 홍인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 지선선사의 수법제자 처적스님에게 인가를 득했고, 법의 징표로 달마조사의 의발을 전해 받아 정통법인의 사자상승을 이었다.

무상선사 문하에 마조 도일선사가 선법을 이었고, 지장, 마곡, 남천, 장경선사 등을 거쳐 도의, 홍척, 혜철, 범일, 무염, 현욱에게 그 법이 전수돼 한국 땅에 구산선문을 열게 됐다.

이와 같이 무상선사가 한국고승 최초로 중국 사천성에 정중종을 창종 하고 선법을 풍미한지 오래되지 않아 종문이 인멸돼 1천3백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한국 승려로는 유일하게 중국 오백나한 가운데 455번째 지위에 올라 중국인들로부터 보살로 추앙받고 있다.

무상선사 열반 1천3백여년 만에 인몰된 불교 정중종을 다시 창종하니 이는 불조의 혜명과 종도대중의 뜻을 받들어 제종통섭을 통해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일으켜 불국정토를 이룩함이다.

삼가 불조와 무상선사의 가호 아래 우리 법손만대의 향상과 번영을 빌며, 종도 대중과 함께 불교 정중종 창종을 만천하(滿天下)에 선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정중종 불교 정중종 종정 진여 법만 합장

불교 정중종 총무원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100 (중화동)
전화 : 02)433-6591~2



2009년 1월에 열린 제5차 공동워크숍. 간행위원회는 28차례의 회의와 5차례의 워크숍, 수많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2011년 7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정법회서 조계종 前총무원장 故지관 스님과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함께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본을 부처님께 봉정하고 있다.


2012년 6월 최종 완간된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본(위)과 영역본(아래).

“서구에 학문적 담론 제시” 역경 대작불사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 5년 과정과 의미

“빛을 감춰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옷 속의 밝은 구슬(衣內明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간행 사업은 독해할 수 없는 고전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구슬을 꺼내 갈고 닦아 회복하는 번역 대작 불사입니다.”

2009년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가 주최한 제5차 국제워크숍 입재식이 열리고 있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故지관 스님은 참석 간행위원과 영역자, 대중들에게 〈한국전통사상총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이로부터 3년, 故지관 스님의 마지막 원력이었던 〈한국전통사상총서〉가 지난 6월 최종 완간됐다. 2006년 12월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5년 6개월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발간비용도 국고 27억원과 자부담 3억원이 투입된 대작불사다.

길어 보이는 일정이었지만, 정작 한글역과 영역 담당자들에게는 찰나 같은 시간들이었다. 한국 150여 고승의 320여 종 문집이 고전 한문 형태로 수록된 〈한국불교전서〉에서 90여 종의 문집을 선별 번역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30일 첫 간행위원회 회의가 열려 주요 번역대상 저술을 선정했고, 이후 27차례 회의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 실무위원회 회의는 총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 없이 진행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오가며 국제 워크숍도 5차례 열렸다. 2007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제1차 워크숍에서는 한글과 영역 편집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차 워크숍은 일본 동경 불교전도협회관에서 ‘영역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했다.

서울에서 열린 3차 워크숍(2008. 1. 23~27)에서는 ‘다자간 번역시스템’의 문제점이 논의됐고, 미국 워싱턴과 하버드, 예일대에서 진행된 4차 워크숍(2008. 5. 13~17)에서는 영역 교열과 윤문자 섭외와 영역출판사 선정이 이뤄졌다.

2010년부터는 영역 편집회의가 수차례 진행됐다. 영역 편집회의에는 주요 영역자인 로버트 버스웰(美 UCLA), 찰스 뮬러(日 동경대), 존 조르겐센(前 그리피스대)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전문가들로 잘 알려진 청안의 이방인들은 매년 학회 참석차 1~2회 방한했고, 간행위원회는 이들 일정을 조율해 회의를 진행하는 수고도 아까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연구 행정을 담당했던 권기찬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적인 회의만 28차례, 국제 워크숍 5회가 열렸다”며 “E-mail을 활용한 주요 번역자간 논의 과정도 많았고, 각 팀별로 진행된 회의도 수도 없이 진행됐다. 이런 수많은 논의 과정들이 이번 총서의 최대 특징인 다자간 번역시스템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한국전통사상총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자간 번역시스템’을 통해 고대 역장(譯場)을 복원했다는 데 있다. 그간 번역은 번역자 1~2인에 의존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어 왔다. 하지만 ‘다자간 번역시스템’은 한글역자와 영역자 간 교차검토와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

영역 윤문을 총괄했던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은 “교차 번역과 검증 과정을 통

故지관 스님 역경불사 발원
한·미·일 오가며 워크숍·회의
다자간 번역시스템 역장 복원
30억원 투입…전문가 42명 동참
버스웰 “지관 스님께 감사”
한글본 세계 313곳 도서관에

한 다자간 번역시스템 안에서 5년 만에 한글역과 영역을 완성시킨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며 “故지관 스님이 원력을 세운 일을 후대 총무원 집행부가 연속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영역본 완간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초석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불교를 연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불교에 대한 기초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한국불교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전통사상총서〉한글역은 국제교류협력재단의 접수를 통해 전 세계 313개 주요대학 도서관에 배송됐으며, 영역은 그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간행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현 간행위원장)은 완간사를 통해 “한국전통사상총서 완간은 1천7백년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전통이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가는 중차대한 노력의 한 결실”이라며 “향후 한국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진면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영역자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도 “〈한국불교전서〉 중 대표 고승의 문집을 선별한 〈한국불교사상총서〉영역본이 영어 불교경전을 발전시키는데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집의 고승들은 티베트, 중국, 일본 불교처럼 주요 연구 주제로 부각될 수 있다. 서구 불교학자들에게 신선한 학문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故지관 스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버스웰 교수는 “당대의 뛰어난 승려이자 학자였던 故지관 스님은 총무원장 임기동안 〈한국전통사상총서〉 편찬을 최초로 계획하고 진두지휘했다. 그런 스님이 총서의 최종 완간을 보지 못하고 입적하셔 안타깝다”며 “평생 불교학 연구에 매진한 지관 스님의 업적으로 한국불교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불교학도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전통사상서 간행 번역팀

팀 현황	담당 역주서	팀장 및 영역자, 팀원
제1팀	원효, 지눌, 화엄1	팀장: 해주 스님(동국대) 영역: 박진영(美 아메리칸대), 로버트버스웰(美 UCLA), 찰스 뮬러(日 동경대), 샘 베르메르슈(서울대), 리처드 맥브라이드(美 하와이대) 연구원: 승원 스님, 수정 스님, 경진 스님, 정천 스님, 박서연, 임상희, 최원섭, 박보람
제2팀	휴정, 공안집1·2, 선어록	팀장: 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영역: 안준영(美, 미시건대), 존 조르겐센(前 그리피스대) 연구원: 조영미, 한재상
제3팀	화엄2, 제교학, 문화	팀장: 정병삼(숙명여대) 영역: 메튜 웨지하우트(美 미시건대), 마이클 핀치(계명대) 연구원: 라정숙, 옥나영
제4팀	시선집	팀장: 이진오(부산대) 영역: 박영의(충남대) 연구원: 원향미, 김춘호
제5팀	계율	팀장: 원철 스님(법주사 강사) 영역: 찰스 뮬러 연구원: 원창 스님, 영덕 스님, 행오 스님, 성해 스님
제6팀	한국고승비문집	팀장: 고옥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영역: 김정근(前 동국대), 패트릭 울만(금강대) 연구원: 신선혜, 방정란
제7팀	영역교정 및 감수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정덕 스님(중앙승가대), 일미 스님(美 듀크대), 로데릭 윗필드(英 런던대)

한국전통사상총서 목록

총 서	역 주	역주 경전, 고승 저술
권1 원효	해주 스님	〈진역화엄경소서〉, 〈무량수경종요〉 등 17편
권2 지눌	해주 스님	〈권수정혜결사문〉, 〈수심결〉, 〈원돈성불론〉등 7편
권3 휴정	김영욱	〈청허당 행장〉, 〈선가귀감〉, 〈선교결〉등 5편
권4 화엄1	해주 스님	화엄일승법계도·법성게 주석 모음 등 7편
권5 화엄2	정병삼	〈해인삼매론〉, 〈대각국사문집〉등 4편
권6 제교학	정병삼	〈삼미륵경소〉, 〈성유식론학기〉등 6편
권7 공안집	김영욱	〈선문공안설화〉
권8 선어록	김영욱	〈진각어록〉, 〈백운어록〉등 4편
권9 시선집	이진오	〈무의자시집〉, 〈호산록〉등 26편
권10 문화	정병삼	〈왕오천축국전〉, 〈삼국유사〉
권11 계율1	원철 스님	〈범망경고적기〉1
권12 계율2	원철 스님	〈범망경고적기〉2, 〈보살계본종요〉
권13 한국고승비문	故지관 스님	한국고승비문 15기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입종안내

◈ 입 종 안 내 ◈

※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적종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희망 時 –
○ 사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종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붕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재)일붕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정각 대종사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교육·수행종단·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붕”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붕문도와 일붕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8월 좋은 날

※ 전국교구 종무원 ※

경기남부교구원장 : 일성(미륵사) ☎ 011-350-5855
경기북부교구원장 : 지산(통일안국사) ☎ 031-876-2235
경북교구원장 : 해동(지장사) ☎ 054-672-6564
전남교구원장 : 지현(약천사) ☎ 062-266-7462
전북교구원장 : 성각(백룡사) ☎ 010-9516-9600
충청교구원장 : 상원(해천사) ☎ 044-863-5582
제주교구원장 : 대성(일붕홍법원) ☎ 064-702-2328
대전교구원장 : 정원(삼성암) ☎ 042-583-1009
부산교구원장 : 정일(자광사) ☎ 055-342-3551
울산교구원장 : 지운(운지암) ☎ 052-260-4897
대구교구원장 : 보각(지장사) ☎ 054-482-1071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총정원 _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룡사. 051)404~4300
총무원 _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전송 041)566-6141

가을, 사찰 특별 강좌 '자기 점검' 기회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다. 가을은 어수선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기 좋은 계절이다. 최근 사회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신의 마인드를 전환하는 '힐링'이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 시대에 '힐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불교수행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을을 맞아 전국 사찰과 불교계 단체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할 수 있는 강좌들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초보불자를 위한 불교입문강좌부터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수행법, 불교계 대강백 스님들이 직접 나서 강연하는 경전 수업, 취미활동과 불교를 한꺼번에 익힐 수 있는 문화특강까지 다양한 강좌들이 진행돼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초심자에게는 발심을, 기존 불자들에겐 잊어버린 초심을 되새기게 하는 다양한 수행 강좌가 열린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요가를 통해 명상 수련을 하는 강좌를 진행한다.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초은 스님이 지도하는 '요가명상강좌'는 9월 14일~11월 30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강좌는 요가와 기초명상 수련을 통해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화두,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불자들이 불교의 핵심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 생활에서 정견을 세우도록 강의와 문답, 좌선 등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은 9월 18일~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불교란 무엇인가 ▷연기·무아의 세계 ▷신심, 발심과 공심 ▷선이란 무엇인가 ▷간화선 수행체계 ▷화두참구하는 법 등에 대해 강연되며,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증명법사,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서울 상도동 상도선원(선원장 미산)은 연기와 중도의 삶, 마음수행의 원리를 알려주는 '상도선원 마음수행학교'를 개설해 10월 4일~11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연다. 프로그램은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이 직접 지도법사로 나서 초기경전 강의부터 마음수행까지 코치한다.

경전 및 선지식들의 선어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서울 방배동 제따와나선원(선원장 일묵)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중간 길이로 설해진 경전들만 모아 결집한 〈맛지마 니까야〉를 통해 9월 11일~11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제12기 제따와나 입문법회'를 진행한다. 제따와나선원장 일묵 스님이 직접 지도법사로 나서, 〈맛지마 니까야〉와 〈아함경〉을 비교분석하고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좌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며, 오전반은 오전 10시~낮 12시 20시, 오후반은 오후 7시 30분~9시 20분까지 법문과 개인 인터뷰 등으로 진행한다.

경북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조계종의 대표적인 대강백(大講伯)으로 유명한 각성 스님이 〈서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서장〉은 대혜종고(大慧宗杲;1089~1160)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해 선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특강은 9월 10~14일 오후 2시까지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진행되며, 각

생활에서 쉽게 적용하는 수행법
스님들이 직접 지도하는 경전 수업
문화특강까지 풍성히 마련

성 스님의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는 9월 4일 10월 2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낮 12시 30분까지 서울 충무로 자비선명상센터에서 〈승만경〉강좌를 진행한다. 이인혜 〈승만부인사후경〉역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여성들의 성불(性佛)에 대해 강연한다.

평소 관심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강좌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에게 들을 수 있는 불교 특강도 개강한다.

월정사성보박물관 불교문화대학은 민화연구과정의 일환으로 민화그리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까치호랑이를 첫 수업으로 부귀와 공명을 상징하는 모란도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 화합과 다산을 이루게 하는 연화도 등의 수업이 실시된다. 강의는 월정사성보박물관 교육실에서 9월 2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전북불교시민연대는 9월 13일부터 2달간 총 8회에 걸쳐 사찰(자연)음식 강좌를 진행한다. 현대인의 건강과 식생활에 적합한 메뉴들을 선정해 이론수업과 조리실습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연에는 자연음식연구가 혜각 스님과 백희정, 유지원 자연평화식당 대표가 강서로 나서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찰음식을 선보인다.

이밖에 **참여불교재가연대**는 하반기 가을 특강을 실시한다.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2층 대교육장에서 ▷9월 4일 오후 7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깨달음의 길, 중도' ▷11월 6일 오후 7시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불교와 바른정치' ▷12월 4일 화요일 최병헌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의 '한국사회의 미래와 불교'에 대해 포럼을 진행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찰 주요 강좌 프로그램

사 찰	프로그램	내 용	일 시	수강료	문 의
국제선센터	붓 그리고 선-사경수행	〈초발심자경문〉 법문과 사경	9월 13일~11월 1일	8만원	(02)2650-2200
	〈유마경〉 경전수업	국제선센터 명법 스님의 유마경 강의	9월 18일~12월 4일	10만원	
	요가명상강좌	요가를 통한 기초명상 수련	9월 14일~11월 30일	10만원	
	차문화강좌	차의 종류와 효능 및 만들기 체험	9월 10일~12월 3일	10만원	
조계사	참선 입문과정	간화선에 수행체계 및 화두	9월 18일~11월 27일	25만원	(02)732-2183
	실전호흡수행	호흡수행법, 선체조, 건강기공, 걷기명상	9월 7일~11월 16일	15만원	(02)720-1390
	문화강좌	불교한문, 천연염색, 통기타, 사진, 서예 등	문의	문의	
상도선원	상도서원 마음수행학교	초기경전, 마음수행법 강의	10월 4일~11월 29일	20만원	(02)815-3391
불교인재원	생활참선반	수행실천강좌 및 참선	9월 2일~12월 29일	무료	(02)1661-1108
제따와나선원	제따와나 입문법회	〈맛지마 니까야〉 〈아함경〉 비교분석	9월 11일~11월 27일	10만원	(02)595-5115
비로선원	유식강좌	유식에 대한 기초 강연 및 법회	12월 18일까지	10만원	(02)2646-9441
불교여성개발원	제6기 승만경 강좌	〈승만경〉통해 여성 성불 이해	9월 4일~10월 23일	10만원	(02)722-2101
고운사	각성 스님의 '서장'	〈서장〉을 통해 선입문에 관해 가의	9월 10~14일	10만원	(054)833-2324
수덕사	불교입문반	불교입문에 관한 기초적 강의	9월 4일~11월 20일	10만원	(041)330-7710
	〈아함경〉 강좌	초기경전에 대한 이해	9월 6일~11월 22일	10만원	
월정사성보박물관	민화 그리기	모란도, 십장생, 연화도 등 수업	9월 2일~12월	30만원	(033)339-6633
전북불교시민연대	사찰음식강좌	사찰음식에 대한 이론 실습	9월 13일~11월	25만원	(063)271-3555

우리는 하나…9개 국 800여 이주민 참여

제4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지난해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한 네팔 이주민들이 줄다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

2011년 행정안전부는 한국거주로 등록된 외국인은 126만 명에 넘는다고 발표했으며, 2010년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이 약 17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와 사회부 산하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도제)는 부처님의 평등과 자비사상을 실천하고자 외국이주민과 가족들을 초청해 9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보조경기장에서 '제4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경과 종교를 허물고 한 마음으로 어울리자는 의미에서 'Happy World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특별히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한다.

2008년부터 이주민 초청행사를 실시해 온 국제포교사회는 "종단 내 단체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대회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해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교계 최대 이주민 체육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몽골,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9개 국가 800여 명의 이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가해 체육대회, 문화 행사, 음식 장터 행사를 실시한다. 체육대회에는 축구, 배구, 400m 계주, 장애물 경기와 줄다리기 등 국가별 대항전이 진행되며, 종합성적을 산출해 시상식도 이뤄진다.

또 참가 국가들의 음식을 나눠 먹는 나라별 음식문화 체험, 각 나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장기자랑 등 한국과 참가국의 민속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민속 놀이마당 등도 실시된다.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이번 행사의 주안점은 참가자들 모두가 국가, 종교 등의 틀에서 벗어나 다채롭게 펼쳐지는 문화의 장에서 지구촌 공동체로 함께 어울리는데 있다. 또 그들에게 한국불교와 한국인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보여주고, 주객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포교사회원들이 각 종목별 팀을 구성해 이주민과 함께 경기에 참가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시간도 많이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더욱 복된 생활을 영위하고 제2의 고향인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과 우정과 화합을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2)722-2206

이은정 기자

'행복한 죽음'을 위한 죽음교육

웰다잉운동본부 ''행(行) 할 수 있는 죽음교육' 개설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운동본부가 스님과 웰다잉교육 기본 및 관련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행(行) 할 수 있는 죽음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9월 19일~11월 28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9시 20분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진행된다.

강연은 ▷김홍근 한국간화선연구소 소장,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교수 '삶과 죽음 소통과 나눔' ▷대원사 회주 현장 스님 '불교의 생과 사' ▷김기호 아름다운 삶 수련원 대표 '죽음 명상과 실제' ▷서울시북부병원 호스피스병동 지도법사 해성 스님 '임종 간호와 상담' ▷불교상담개발원 상담사 관해 스님 '임종 간호와 상담 Ⅱ' ▷원자력병원 영산법당 지도법사 여행 스님 '임종간호 실전 워크숍' ▷이범수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겸임교수 '사별자 집단 상담과 실제' ▷조계종 교수아사리 정각 스님 '불교 임종 의례와 실습, 상장례와 근조화'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 원장 '불교장례문화와 예절 성찰' ▷유나방송 원장 정목 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25만원이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사찰음식문화센터와 영108회는 9월 14~15일 '젊은 세대를 위한 사찰음식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02)722-2101~2

이은정 기자

포교사단 제10회 8재계수계실천대법회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10회 8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9월 8~9일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한다.

8재계수계실천대법회 첫 날인 8일에는 제6기 전문포교사 및 제17회 포교사 고시 최종합격자들의 품수식과 독경정진 철야정진,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법어 등이 진행되며, 둘째 날인 9일에는 보살계 수계식 및 우수지역단 포상, 회향식이 거행된다. (02)927-0588

이은정 기자

사찰에서 무료 성평등교육 실시

나무여성인권상담소 9~10월 양성평등교육 진행

사찰 내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종무원 및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평등·평화적인 신행공동체를 위해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9~10월 무료로 시행한다.

교육은 ▷양성평등 개념이해 ▷불교의 성평등 문헌 및 기록 ▷성평등 사찰문화 ▷젠더 감수성 키우기 등으로 진행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측은 "불교는 여성출가자 및 여성신도들의 사회 활동이 왕성한 편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의식으로 여성에 대한 권위주의와 차별이 일상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여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처님의 성평등의식이 일상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사찰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02)732-1366

이은정 기자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재가 아닌 내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방법을 전수합니다. 환자와 가족분들이 확인이 가능

1. 영가는 있는데 확인을 해 줄수 없는 스님, 법사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확인)
3. 최면과 차원이 다른 기도를 통한 영적인 가르침.
4. 일반병. 정신병과 영가 장애 질환의 구분확인.(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난치병 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영가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출한다.
6. 영가에게 말을 가르치는 방법과 빛을 보고 천도되게 하는 방법.
7. 스님의 고질병, 영가장애확인, 신도들의 영가확인.
8. 파동교감법, 영혼심령술,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파동교감법을 통한 확인 본인이 직접 천도확인 가능.
9. 암,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불면증, 환청, 환시, 무속병, 대물림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일반 불자님이나 스님의 난치병 상담) 사찰내 건강프로그램 운영하실분, 대체의학센타 운영에 관심있는 스님과 신도분, 우뇌교감 난치병치유방법 전수
10. 영가의 수준확인 저급영가 - 한과집착질병호소 중급영가-진리을 찾아 방황과혼돈 고급빙의-깨달음에 대한 갈망과열정

◆ 10주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퇴마공부 하시는분 약간명 모집 ◆

- 기도명상, 만다라진언수련, 영언수련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이 온 목적과 이유 삶의 가치를 확립. 영혼이 윤회의 확실한 기억을 알게함.
-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스님과 조정후에 결정 개별지도 및 단체지도, 사찰 출장강의 지도합니다.
- 형편이 어려운 일반불자분은 재능봉사 기부를 통한 치유합니다.

※ 포교원 스님 영가확인 천도 특별지도해 드립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 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칩니다.

- 원 장 여산법사 합장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2년 9월 4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연극으로 '제2의 인생' 찾았어요

종로노인 어르신연극동아리 '빨래터', 대학로서 열연

"아유 속상해. 이 경로당 전화요금을 저희 부녀회에서 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달 경로당 전화요금이 무려 279만 8359원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전화요금이 200만원 넘게 나와?" "이거 우리가 쓴 거 아니야. 그거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부녀회장이 들어서며 던진 말 한 마디가 어르신들이 모인 경로당을 떠들썩하게 한다. 경로당에 한 대 밖에 없는 유선전화 요금이 279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 게다가 누군가 밤늦게 경로당에서 성인폰팅을 하느라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술렁였다. 범인은 누구일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8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 대본 연습 중이다.

8월 28~29일 대학로 소극장 시월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일 '경로당 폰팅사건' 공연을 앞두고 열연을 펼치고 있다.

연극에 출연한 어르신 13명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어르신 연극 동아리 극단 '빨래터' 회원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어르신들은 이번 작품의 연출과 각색을 맡은 강영걸(69) 연출가에게 4월부터 발음, 자세교정, 발성 등 본격적인 기초 교육을 받은 뒤 2주전부터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본을 읽으며 대사를 맞춰왔다.

'경로당 폰팅사건' 공연
연극 거장 강영걸 지도
4월부터 발음 · 발성 맹연습
수익금 지역에 환원계획


연극동아리 '빨래터' 어르신들은 오디션을 거쳐 연극 연출과 각색을 맡은 강영걸 연출가에게 발음, 자세교정, 발성 등 본격적인 기초 교육을 받아 무대에 오른다.

강영걸 연출가는 관객 20만 명을 동원한 '불 좀 꺼주세요'를 연출하며 1990년대 연극계에 돌풍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등 다수의 불교작품도 연출한 그는 삼성문예상, 백상예술대상, 서울연극제 희곡상 등을 휩쓸었다.

사단법인 소극장협회는 종로구와 함께 지난해부터 대학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로소극장 축제 'D. FESTA!'를 열어 왔다. 협회 측은 이달 말 개최되는 축제에서 두 번째 연극을 선보이는 어르신 극단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강영걸 연출가에게 지도 및 연출을 부탁했다.

강 연출가는 "학예회 수준에 머무는 연극이 아니라 이분들이 살면서 제대로 된 연극을 맛보고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연출을 맡기로 했다"며 "완벽한 연기는 선보이지 못하더라도 주말도 반납하고 연습하는 이분들의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어르신들의 연기력을 고려해 배역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손수 극본을 각색했다.

은발의 초보배우들이 연극한다고 얕잡아보면 큰 오산이다. 연습하는 내내 어르신들은 자신의 역할에 몰입했다. 극중 어르신들의 과장된 연기와 농담에 웃음이 나다가도 노인의 애환이 담긴 독백 장면에서는 가슴이 짠해진다.

공연에서 폰팅 아르바이트를 하는 할머니2 역을 익살스럽게 연기한 안영자 (70 · 여) 어르신은 "평소 얌전하다는 말을 듣는 편인데 연극을 하면서부터 많이 활발해지고 성격도 밝아진 것 같다"며 "지난해 남편과 사별해 큰 아픔을 겪었지만 연극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말했다.

경로당 회장역을 맡은 이관(71 · 남) 어르신은 "젊을 때 연극 · 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았지만 감히 예술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는 꺼내지도 못하던 시절이어서 꿈을 펼쳐본 적이 없다"며 "복지관에서 연극을 배우니 삶의 활력이 느껴지고 표현력, 의사전달력도 늘고 대본을 외우니까 암기력도 느는 것 같다.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극단 빨래터를 담당하는 장경훈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연극을 통해 어르신들은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다"며 "또 발성, 발음, 대본연습 등을 하기 때문에 표현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이번 공연에서 모인 수익금을 지역아동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02)742-9500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마주협, 베트남 지역 봉사 성료

1000여 환자 진료 및 5개 학교 화장실 신축


베트남 지역 초등학교에 페인트칠을 하고 벽화를 그리는 마주협 봉사단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도제, 이하 마주협)는 '신짜오 베트남 앤 코리아' 해외봉사단을 조직해 8월 11~17일 베트남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해 스리랑카 해외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행사에는 의료봉사단, 대학생, 고등학생 등으로 이뤄진 봉사단 57명이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농촌지역을 찾았다.

봉사단은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5개 학교에 학용품을 지원했으며 4개의 화장실을 신축했다. 또한 학교에는 페인트칠을 하고 벽화를 그렸으며 시각장애인시설을 방문해 교육기자재를 전달했다. 이밖에 봉사단은 흐엉틱사를 방문해 보시금과 후원 물품 등을 전달했다.

해외봉사단장 도제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지 20년이 되는 해라서 뜻깊은 봉사활동이 됐다. 의료지원과 화장실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자양복지관, 사찰음식 행사 개최



지역주민들의 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찰음식 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8월 21일 사찰음식을 주제로 복지관에서 '식문화개선 캠페인 및 사찰음식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시식체험 및 미니 가요제 등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나은 기자

가족상담 위한 비구니 스님 교육

조계종 복지재단, 9월 24~26일 국제선센터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9월 24~26일 조계종 국제선센터 마하실 강의장에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초급과정)'을 실시한다. 스님들은 교육을 통해 신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기법과 사례를 배우게 된다.

강의는 강숙정 소장(한겨레심리상담센터), 이장호 명예교수(서울대 심리학과) 등 5명의 상담심리 전문 강사진이 △불교상담자의 상담자적 태도와 윤리 △한국적 가족상담의 이해와 주요 이슈 △불교상담 사례별 실습과 슈퍼비전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60명이며 참석 희망자는 조계종 복지재단 홈페이지(www.mahayana.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woeks48@chol.com)로 접수하면 된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일본계 3세 마이클 혼다 나눔의 집 방문

2007년 미국의회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했던 일본계 3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 애니 팔레오마베가 연방 하원의원이 8월 20일 나눔의 집(원장 원행)을 방문했다.


마이클혼다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애니팔레오마베가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은 너무 작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치욕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더 큰 추모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이 무엇을 겪고 어떻게 견뎌왔는지 알리고 일본에도 상징이 될 수 있게 더 큰 추모상 건립이 필요하다"며 동석한 새누리당 이한성 · 노철래 의원에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할 것을 요청했다.

마이클 혼다 의원은 "할머니들은 강제동원됐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대신 성노예(Sexual Slavery)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채택 당시를 회고하면서 "당시 일본 민주당 리더들은 찬성했다.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알아야 한다. 일본인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격려하며 같이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일본 우호세력과의 연대를 주문했다.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85)는 "우리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두 의원이 방문한)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고(故) 김광석이 불러 유명해진 '이등병의 편지' 작사 · 작곡가인 가수 김현성(54)씨가 위안부 소녀상을 소재로 한 노래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였다. 김씨는 8월 22일 "소녀상 '말뚝 사건' 후 소녀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노래가 없음을 알게 됐다"며 "1000번을 넘어선 할머니들의 집회가 으레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음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작사, 작곡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건너편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참가해 폭우 속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들려줬다. 이나은 기자

박해일,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28일 서울노인복지센터서 위촉식 가져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홍보대사로 배우 박해일〈사진〉이 선정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8월 28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박해일을 초청해 위촉식을 가졌다.



박해일은 여러 이미지가 공존하는 얼굴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빛, 배역에 혼연일체가 되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과 감독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2001년 〈와이키키 브라더스〉로 데뷔한 이래 〈질투는 나의 힘〉 〈국화꽃 향기〉 〈살인의 추억〉 〈괴물〉 〈모던보이〉 등 매번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관객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들여왔다. 또한, 2012년에는 화제작 〈은교〉에서 소녀의 순수한 관능에 흔들리는 위대한 시인 이적요 역을 맡아 30대 청년의 몸으로 70대 노년의 고독과 슬픔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모든 세대가 우리 시대의 노인과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고민의 시간을 통해 깊은 공감에 이르고자 하는 서울노인영화제의 주제 의식이 배우 박해일이 연기하는 이적요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됐다"며 "청년의 몸으로 노년의 영혼을 연기한 배우 박해일이 홍보대사로 참여하면서 2012년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의 행보에 큰 기대가 모아진다"고 밝혔다. 박해일은 역대 홍보대사 임현식(제4회), 김희라(제3회)에 이어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을 펼칠 나갈 예정이다.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오는 10월 22~25일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개최된다. (02)6911-9551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8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봉안 사찰

봉 금강산 건봉사 가을 산신대재 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석가세존 진신 치아사리 봉안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에서는 모든 이들의 안녕과 흥복을 기원하는 산신대재를 매년 지내왔습니다. **산신신앙은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민간의 고유 신앙이며 산신대재는 불교에 수용된 한국 종교 특유의 기원재입니다. 득남득녀, 건강발원, 좋은인연, 시험합격, 사업번창 등 소원을 속히 성취**시켜주시는 호법신장님이 바로 산신님입니다. 올 가을에도 변함없이 여러 불자님과 더불어 힘든 우리들의 삶을 금강산 산신님의 위신력으로 풀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산신대재를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고 스님들의 독송이 온 산에 울려 퍼질 때 금강산과 하나 되어 건봉사 산신님의 크신 원력을 체험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6년(2012년) 10월 6일 (토) (음 8.21) 오전 10시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산신각
기도동참금 : 5만원 (당일 포함 7일간 축원)
계 좌 번 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접 수 문 의 : 전화 033)682-8100-2 FAX 033)682-5994
차 량 문 의 : 서울 _ 건봉사 종무소 033)682-8100 (VIP관광)
부산 _ 불광회 박길하 거사님 011-855-8741
충청 · 대전 _ 불자회 011-9415-8717
전남 · 광주 _ 정길태 011-604-2377 (에버그린 관광)
건봉사 서울포교당 벽운사 _ 02)979-0108

당일은 혼잡하니 미리 종무소로 전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은 각 지역별로 접수, 출발하고 서울은 10월 6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033)682-8100-2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월례 즉문즉설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는가”

도법 스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중심에는 도법 스님이 있다. 종단 변화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본디 스님은 병들어 있는 한국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사회운동가다. 스님이 주장하는 사상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구현되고 있고, 최근에는 월례 즉문즉설을 통해 이를 전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즉문즉설에서도 대중들은 다양한 질문이 쏟아냈고, 스님 특유의 촌천살인의 해답들을 내놨다. 무엇보다 스님은 이날 대중들에게 자신에게 항상 제대로 살고 있는 지를 질문하고, 대화할 것과 그물코처럼 촘촘히 엮인 만물의 관계를 소중히 할 것을 강조했다.

정리=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법 스님은 … 1949년 제주에서 태어난 도법 스님은 18세에 금산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한 뒤 제방선원을 다니며 10여년간 수행했다.1994년 조계종 개혁불사 당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1998년 종단 분규 때에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실상사로 돌아갔다. 이후 귀농, 대안학교, 환경운동 등에 매진하며, (사)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현재 지리산 실상사 회주이자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화쟁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불교는 대화의 종교입니다. 수행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강조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부처님은 일생을 거쳐 제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를 기록한 게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왜 이렇게 대화를 강조했을까요. 소통을 하기 위해 사람은 대화를 하고 그 안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화를 잘하면 인생문제의 70~80%는 해결됩니다. 인생살이에 가장 큰 일은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교계가 대화를 잃어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고 이를 수용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함께 대화합시다.

내려놓는다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알고보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기 위해 정당화하는 게 아닌지요.

故 김대중 대통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의지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분 같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욕이든, 명예 욕이든, 국가와 민족이든 그는 모든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은 다르고, 역량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포기 안에는 스스로의 합리화와 자기기만이 존재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는 말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데 지침을 받고 싶습니다.

시킨대로 하겠습니까? (네) 삶을 잘 사는 방법 중 하나가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세 번째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일까? 네 번째,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은 해답이 안됩니다.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다른 사람의 해답을 들으려 합니다. 지식은 넘쳐나는 데 삶의 고민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스스로 묻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인생화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런 화두를 잡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밥값이 싼 곳은 어디고,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만 질문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이기적인 욕구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기적 욕구는 존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기적인 욕구가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기적 욕구는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붙잡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던진 네 가지 질문을 인생화두로 삼고 정직하게 묻고 풀어간다면 삶은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적게 가지고, 이를 만족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 주위의 유복한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위로와 치유가 열풍입니다. 세상이 위로, 치유라는 무지개에 덮여 있고, 사람들은 이를 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간의 위로와 치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름에 더우니 에어컨을 틀어주자는 것입니다. 한 여름 더위가 에어컨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재화가 많아 부유한 사람은 에어컨 처방에 중독돼 있는 것입니다. 해답이 아닌데 해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름이 오면 불행합니다. 또한 24시간을 에어컨을 틀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골병이 듭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름 더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에어컨은 내가 시원한 만큼 더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 넘기는 것입니다.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등을 더 지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삼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기쁨을 쫓는 한 일시적으로 현혹당하기도 하고 중독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혹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행복을 불교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인생의 화두로 들고 사세요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연결
감각적 기쁨은 결국 ‘전도몽상’
낮추고, 비워야 진정 행복해져

차라리 에어컨을 틀고, 종이컵을 사용하는 게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무지병입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편안과 불편에 관점에서 평가하면 안됩니다. 인생이 편하다는 것, 그 자체가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아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은 더워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겨울은 추워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안에서 행복해지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 귀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더 여유로워 질 것입니다.

일터에서 이런 주제로 동료와 이야기하면 모두 “발전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체 그 발전이 무엇인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하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비인간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들을 중심으로 20세기를 표현한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책 이름은 〈죽음으로 기록한 20세기〉였습니다. 20세기는 다른 누구의 눈물과 슬픔, 그리고 죽음으로 이뤄진 세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건으로 내가 행복해도 되는 것입니까? 너의 배고픔을 조건으로 내가 배부른 것이 올바른 삶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발전’들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희생, 불행, 슬픔을 대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고민들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부처님은 넝마를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로 스스로 낮추고, 비우고, 나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관계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연기적 존재이며, 화엄적으로 보면 인드라망적 존재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의 그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물의 그물코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실상입니다.

현대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유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 욕망을 법적으로 보장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며 모든 것을 착취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중 하나만 없어도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더욱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낮추고, 비우고, 늘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법에 맞는 삶입니다. 불교적으로 연기 무아의 삶입니다.

상대의 존재가치를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삶이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서 열린 도법 스님 즉문즉설 원례법회에서 스님이 제시하는 촌철살인의 삶의 해답을 대중들이 경청하고 있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삼보 귀의 하옵고!
여래불교 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 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 걸음을 내 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여래불교 조계종 종단과 함께 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무여
총무원장 현 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종회의장 혜 견 (성남시 보통정사)
사무총장 자 운 (서울 상도동 미타사)
감찰원장 법 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교육원장 중 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문화원장 향 지 (성남시 향지선원)
포교원장 만 경 (춘천시 온의동 보통정사)

- 입종서류 -
• 종단 가입 신청서 1부
• 사찰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 사진 3매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각 1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불기2556(2012)년 가입 종도는 입종비를 면제 하여 드립니다.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 산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 2282 - 5830 / 010-6710-8300(사무총장)

"경허, 막행막식 후회 삼수갑산 은둔"

윤창화 민족사 대표, 경허 입적 100주년 맞아 〈불교평론〉 '경허의 주색…' 기고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논문을 발표한 윤창화 대표

> "만공, 한암도 법은 따르되
> 행은 따르지 말것 강조
>
> 바르지 못한 계행
> 후대 지계 정신 훼손
> 경허 평가 냉정해야"



맥이 끊기다시피한 선풍을 다시 진작시킨 경허선사의 영정. 스님은 자신의 파계적 삶에 대해 '다생의 습기이며 본능'이었음을 고백했다.

"경허 선사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됨을 알았으며 그로인한 비난으로 삼수갑산에 은둔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경허 선사의 입적 100년을 맞은 새로운 평가가 눈길을 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8월 30일 발간예정인 〈불교평론〉 가을호의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논문에서 경허 선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변명하거나 후회한 내용들을 최초로 소개했다.

이 논문에서는 경허 선사 스스로 자신의 삶에 내린 평가가 실려 있다.

윤창화 대표는 '경허와 화엄사 강백 진응(震應) 스님과의 대화'를 예로 들며 경허 선사가 주색과 같은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다고 밝혔다.

대화에서 진응 스님은 "낮이면 술, 밤이면 여자를 부르라하는데 해인사 인파(印波)화상은 일평생에 색(色)을 멀리하며 설한풍에도 마루에서 가르쳤다하는데 어찌 화상은 그만한 것도 제어못하니 후생의 사범(師範)이 되기를 기약하겠습니까?"라고 물었으며 이에 경허 선사는 부끄러움을 토했다고 전한다. 경허 선사는 "'頓悟雖同佛, 多生習氣深, 風靜波尙湧, 理顯念猶侵(돈오는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의 습기는 깊어서, 바람은 고요해도 파도는 용솟음치고, 이치는 분명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침노한다)'는 선어록의 글을 들며 당신이 출가한 광주 청계사 풍토가 그러해 습기로 어쩔 수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윤창화 대표는 경허 선사가 자신의 주색에 대해 "대승은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않고 식색은 인간 본능이다"고 말한 부분을 들며 이러한 경허 선사의 입장이 후대에 지계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삼수갑산행은 비난에 대한 도피

윤창화 대표는 이러한 경허 선사의 행위로 인해 당시 불교계에서도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경허 선사는 말년에 결국 자신의 행위가 불교계 폐해를 끼침을 인식했다"며 경허 선사가 〈취은화상행장〉에서 '부처님 교화에도 폐단을 끼쳐 백가지 잘못을 함께 일으켜서 도덕(道德)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데, 문장으로 또 어떻게 구제할 수 있으리오? 그래서 문묵(文墨)을 놓은지 수년이 됐다'고 말한 부분을 예시로 들었다.

윤 대표는 "경허 선사의 삼수갑산행은 당시 승단과 세인들로부터 '악마(惡魔)', '마종(魔種)'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은둔을 선택했다"며 경허 선사의 삼수갑산행이 도피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후학들은 반면교사 삼아야

윤 대표는 "이를 보아온 만공, 한암과 같은 제자들은 경허 선사에 대해 '선(善)은 부처, 악은 호랑이보다 더했다(善惡過虎佛)', '법을 따르는 것은 좋으나 행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후학들에게 일렀다"며 "제자들이 그의 삶을 보고 오히려 철저히 계를 지키 결국 스승인 경허 선사를 높게 평가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끝으로 "경허 선사가 전통선을 다시 살린 '공'이 높지만 막행막식으로 계율 의식을 무너뜨리고 후대 수행자들로 하여금 주색을 답습하게 한 것은 일대 과오"라며 "현대 수행자들은 그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지계정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석가탑 해체 · 보수 전과정 투명창 공개

국립문화재연구소, 석가탑 철골덧집 시공해 일반인 관람 가능

9월 최초로 진행되는 불국사 석가탑의 해체보수 과정을 일반인들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시는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의 해체보수를 위해 9월 중 탑 주변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보 제21호인 석가탑은 1966년 도굴 미수사건으로 훼손돼 부분적으로 보수작업을 벌인 바 있으나, 전체적인 해체 보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가탑은 2010년 12월 정기 안전점검 시 북동쪽 상층 기단 갑석에서 균열이 확인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경주시와 협정을 체결하고 해체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수작업은 2014년 끝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은 석탑의 해체 조사와 보수에 활용될 철골덧집, 회랑 주변의 부재 보존처리 공간 등이다. 철골덧집은 동서 15m, 남북 12m, 높이 12m 규모이며, 내부에 석탑 부재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할 크레인을 설치한다.

특히 전체의 절반을 투명창으로 개방하고 관람 데크와 해체보수 내용을 설명한 패널을 설치해 일반 관람객도 석탑 해체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명창으로 된 석가탑 철골덧집 조감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체보수 작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불국사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석가탑 해체 보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영문 표기 'Bulguksa Temple'로

문화재 영문 기준안 9월 16일까지 공표 · 10월 중 최종 확정 예정

불국사는 영문으로 '불국사 템플'(Bulguksa Temple)이라 해야 할까? '불국 템플'(Bulguk Temple)이라 해야할까?

문화재청이 문화재 명칭에 대해 영문표기 기준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제각각이던 불교문화재의 영문표기 또한 정리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8월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기준안을 공표했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는 문화재청 의뢰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박희선 ㈜팬트랜스넷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좌장 아래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곽중철 한국통번역사협회 회장, 피터 바도로뮤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前협회장,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김지명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원장,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정희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팀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피터 바톨로뮤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前협회장은 "문화재 영문명을 이용할 주사용자는 외국인"이라며 "이들이 최대한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게끔 문화재 영문명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명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장도 "문화재 영문명의 국제적 소통이 중요한 만큼 해외문화재를 환수하거나 유실 문화재를 추적할 때 소통하기 위해 유네스코 등이 정한 문화재 명칭 국제 표준에도 부합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로마자 표기와 분류어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하기로 기준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그 자체가 고유명사인 불국사는 '불국사 템플'(Bulguksa Temple)로 표기되며 북한산은 '북한산 마운틴'(Bukhansan Mountain)으로 표기된다.

이날 공표된 기준안은 국어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음을 영문화한 로마자 표기와 단어 뜻을 풀어 영문화한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 것이다.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의 경우에는 의미역 표기가 진행된다.

불교문화재 중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산스크리트어 번역을 기반으로 가용하되 보편성이 떨어질 경우 의미역 번역어를 사용한다.

예로 금동보살입상은 기존에는 'Geumdongbosaripsang'으로 번역됐지만 바뀐 표기법에 따르면 'Standing Gilt-bronze Bodhisattva'가 적용된다.

또한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은 'Gamjieunnidaebanggwangbulhwaeomgyeong'에서 'Avatamsaka Sutra(the Flower Adornment Suter) in Silver on Indigo Paper' 등으로 번역된다.

문화재청은 9월 16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 등에 이번 공표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최종안이 확정되면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련 사이트, 전국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옥배 한국불교영어번역연구원장은 "우리 문화재를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한국문화 알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대표적인 불교문화재 영문 표기

부처 Buddha
관음보살 Avalikitesvara Bodhisattva
대웅전 Daeungjeon Hall
조사전 Josajeon Hall
탑 pagoda
석등 Stone Lantern
계단 Ordination Platform
초조본 The First Goryeo Edition
사천왕 Four Guardian Kings
조계사 Jogyesa Temple
봉정암 Bongjeongam Hermitage

해인사 불교문화재 대거 보물 지정

문화재청, 8월 23일 법보전 · 대적광전 불상 · 복장전적 등 4건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상 등 해인사 성보가 대거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8월 23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말~고려 초에 제작된 1미터가 넘는 불상으로 동글동글한 나발(螺髮),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말아 쥐는 비로자나불 수인 형태 등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양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장유물로는 다라니, 발원문, 사리를 비롯한 각종 상징적 의식물을 넣은 통인 후령통(喉鈴筒)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이 발견됐다.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腹藏典籍)'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 내에서 발견된 〈반야심경〉과 〈화엄경〉 진본(晋本) 권16~20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적광전 목조불좌상과 그 안에 있던 복장유물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은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13세기에 제작된 8건 37점의 중요 전적(典籍)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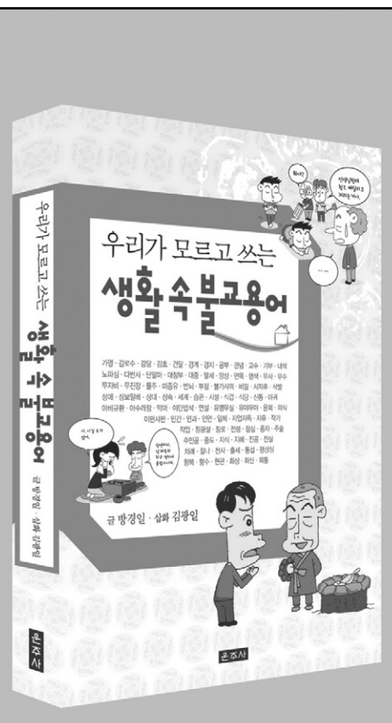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4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보물 제1772호),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보물 제1773호), '진실주집'(보물 제1775호), '영가진각대사증도가'(보물 제1776호), '장승법수'(보물 제703-2호) 등 5건의 불교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글/김광일 삽화/국판변형/256쪽/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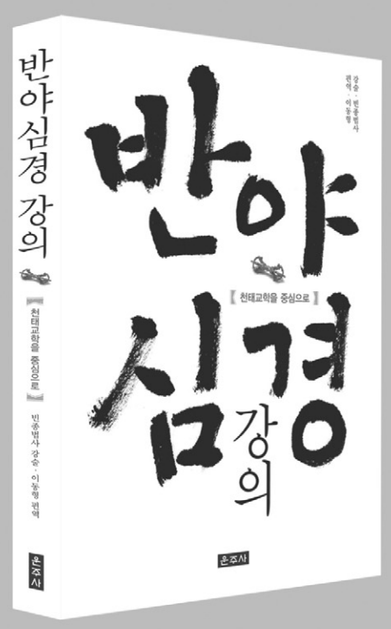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천태교학에서 바라본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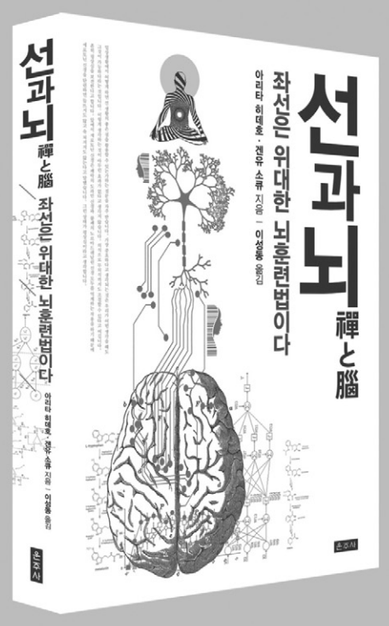
고도의 불교교학이자 실천체계를 겸한 천태교관에 입각하여 『반야심경』을 진공실상과 지관수행이라는 이론과 실천의 두 줄기로 정리한 명저!

반야심경 강의



빈종법사 강술/이동형 편저/신국판/354쪽/15,000원

선과뇌



아리타 히데호·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계승과 창조로 불사의 새 모델 제시

실상사 9월 2일 템플스테이관 건립 기공식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가 불사추진 10여년 만인 9월 2일 중창불사의 첫 사업으로 템플스테이관 기공식을 개최한다. 실상사는 지난 1996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불사 추진 계획을 세웠다. 결국 지난 7월 실상사 사적지 종합정비 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템플스테이관 건립에 대한 본격 불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실상사는 불사를 앞두고 다양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2008년 '도량 불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고민서 출발해 우리나라 도량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을 비롯해 흥선 스님, 재연 스님, 금강 스님, 故 정기용 성균관대 교수,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 안성수 홍익대 교수, 홍광표 동국대 교수 등과 지역면장 및 번영회장, 신도대표, 가톨릭 신부, 원불교 교무, 귀농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실상사 측은 1년에 네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불사란 무엇인가', '불사에서 담아야 하는 21세기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서부터 '작금에 이루어지는 불사는 종교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주제로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 정신, 생태, 환경, 지역공동체 모색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故 정기용 교수의 제안으로 2009년 '실상사 선언- 불사십조' 를 발표했다.

불사십조는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 ▷생명살림의 불사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

10여 년간 조사 및 불사추진 토론
학계 전문가 및 지역·종교인 단합
이 시대 불사 계획에 대해 고민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 ▷대중적 협동의 불사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지속가능한 생태적 불사 등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실상사는 불사에 거는 기대와 바람을 바탕으로 2010년 5차례에 걸친 워크샵을 거쳐 2011년 '가을 실상사 불사추진위원회' 를 발족하고 불사계획을 세웠다.

실상사 불사는 ▷대승정법불교 세계관인 인드라망 세계관을 실상사도량으로 형상화 ▷출가보살과 재가보살들이 인드라망 세계관대로 멋지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사부대중수행공동체 ▷절과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실상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고 눈뜸으로써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등 네 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2011년 10월 실상사 불사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사부대중이 손 맞잡고 불사 성공을 기원했다.

실상사 관계자는 "이번 불사는 단순히 전통을 복원하는 것 뿐 아니라 계승하되 창조하는 것이다"라며 "가람 배치는 불교정신과 함께 현대를 살아가는 출가보살, 재가보살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신행 공간 및 출·재가자 영역의 재구성, 경관과 숲,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등으로 표현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실상사는 일을 꾸려가는 능력도 돈을 모으는 능력도 없는 곳이지만 중창불사를 추진하는 것은 지리산과 실상사가 꿈꾸는 생명평화를 많은 이들도 함께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외 이웃에게 작은 보탬될 터"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유한진



광주 대표 불교신행단체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지난 7월 27일과 8월 17일, 이틀에 걸쳐 '2012 생명나눔 아카데미' 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조혈모세포 기증 ▷장기기증에 대해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의 중심에는 유한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32·사진〉이 있었다. 유 국장은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기쁨이다. 하지만 생명을 나누고,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이제 불교에 입문한지 1년 남짓 된 새내기이자, 청년 불교활동가이다. 하지만 그가 광주생명나눔에서 일을 맡은 후 치러낸 행사만도 수 십 가지에 이른다. 지난 2월 자비의 1만배 정진기도를 시작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장기기증 캠페인 10회, 총 8회의 자선음악회, 부처님오신날 나눔행사, 환우가족들과의 영화관람 나들이 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진행해 왔다.

"매년 1월에는 환자가족 중 완치한 가족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작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는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일명 골수)를 모집해 일치하는 환자가 생기고, 이식을 통해 완치가 되었을 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는다.

그가 몸 담고 있는 광주생명나눔은 지난 1998년 창립돼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시를 비롯한 민간단체보조 공모사업 27곳에 선정된 후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지원, 장기기증 및 혈소판 헌혈공여사업, 헌혈은행 등 복지사업을 전개해 왔다. 또한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와 캠페인, 생명나눔의 집을 개설해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사상을 전하는 전법단체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창립이후 5번째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광주생명나눔은 이제 도약과 좌절의 기로에 서있다. 윤 국장은 "1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불교단체의 열악한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광주생명나눔을 통해 불우이웃과 중증환자,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글로벌시대에 맞춰 해외의 어려운 환경 처한 사람들에게도 작은 보탬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지역의 불교계는 젊은 인재 양성이 화두다. 젊은 세대에서 불교 일을 맡아 하려는 사람도 없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기성 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진 국장은 광주불교계의 보물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관의 꿈을 안고 고시공부를 했다는 그이지만 이제 광주불교의 미래를 설계할 불교활동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힘쓰겠다"

전북불교시민연대 8월 22일 후원단 발족, 지역활동 강화


전북불교시민연대는 8월 22일 후원단을 발족하고 새로운 NGO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불교계 유일한 시민단체인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오종근)를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조직이 탄생했다. 전북불교시민연대는 8월 22일 전주관광호텔에서 후원단 발족식을 열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전북불교시민연대의 출범 후 활동을 담은 동영상 시청과 활동소개, 내빈소개, 임원 및 참석자 소개, 비젼 제시 순으로 진행됐으며, 후원단 발족식에는 80여 후원인사들이 동참했다.

곽인순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의 맑은 눈과 자원봉사단의 땀방울에서 지역불교의 희망과 미래를 보았다"며 "전북불교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중의 지혜를 모아 앞날을 개척해나가는 전북불교시민연대가 되자"고 당부했다.

유지원 공동대표는 "지속적인 생명평화운동의 전개와 자연음식을 통한 먹거리 운동, 어린이 청소년 지원사업, 협동조합 운동, 재가자 수행 및 법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NGO 운동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전북불교시민연대는 지역 유일의 불교시민운동 단체로 전북대 법당 설립 추진,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등 교계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출범한 후원단은 전북불교시민연대의 지역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연대사업과 불교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주여성 올바른 소비생활 정착 위한 교육강좌 개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게 올바른 소비생활을 안내하고 사기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내강좌가 열린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9월 1~2일 다문화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초청 소비자교육' 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대표를 초청해 최근 문제되는 다단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또한 근검절약하는 가정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천연비누 등을 만드는 강좌도 연다.

이주성 센터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소비생활은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는 여러 사기 사건들이 다문화가정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주여성들에게 사기 등 피해로부터 예방하기위한 교육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맛의 고장 전주서 사찰음식 맛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8월 29~30일 사찰음식 체험전

맛의 고장 전주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8월 29~30일 전주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관에서 '2012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체험전'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2 전북방문의 해' 와 '전주 음식창의도시' 선정을 맞아 음식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적문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 연구소장)의 '사찰음식 조리교실' 이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스님이 직접 만든 사찰음식 20가지가 함께 전시된다. 또 연잎밥 시식회, 다도체험 등 참가자들이 사찰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한 '식문화개선 캠페인' 을 진행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빈그릇 운동 등을 함께 전개하고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법진 스님은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전주지역에서 이번 사찰음식 홍보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적 규모의 음식관련 행사참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한국의 우수한 식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전주 발효과학엑스포에 사찰음식이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전주 비빔밥 축제에 사찰음식 특별부스가 운영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아미타 만다라, 영월 법흥사에 조성된다

남북 평화통일,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국내 5대 적멸보궁 중 한곳인 영월 법흥사가 세계일화를 염원코자 티베트 아미타 만다라를 조성한다.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아미타 만다라 불사를 추진한다. 이번 불사는 자장율사의 법흥사 창건정신을 계승해 남북평화통일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발원하고자 마련됐다.

법흥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국가 통일과 융성, 백성 평안을 위해 '흥령사'라는 명칭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이번에 불사가 진행되는 티베트 만다라와 인도 전통회화는 우주와 우주의 조화, 질서를 상징한다.

법흥사는 9월 4일까지 티베트 모래 아미타 만다라 불사를 회향하고 오방불 봉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법회는 티베트 스님 9명의 집전 하에 만다라전에서 티베트 전통의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만다라는 108개 병으로 나눠 회향해 불자들과 나눌 계획이다.

법흥사는 국내 유일의 만다라 전각도 보유하고 있다. 2003년 티베트 스님들이 법흥사에서 만다라 법회를 하며 기념으로 지은 전각이다. 이후 2007년 티베트 법회를 여는 등 정기적으로 법회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만다라는 아미타 만다라로 국내에서는 처음 조성되며, 조성 전 과정을 불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법흥사는 2018년까지 경내에 만다라를 전시하며, 9월 1일에는 만다라 시연과 함께 티베트 영산재도 봉행한다.


만다라를 만드는 티베트 스님의 모습. 불법세계를 상징하는 만다라는 티베트에서는 제작 자체가 수행으로 평가받는다.

9월 1일 만다라 제작 시연 · 영산재 봉행

9월 4일 법흥사 만다라전에 봉안

2004년 이후 8년 만, 아미타 만다라 최초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만다라는 본래 우주와 우주의 조화, 질서를 회화로 상징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인도와 티베트의 전통불교회화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아미타 만다라를 조성하는 만큼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033)374-9177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미타 만다라는?

만다라는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대표한다. 만다라는 산스크리트 어로 Manda(본질)라는 어간과 La(소유, 성취)라는 접미사로 이루어진 말로서 우주의 본질 또는 생명의 진수를 뜻한다.

만다라는 원래 대지위에 단을 쌓고 신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하여 왕궁모형의 성역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중 아미타 만다라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며 아미타불 주위의 관음, 미륵, 허공장, 지장의 8보살을 배치해 중추부를 구성한다. 〈8대보살만다라경〉에 근거한 것으로 이 구품(九品)의 아미타를 중심으로 제2원, 제3원에 많은 불보상을 배치한다.

독일 대학생들, 한국불교 "Wunderbar!(원더풀)"

독일의 대학생들이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인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에서 한국불교문화와 전통을 체험했다.

독일 '본대학'의 동양 · 아시아 학부에 재학 중인 26명의 학생들은 지난 8월 15~16일 이틀 동안 청도 운문사에서 템플스테이에 동참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법고의식과 저녁예불등 불교의식 등이 진행됐다. 또 산내 암자인 사리암 · 문수선원 참배 등이 진행됐다.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카림(35) 씨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자연 속 사찰에서 생활하며 긴장도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한국의 참 멋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에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과 안동 선비마을 등 영남지역 불교와 유교문화를 돌아봤다.



독일 학생들이 운문사 사리암 참배 후 밝게 웃고 있다.

윤선영 본대학 세종학당장 교수는 "독일 '본대학'은 2011년부터 '한국문화여행'이라는 주제로 한국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국어 전공을 선택하고 독일 타대학 학생들도 참가를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비슬산 대견사지 발굴 개토제 봉행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된 비슬산 대견사지 복원이 광복절을 맞아 본격화 됐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8월 15일 비슬산 대견사지 현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개토제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해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 관련부서장 등 120명이 참석했다.

대구시 달성군과 동화사는 폐사 당시 사찰원형을 복원한다는 방침으로 대웅전, 요사채, 종무소, 산신각을 10월 착공해 2013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대견사지 발굴 조사는 계림 문화재연구원이 맡아 9월 말까지 진행된다.

비슬산 정상에 위치한 대견사지는 신라 고찰로 대한제국 당시 국가 비호 사찰로 지정되자 일제가 강제로 폐사시켰다. 현재 3층 석탑과 마애선각불상, 동굴대좌 등만이 남아있다.

한편, 동화사는 법화경을 주제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법화산림법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동화사는 8월 22일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을 법사로 첫 법회를 열고 8월 31일까지 10명의 스님을 초청해 법화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또 법화경 7만자를 돌에 새긴 국당 조성주 선생의 전각 법화경 '불광' 전도 9월 16일까지 동화사 선 체험관에서 열린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범어사, 동명대에 장학금 1억원 지원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8월 17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설동근 동명대 총장에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우수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학습의욕 고취 등에 사용된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지난 2009년 범어사와 동명대가 체결한 불교문화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협약에 따른 것이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동명대 불교학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샘을 제대로 관라히지 않으면 산속 깊은 사찰에서도 물을 사 마셔야 할 것이다. 물관리를 위해 물그릇 사용에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경기도 ㅂ사찰

물그릇이 깨끗해야 물맛도 좋다

수년전만 해도 오래된 절에 가면 어김없이 좋은 샘이 있어 절마다 독특한 물맛을 볼 수 있었다. 샘물은 부처님께 올리는 청정수로 쓰였고, 스님들이 차를 우려내는 찻물로 쓰였으며, 음식물을 장만하기 위한 식수로 쓰였다.

절터가 좋다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하기 바람직하다는 뜻이니, 물이 좋고 풍부하지 않은 곳은 애당초 좋은 터가 될 수 없었다. 풍수지리서를 보면, 좋은 물과 좋지 않은 물이 있다 하지만 산사에서 만나는 물은 절에 사는 모든 이들과 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샘물이 좋은 절은 이름도 특이하다. 옥천사, 정수사, 감로사, 약천사 등 절 이름만 들어도 그 절의 물맛이나 물의 성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찰의 샘물이 아직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절의 스님들이나 신도들의 지극한 관리덕분이며, 자연을 해치지 않은 공덕 때문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샘물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많고, 샘이 있어도 물이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샘물을 제대로 관리하여 청정한 물맛을 유지하는 절을 보면 하나같이 샘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샘 주변까지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샘은 물론 샘 주변까지도 하루에 몇 번씩 청소하여 청결함을 유지한다. 심지어는 샘을 지키는 당번을 정하여 함부로 샘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도 많다.

절에 가서 그 샘물이 청정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샘물을 마시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정돈하고, 관리하는 지를 보는 것이다. 시커먼 때가 앉은 플라스틱 바가지, 아무렇게나 던져 놓아 무질서한 플라스틱 바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그 샘물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일본사찰의 샘이나 수조에서 사용하는 물그릇들은 보통 스테인레스나 양은을 재료로 만든 것이거나 조롱박을 정성스럽게 말려서 만든 것, 혹은 대나무 통으로 만든 것들이다. 이 그릇으로 물 한 잔 받아 마시고 싶은 것은 재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항상 정갈하게 닦고 깔끔하게 관리하기 때문인 것이다.

물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하겠는가. 그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얼마가지 않아 강원도 깊은 절에서도 알프스에서 취수하여 플라스틱 통에 담은 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찰에서도 깨끗한 물을 지켜내는 캠페인을 벌일 때가 왔다. 그것은 더 이상 미뤄야할 일이 아닌 시급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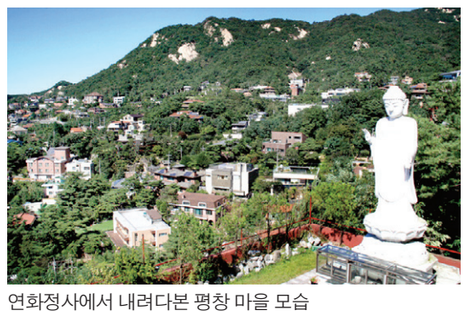
세검정 옥천암의 마애불상 모습. 흥선대원군 부인 민씨는 이곳에서 아들의 복을 빌고, 태조 이성계는 도읍을 정하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다.



평창 마을길을 등산객들이 걷고 있다.



계곡과 미륵바위가 유명한 해원사



연화정사에서 내려다본 평창 마을 모습

"삼라만상 그 무엇을 차별하랴" 절에 오르니…

⑨ 평창 마을길 그리고 옥천암과 사찰들

북한산 자락엔 많은 사찰들이 곳곳에 있어 몸과 마음을 쉬면서 걷는 즐거움이 있다. 북한산 둘레길 6구간 '평창 마을길'을 걸었다.

이중 부촌으로 알려진 평창동에는 특유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있다. 흔히 평창동은 '부촌'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서울에서 보기 드문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산자락에 기댄 저택들을 조금만 벗어나면 등산객들과 카페나 미술관 등을 만날 수 있다. 북한산 자락 경관 좋은 곳에 저택들의 모습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 준다. 높은 담장,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러면서도 경관 좋은 집들의 모습은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다.

'평창마을길'은 사찰과 산, 그리고 높다란 담벼락으로 대변되는 평창동 가옥들과 군데군데 예쁜 카페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람냄새가 나는 길이다.

오전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는 8월 21일. 평창마을길에는 우비를 입은 채 빗속을 걷는 이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평창마을길은 형제봉입구에서 시작하여 탕춘대성 앞문까지의 구간이다. 보통은 5구간 명상길과 이어져 있어 이어 걷기를 하지만 6구간 평창마을길만을 따로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둘레길의 시작은 길음역 인근인 형제봉입구에서부터다. 15분여를 걸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표지판과 함께 본격적인 둘레길이 시작된다. 총 5Km의 구간으로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산자락에는 으레 절집과 암자가 있게 마련이다. 평창동 마을 사이로 오르면 집들이 끝나는 지점에 산자락을 따라 대여섯 곳의 작은 절들이 있다.

5분여를 걸으면 연화정사가 보인다. 본원불교 대성종 사찰인 연화정사에서는 큰 돌부처님이 평창동 일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연화정사를 시작으로 둘레길을 따라 해원사 · 보현산신각 · 법정사 · 천제단 터 · 여산신각 · 혜광사 · 청련사 · 전심사 등 절과 절터를 만날 수 있다.

연화정사는 가기 쉽고 조망이 좋다. 북한산 보현봉에서 뻗어 내리는 사자능선과 그 안에 수북이 들어앉은 평창동 집들이 한눈에 보인다. 날이 좋으면 멀리 인왕산까지 보인다. 절 앞마당엔 멀리서도 눈에 띄는 커다란 돌부처님이 서 있다. 해가 지기 전 길이 멀어 바쁜 마음을 잠시 쉬게 한다. 불상 앞에서서 평창동 일대를 굽어본다. 올라올 때 그렇게 거대해 보이던 고급 저택들이 작게 내려앉아 있다. 곁엔 이런 말이 쓰여 있다.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인데 그 무엇을 차별하랴.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죄의식, 불안, 공포 속에 있더라도 본래는 진리의 부처님 몸 아니던가. 비롯됨도 없고 끝도 또한 없도다. 가도 가도 한이 없는 그 생명에서 그 무엇이 새로 있으랴. 태어남도 죽음도 그대로 나로다.'

연화정사를 나와 평창공원 지킴터까지 걷는다. 등산로처럼 가파르지만 빨간 지붕 집들과 마치 숲속에 지은 새집처럼 아기자기한 집들이 빼곡히 펼쳐진다. 나무가 우거지고 위로는 형제봉이 올려다 보인다.

'멋' 느낄 수 있는 보기 드문 자연경관
옥천암 고려 마애불상 눈길 끌어

젊은 여자 몇 명이 한 저택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불광동에서 왔다는 김지혜 씨(24)는 신나 보였다. "언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어요. '지붕뚫고하이킥'에서의 세경이가 막 뛰어나올 것 같네요. 이제 독고진 '최고의 사랑' 집 가보려고요"

사실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만 평창마을길은 단점이 많은 길이기도 하다. 흙길이 아닌 아스팔트길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기 때문이다. 또 높은 담벼락에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낄 수 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 사이로 살포시 비추는 북한산의 거대한 바위는 이런 단점을 잊게 한다. 비가 내린 덕분에 물이 바위결 사이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잠시 계곡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앞으로 마을버스가 지나간다. '이런 경관에 마을버스라니' 와 '이런 경관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

평창공원 지킴터는 북한산으로 오르는 여러 개의 등산로 입구 중 하나다.

평창동에는 특히 유명한 소설가와 화가가 많이 사는데 그래서 그런지 건물들이 개성이 있고 갤러리 같은 집들이 연이어 나타난다. 사찰도 이와 같아 전통사찰은 없지만 작은 사찰들이 제각각의 멋을 지니고 사람들의 발길을 맞이한다.

길을 재촉해 걸으니 양쪽으로 즐비한 저택들 사이로 자그마한 사찰 해원사가 보인다. 안에서 신도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비구니 스님이 있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잠시 들어섰다.

해원사는 길가에 있지만 절이라기보다 자그마한 암자다. 바로 옆에는 물소리 나는 계곡이 흐르며 미륵 바위와 아담하고 정갈하게 꾸며 놓은 마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지 적명 스님은 "번다한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마음에 들어 할 만하다"며 차를 권했다.

해원사에서 나와 다시 길을 재촉해 세검정에 위치한 옥천암에 당도했다. 관음기도 사찰인 옥천암은 평창마을길에서 2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옥천암은 언제 누가 창건했는지 알 수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1868년 고종 5년 명성황후 때 정관스님이 관음전을 건립하였고 또한 고종의 어머니인 흥선대원군 부인 민씨가 아들의 복을 빌고,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때 마애석불에 기원을 하였다고 전해져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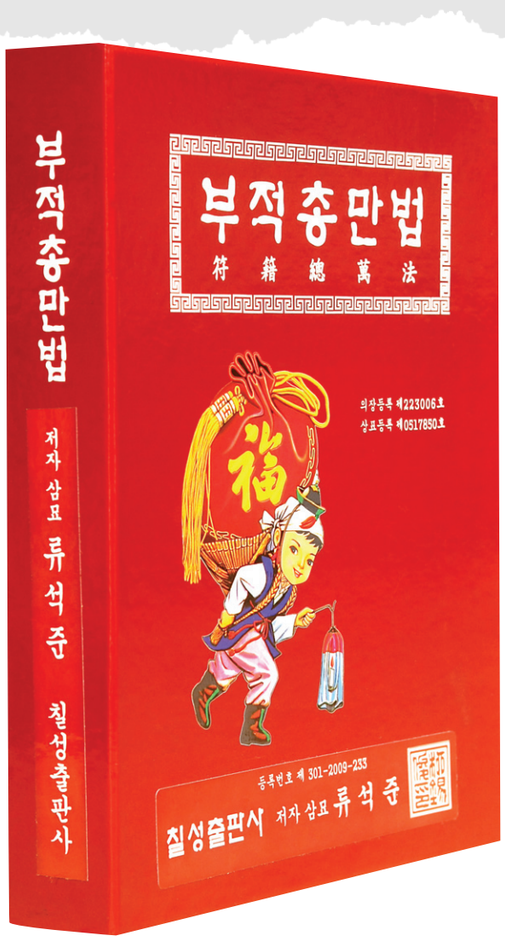
고려 12~13세기 마애불상 양식을 대표한다는 옥천암 마애불상은 홍제천 뒤로 제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보일 듯, 말 듯 바위 위에 은은하게 새겨진 보통 마애불들과 달리 얼굴의 이목구비, 옷자락이 매우 선명하며 흰옷을 입어 더욱 눈에 띄었다.

옥천암으로 가려면 작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짧은 다리지만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 세상'과 절이 있는 '저 세상'이 분리된 듯하다. 옥천암에 아쉬움을 남기고 다시 다리를 건너 둘레길 산책을 마무리했다. 비그친 하늘에서 어느새 기분좋은 햇빛이 쏟아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북한산 둘레길 6구간 평창마을 길〉



부적총만법
符 籍 總 萬 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정 가 : 6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유오상)
농 협 : 063-12-129185
우 체 국 : 013102-02-480071

칠성출판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448-4 / 전화 02)2233-2050. 010-8808-1797



생태사회와 불교

리우+20, 생태사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생활과 소비 변화 환경 해결 지름길

리우+20 선언문–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이하 리우)에서는 120여개국 정상들과 5만여명에 달하는 민간단체들이 모인 거대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름하여 '리우+20 (Rio plus 20)'이다. 1992년 리우서 있었던 유엔환경회의 (통칭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된지 20년이 지나, 당시 결정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한 뒤, 다시 새 목표설정과 의제를 논의하며 실질적인 환경위기의 해결에 모든 국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려는 목적에서 열렸다.

유엔이 주도한 이 회의는 꼭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공동의장국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자국 녹색성장의 홍보에만 주력하느라, 정작 글로벌 위기극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리더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홀로 '녹색성장외교'를 추진하면서 국제시민사회의 냉소와 비판 대상이 됐다. 녹색ODA 증액에 대해 야심차게 강조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아무튼 이 3일간 회의에서 합의형성에는 실패하고 단지 '합의를 미루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라는 방대한 최종선언문을 발표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1992년 6월 지구환경회의 열려

환경문제와 관련해 1992년은 대단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 해이다. 브라질 리우에서 6월 3일 부터 14일까지 12일간 세계각국 정상들과 민간단체 활동가 약 7만 여명이 모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지구환경위기 해결을 위해 인류역사상 최대 정상회담이자 초대형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곳에서는 정부대표중심의 유엔환경회의(UNCED:일명 Earth Summit)와 각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가 함께 열렸다. 유엔환경회의는 리우선언 · 의제 21(Agenda 21) · 기후변화협약 · 생물다양성보존협약 · 산림원칙 등을 채택했고, 지구환경회의는 지구헌장 · 세계민간단체협약 등을 택했다.

여기서 '의제21(Agenda 21)'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국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대규모 지구혁명프로젝트라고 할 정도이다. 의제란 회의주제, 해결해야할 주제, 과제라는 말이다. 따라서 각국가마다 의제를 발표하고, 그에 맞춰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별 의제를 발표하되, 이는 정부, 여성, 청소년, 원주민,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9개의 중심이해그룹이 반드시 모여 대등한 위치에서 격론을 통해 의제를 합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제의 실행기간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그룹별 행동을 나눠 역할분담을 하는 행동약속 이행계획이다. 이것을 2~3년에 한 번씩 실행평가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목표를 조정해 계속 실행하는 것이다. 이 의제21작업은 정부만이 아니라 단체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좋은 방식이어서 조계종도 오랜시간의 토론을 통해 2006년에 불교의제21을 발표한 적이 있다.

리우 +20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들

리우+20의 주 핵심의제는, 지금과 같은 자원수탈적인 회색경제(Grey Economy)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로 그 중심이 재편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00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리우+20 '우리가…' 선언문 발표
1992년 환경회의, '의제21' 등 채택
'의제 21', 환경단체 변화 도모

을 위해 국제적 행동선언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enium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발 전 목 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을 결의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경제와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대표한 생산중심의 GDP, GNP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급됐다. 그래서 녹색 GNP나 부탄 국왕이 주창한 GNH개념 등, 진보를 측정하는 더 많은 수단이 의미있게 수용돼야 함을 공식 언급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실행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채택키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생산과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소비양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또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환경문제 해결에는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지역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맹아로서 사회적 포용성과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도 중요하다.

리우+20에 대한 비판 쏟아져

과거 10년 전인 2002년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서 열린 '리우+10'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란 기치로 10년을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거기서 언급됐던 문제인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지구라는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 지구수용능력의 한계, 자원 희소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 위기에 대한 절박함 없이 체계적인 진단과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었다.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태도를 중심으로한 경제주의만이 강조됐다는 평가이다.

녹색경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녹색을 표방하며 성장을 계속하고 싶다'는 '녹색성장' 론자들의 논의와 구체적인 변별 없이 결국 '경제-사회-환경'을 고루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경제로의 편향'을 의미한다.





지난 6월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20' 회의〈사진 위〉와 같은 시기 열린 '리우+20' 민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아래〉. '리우+20' 정상회의는 녹색경제의 전환을 논의했지만, 민간위원회는 이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했다.

자칫 녹색페인트로 위장한 개발주의자(Green Wash) 입장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9개 주요그룹 입장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는 리우정신을 무시하고 국가중심의 파티였다고 평가 하고 있다. 결국 20년전 리우선언 정신을 계승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상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뿐아니라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빌어 쓰고 있는 생태부채 (Ecological Debt),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인류최대의 핵사고인 후쿠시마원전 문제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걸로 볼 때 도저히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없는 최대의 이유라는 것이다.

4대강 홍보에만 열심인 한국정부

이번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공동의장국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세 장관을 대동해 참여했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총회연설에서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4대강사업과 자전거길, 녹색일자리 75만개창출 성공사례를 소개했고, 녹색성장이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목표를 구현한 포용적 실천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출범시키고, 녹색 ODA를 2020년까지 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밖에서 한국 NGO들은 4대강 개발의 파괴성과 반환경성,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치로 문제의식을 느껴온 서울시장, 광주시장, 수원시장 등 40여 지자체와 약 30여 한국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면서 몇가지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유엔(UN)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유엔이 국가 이익을 대변하고, 자본을 무기로 한 초국적 기업들의 영향하에 움직인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초국적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

전 지구적 위기 앞두고 거버넌스
모든 단계서 포괄적 참여 보장해야
환경단체 정책 역량 강화 지원필요

서 UN에 상하원을 두자는 말부터, 집행부와 대등하게 지구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UN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지구적 위기를 앞두고 모두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 말하고 있다. 협치(協治)라고 번역한다. 통치(統治)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이라면 협치(協治)는 정책결정의 초기부터 관련 사회단체들과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대등하게 협의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 실행도 함께 책임 지는 것이다. MB정부 들어서 그 많던 거버넌스는 거의 사라졌다. 정치적으론 퇴행을 겪고 있다. 앞으로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또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부에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총체적인 과제 해결에는 총체적 에너지의 결집이 필요하다. 환경위기를 위해서는 곧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조계종의 자정과 개혁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구단구궁법

“부처님 사자후를 그대로 듣게 해줘야 합니다”

③ 두타제일 마하가섭

〈하〉결집

부처님, ‘곽씨쌍부’로 교단 미래 부촉
흔들리는 교단 보고 경전 결집 발원
왕사성 칠엽굴서 500아라한 제1 결집
“세세생생 이경장 지키자” 합송



그림 · 김홍인

부처님께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평소 부처님에게 수행자로서 인정받았던 가섭 존자는 자연스럽게 교단을 이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가섭 존자가 교단을 이끌 인물인 것을 암시했었다. 가섭 존자는 왕사성에서 500아라한과 제1결집을 주도해 율장을 정하고, 불법이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

부처님의 열반

인도 전역을 유행하며 교단을 정화하던 어느 날이었다. 가섭 존자는 뒤늦게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의 열반 소식을 듣게 됐다. 한동안 슬픔에 잠겼던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안위가 걱정됐다. 가섭 존자는 그 소식을 가져온 이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부처님께선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수행 정진하고 계십니다.”

부처님도 가섭 존자와 같이 두타행을 펼치고 계셨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가섭 존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인도 땅은 넓었다. 두 달은 걸려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다. 가섭 존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길을 재촉했다.

부처님이 계신다는 마가다국 북쪽에 당도했을 때였다.

“스님들 천관사에 가시는 모양인데 늦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한 행인이 느닷없이 가섭 존자를 보고 이런 말을 전했다.

“늦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 다비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부처님 다비식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부처님께서 이래 전에 열반에 드셨고 오늘 천관사에서 다비식이 있었습니다.”

가섭 존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부처님은 마가다국 파바 마을에서 대장장이 아들 춘다가 올린 공양을 받고 열반에 드신 것이다. 함께가던 가섭의 제자들도 울음을 터뜨렸다. 다시 발길을 재촉한 가섭 존자가 천관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달빛만이 다비식장을 비추고 있었다.

“아...다비식마저 보지 못하다니”

가섭 존자가 탄식을 터뜨리고 있을 때 아난존자가 다가왔다.

“가섭 존자님! 못 오시는가 했습니다.”

“다비식은 끝났소?”

“아닙니다. 장작에 불이 붙지 않아 다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마침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관으로 다가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부처님의 발이 마치 가섭 존자를 기다렸다는 듯이 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놀란 가섭 존자는 다시 보았지만 환영이 아니었다. 〈대반열반경〉에서 전하는 곽씨쌍부(槨示雙趺) 일화다.

가섭 존자는 이를 보고 더욱 슬퍼하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오른쪽으로 일곱 번 돌고, 눈물을 글썽이며 장궤 합장하고 게송으로 슬프게 탄식했다.

“괴롭고 괴롭습니다. 대성인 존자시여! 저는 지금 가슴을 도려내는 듯 고통스럽습니다. 세존이시여, 멸도하심이 어찌하여 이렇게 빠르십니까? 대비하신데도 저를 잠깐 기다리지 못하셨습니까?”

가섭 존자가 목메어 슬피 울며 이 게송을 끝내자, 부처님께서 큰 자비로 두 발을 천 개의 살이 달린 바퀴 모양으로 관 밖으로 발을 내보였다.

이때 가섭 존자와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의 발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예배했다. 가섭 존자는 그 현실 앞에서 놀라움과 함께 부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한 가르침을 떠올렸다. 바로 수행으로 살라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머리가 아닌 행동하는 실천을 강조했다. 부처님 자신부터 사람들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스스로 수행의 길을 걸었다. 열반마저 그 길 위에서 이뤄졌다. 그런 삶에서 발은 ‘구도’의 상징이었다.

부처님이 죽림촌(竹林村)에 안거할 때 부처님은 자신의 입적 후 교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보인 발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입적 후 어떻게 교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면서 수행이 가장 올곧은 가섭 존자에게 불법의 전승을 당부한 것이었다. 장작더미에서 저절로 불길이 일었다. 아난존자가 가섭 존자 곁으로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다.

“마치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교단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열반이란 큰 파도가 물러간 후 고요한 숲속에서 여느때 처럼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한 계절이 훌쩍 지나고, 장마철이 다가오자 문제가 생겼다.

부처님께서 열반 후 교단 내 아라한들이 하나 둘씩 열반하는 것이었다. 상당수의 아라한들이 열반해 버렸거나 열반을 앞두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였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가섭 존자는 숲 속의 나무사이를 걷다가 우연히 다른 비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반열반경〉에는 이 일화가 전해진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부처님 열반으로 인한 교단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무엇 그리 걱정스럽소? 사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행동, 이를테면, 숲 속에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것까지도 간섭하시었소.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아닌데도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듯 하셨소. 사람이 먹다가 남은 것은 똥으로 나오게 마련이고, 몸 밖으로 나온 것은 숲 속 어딘가에 버려지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 하나에까지 일일이 규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었소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세존의 열반으로 이제 우리가 오히려 더 개선하고 개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 아니겠소?”

이 말을 들은 가섭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가섭은 결심한다.

‘세존의 행적과 가르침을 하나로 담아야겠다. 어찌 법을 언어로 담을까만은 그렇게라도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소의 그림을 여우로 그려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한 그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무려 45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이들부터 각자의 근기에 맞게 해석하고 이해한 가르침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가섭존자는 생각했다.

‘세존의 가르침은 이러저러하면 깨달을 것이다’가 아닌 ‘깨달은 이는 이러저러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구나’가 되야 한다. 가섭존자는 아라한들로 구성된 결집을 생각했다.’

가섭존자는 교단 내에 아라한의 숫자가 열반으로 더 줄어 들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개월 뒤 왕사성 칠엽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이는데 이 것이 바로 제1결집이다.

최초의 결집

이 1차 결집은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 다문제일(多聞第一) 이라 불렸던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우팔리존자가 율장을 외우고 500 아라한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라한으로 결집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1차 결집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법을 엮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가섭존자는 칠엽굴에서 아라한들에게 말했다.

“500의 아라한이신 비구들이여 부처님의 열반으로 교단은 어미를 잃은 사슴처럼 쓸쓸하고 별을 잃은 밤배처럼 두려웠지만 이제 결속의 힘으로 가르침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후세의 모든 교학들에게 부처님의 사자후를 그대로 듣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섭존자의 짧지만 분명한 의지의 표현을 담은 처음 말이 나가자 500 아라한들은 한결 같은 음성으로 합장하며 합송했다.

“우리들은 세세생생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이 경장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가섭존자가 입을 열었다.

“아난존자여, 대중들이 증명하여줄 부처님의 말씀을 풀어라. 부처님은 처음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어떤 법을 말씀 하셨는가?”

이에 아난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지긋이 감고 하나 하나의 장면들을 추억 한 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때 세존께서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들을 위하여 초전법륜을 굴리시니……”

이러한 아난존자의 말에 500 아라한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르침을 확인했다.

이렇게 진행된 1차 결집으로 부처님의 법이 각 개인이 지니고 외워 전달하여 발생하는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각지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었다. 이는 불교의 2500 여 년 역사에 있어 가장 큰 불사였다. 그 때에 합송하여 결집한 경과율이 4차에 걸친 지속적인 결집을 통해 성문화됐다. 그것이 다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오게 된 것이다.

경전이 결집됨으로써 가섭 존자의 원력은 이루어졌다. 〈아함경〉에서는 가섭 존자가 아난존자에게 말한 내용이 전해진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내게 지혜안을 여는 이 법문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하셨네. 그대는 신중하게 이 법문을 지켜 결코 법맥이 끊기지 않게 해주게”

두타행으로 참수행자로 살며 그 법이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가섭존자. 가섭존자의 원력은 현재도 수많은 경전을 통해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since1973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절 258㎜×265㎜ 200부 이상@ 1,000원

3천부 이상@ 800원



호수	품 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호수	품 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1호	산사로 가는 길	6절 (6종) 1,900원	1,3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500원 ※ 3000부 주문시 1,100원	21호	염화시중의 미소	12절 (16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2호	소소달마			22호	화선자		
3호	연향이 머무는 곳			23호	마음이 머무는 곳	미니 (6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4호	천진미소			24호	연꽃향기		
5호	행복한 휴식			25호	정심		
6호	향기가 머무는 곳			26호	천진불		
7호	가람의 향기	12절 (16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200원 ※ 3000부 주문시 800원	27호	행운의 달마도		
8호	관음도			28호	향기로운 꽃 ★일반		
9호	맑은향기			29호	나를 다스리는 말	수첩 (5종) 800원	6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800원
10호	물소리 바람소리			30호	선		
11호	미소달마			31호	우리도 연꽃같이		
12호	반야동자			32호	천진동자		
13호	반야심경			33호	꽃이 있는 풍경★일반		
14호	부모은중경			34호	보리심 [한지]	2,400원	1,500원(200부 이상)
15호	선의 세계			35호	마음에 핀 연꽃 [비닐]	차걸이 (4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16호	세계의 명찰			36호	마음에 핀 연꽃 [홀더]		
17호	아름다운 꽃			37호	반야심 [비닐]		
18호	여래의 미소			38호	반야심 [홀더]		
19호	여유			39호	행복한 하루[탁상]	2,400원	1,500원(200부 이상)
20호	연꽃이 있는 풍경			40호	행복으로 가는 길 [법보시선물용]	3,000원	2,500원(100부 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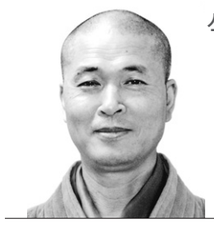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근본으로 돌아가 뜻을 얻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대답하면 곧바로 어긋나."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의심하는 마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대답하면 곧바로 어긋나."

問 如何是歸根得旨 師云 答你即乖 問 如何是疑心 師云 答你即乖也

근본은 삼라만상의 근원을 말한다. 우주 만물이 나온 곳, 사람이 나온 곳, 만가지 법칙이 나온 곳이 근원이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 뜻을 얻을 것인가? 조주 선사는 대답하면 곧 어그러진다고 말했다.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근본인데 어찌 말로 표현할 것인가. 그곳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은 곧 어그러트리고 만다는 것이다.

의심하는 마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 주면 그 설명으로 인하여 마음의 진실과는 더욱 멀어진다. 그래서 대답하면 어긋난다고 말한 것이다.

좌주(座主:강사)가 물었다.
"출가한 사람도 속가가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출가는 좌주 당신의 일이오.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는 것은 노승이 관여할 바가 아니오."
좌주가 말했다.
"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곧 출가요."

問 出家底人 還作俗否 師云 出家即是座主 出與不出老僧不管 云爲什麽不管 師云 與麽即出家也

출가란 탐진치 삼독의 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출가하고도 세속의 지위나 명예, 그리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출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속한 속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출가해서 해탈을 구하는 것도 또한 욕망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직 출가하지 못한 것이다. 출가는 깨닫는 것이다. 나 자신이 완벽한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다.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행을 닦는 것이다. 아상을 버리고 인상을 버리고 중생상을 버리고 수자상을 버리고 조금씩 부처의 행을 수행해서 어느 날 완벽한 붓다의 행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할 것이 있다. 부처의 행을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명제는 누구보다 깨달은 자가 더 잘 안다. 부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길을 선택한다. 그 중에 하나는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부처가 가는 길이 혹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섣부르게 이런저런 평을 할 문제가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스승도 제자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루(無漏)의 지성은 사람마다 본래 구족(具足)하고 있다. 또 이르되 이것은 스승도 제자도 없다."

問 無師弟子時如何 師云 無漏智性本自具足 又云 此是無師弟子

무루지성(無漏智性)은 샘이 없는 지성이라는 뜻이다. 중생의 지혜는 양쪽 중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다. 이것을 샌다[有漏]고 말한다. 부처의 지혜는 양쪽을 떠난 지혜이기 때문에 흠이 없다. 이것을 새지 않는 지혜라고 말한다. 이 지성은 사람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스승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는 껍데기 관계이다. 진정한 관계는 부처와 부처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 문중에서는 스승도 제자도 없는 것이 정상이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인정해줄 스승은 필요하다. 스승은 경험자다. 평생을 바쳐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가장 바르고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바친다. 이것은 제자가 할 일이다. 스승은 부처가 태어남을 감사하게 생각할 뿐 어떠한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28〉

사법인–③ 제법무아

'변하지 않는 나 없다' … 大我가 無我

제법무아(諸法無我)는 '모든 법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모든 법'이란 생멸변화하는 일체의 현상법을 말한다. 불교에서 무아란 아(我)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무아의 아는 인도 사상 속에서 나고 멸하며 변화하는 현상이 없는 영원불멸의 실체(實體)를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실체는 경험되지도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는 대상이다.

이 제법무아는 다른 학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불교만의 독자적인 사상이다. 기존의 인도철학 전통에서 아(我)란 불생불멸의 영원한 존재인 아뜨만(ātman)을 가리킨다. 이 아뜨만은 우주적 실체인 브라흐만(brahman)에 대비되는 개인적 실체를 의미한다. 또 아뜨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상과 관계가 없고 수행이나 해탈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렇다고 무아가 완전히 없는 허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이론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론적인 의미의 무아는 무자성(無自性; niḥsvabhāva)을 말한다. 즉 고정된 본성이나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 무자성에는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법에는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는[不生不滅]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일어나고 멸하며 변화해 가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다른 것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의미의 무아는 무소득(無所得;aprāpti)과 무가애(無罣碍; anāvaraṇa)를 말한다.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소유물이 변하지 않고 항상 있길 바라며 그것에 대해 집착한다. 무소득은 바로 이와 같은 아집(我執)과 아소집(我所執)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무소득에 기반 해서 장애나 막힘이 없는 자유자재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무가애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론적인 무아는 개인 혹은 세상의 존재방식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이고 실천적인 무아는 이러한 이론적인 무아에 대한 자각에 기반 해서 더욱 완성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이론적인 무아는 실천적인 무아를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고 실천적인 무아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대승불교에서는 무아를 인무아(人無我)와 법무아(法無我)의 두 종류로 설명한다. 먼저 인무아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자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나'라는 것은 색(色) 등의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개념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법무아란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변의 진리로서의 법은 없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오위칠십오법(五位七十五法)의 법, 오온의 법 등은 불교 초기 아비달마불교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 의하면 그 법체가 영원히 지속하는 것[法體恒有]이지만 대승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원시불교에서도 오온·십이처(十二處)·십팔계(十八界) 등의 일체법은 무아라고 하여 굳이 인무아와 법무아를 나누지 않더라도 모든 법이 무아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불교의 이상은 이와 같이 고정 불변한 것이 있다는 생각과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 나 고(苦)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걸림이 없는 자재의 경지를 얻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너, 주체와 객체의 대립을 구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즉 분별을 여읜다는 말이다. 크게 다른 것을 포용하는 것이기도 한 무아는 결국 대아(大我)를 의미한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㉝



백 개 수레에 실을 만한 바위라도 배에 싣는다면 물 위에 뜰 수 있다 〈미린다팡하〉

TV 보기가 겁난다. 뉴스 듣기가 무섭다. 연일 끔직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안심을 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은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일까? 청소년들은 또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어린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디에, 어디에 있을까?

정치인들로부터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방전을 쏟아놓고 있다. 나름 일리있는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산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내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다. 아직 '그때'가 안 와서일까?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일 것이다. 당장은 호구지책이 더 시급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야말로 죽음보다는 삶이 문제인 이웃들에게는 '죽음'이 사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윤리적 삶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죽음과 내생을 인식시키는 일에 달려 있다고 본다.

내가 이해하는 한, 불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금생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생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범죄자는 잡아서 처벌할 수밖에. 그런 처벌이 대증요법은 되겠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한 생만을 생각하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근시안인 것 같다.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삶으로, 죽음 이후의 내생이라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간다. 그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조금이라도 더 향상되고, 조금이라도 더 진보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유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금생의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지우고, 새롭게 쓰고 싶어서이다.

다음 생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는 오늘 이 삶에서의 '손해'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불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생을 위하여 나는 이 생을 닦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내게 남아 있는 시간이 그 얼마이든지, 내생의 삶을 위한 양식을 장만하는 일에 쓰고 싶다.

이러한 죽음의식에서 금생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나는 역사의식이라 부른다. 이 역사의식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이 '임종의 시간'이다.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웰 다잉(well dying)의 문제이다.

"비록 백 년동안 악행을 했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 "죽을 때 한번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상(天上)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서경수 역, 〈미린다팡하〉, 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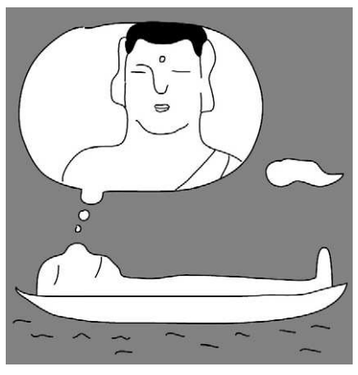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무량수경〉에서는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아미타불의 …인용자) 나라에 태어나고자 함에도, 임종시에 대중들과 함께 그의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라는 법장보살의 본원(本願)이 기록되어 있다. "죽을 때 한번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무량수경〉의 10념이 곧 〈밀린다팡하〉의 1념이다.), 아미타불께서 여러 대중들을 데리고 환영하러 오신다는 말씀이다.

"죽을 때 한번만 부처님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염불이 곧 악행이라는 무거운 돌을 실어주는 '배(船)'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배는 우리를 실어서 고해바다를 건너간다. 극락이라는, 나의 내생으로 나를 실어다 준다. 이렇게 〈미린다팡하〉는 〈무량수경〉의 주석서가 되기도 한다. 기쁘고도 놀랍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두타선원(頭陀禪院) 文化센터 수강생 모집

【수류도,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개강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임을 알아야 성품이 보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금번 두타선원 문화센터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간화선과 자연과 하나 되어 수류도(水流道)의 몸수련, 마음수행을 동시에 이루고 유식 30송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과 사경을 통해 혜안을 통투하고 한국화와 서각을 통하여 작품세계에 깊이 몰입하므로 견성을 체험하시어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과 시간표】

	오후 2시 ~ 4시	저녁 6시30분 ~ 9시30분
월	불교입문 교리 및 경전강의 동국대 박사과정수료 〈정화스님〉	수류도법 지도자 과정(스님들 포교에 도움) 몸수련, 마음수행, 몸과 마음은 하나 〈본선원장 법헌스님〉
화	간화선 생활수행 네가있어 내가 존재한다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유식 30송 불안, 걱정 제거법 수행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수	수류도법(水流道法)수련 몸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면 근육재생 및 호흡법 〈법헌스님〉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32체 〈법헌스님〉
목	서각 및 목공예. 기초-작품까지 대한민국 미술대전초대작가 〈대한명인심사위원 죽허 김정규〉	한국화, 문인화(사군자)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심사위원 송원 이연재〉
금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32체 〈법헌스님〉	수류도법(水流道法) 허상의 관념관습을 버려야 참마음을 알게된다 〈법헌스님〉

전화 02)747-4268. 010-4413-426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619호
*** 종무직 봉사자 모집 (혜택 : 수강하고자하는 과목 모두 무료)**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4,5번 출구

범음범패학인 모집

과 정

초 · 중 · 고급과정 수시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

❖ 초급과정 : 도량석, 새벽종성, 저녁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 중급과정 : 사시마지, 각종불공, 시식(관음시식)
❖ 고급과정 : 49재의식, 구병시식, 점안의식, 예수재, 수륙재 의식 등

특 강

호적(태평소), 작법무(바라무, 나비무), 사물작법(태징, 북, 목탁, 요령 등)

운영방법

회원제 운영, 수강료 무료, 수시모집, 각 사찰 포교와 제반불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실전강의

■ 교육장소 :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618 (삼보사)
■ 문 의 처 : 010-4910-6358 / 010-8612-6914

대 승 불 교 염 불 원

설법 · 화술 무료 공개강좌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격려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40년 노하우,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 한국설법연수원회장

※ 무료공개강좌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4~6시

설법연수일정

◆ 수시접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2개월 과정)
◆ 종합반을 진도식 교육이 아닌 훈련식으로 교육
◆ 개인지도 : 환영 (직접 상담 결정)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H·P 010-7248-1567 ☎ 02)747-1567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회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

소리 없이 相 없이 문화 포교 40년

문화포교의 기수 반영규 거사



반영규 선생은 … 서울 출생으로 〈자비의 소리〉 대표,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 대원정사 출판부 주간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 포교와 문서포교 및 찬불가 보급운동에 힘써왔다. 사진=박재완 기자

"찬불가는 제 염불이고 서원입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 포교죠. 하지만 찬불가를 제대로 아는 불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어쩌면 현재의 찬불가는 사찰 합창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는지 모르죠. 이게 우리 불교문화의 현실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찬불가를 통해 불교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 서원입니다"

작사가 반영규 선생(83)은 자신의 서원을 이렇게 말한다. 불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문화 포교에 반평생을 바친 반 선생. 그는 지난 40년간 찬불가 100여 곡을 작사했고, 최초로 청년 불교 합창단을 결성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붓다의 메아리' 공연을 열고, 불교문서포교지 '자비의 소리'를 발행하며 그의 전법 서원을 실천해 왔다.

도심 속 '붓다콘서트'를 열다

그리고 팔순을 넘긴 지금에도 문화 포교에 대한 그의 서원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그는 좋은벗풍경소리(회장 덕신스님)와 함께 매달 전석 무료 붓다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해 매달 열리는 붓다콘서트는 ▷다함께 노래를 ▷법문이 있는 이야기콘서트 ▷찬불가 작사 작곡자 초대 ▷작은 사찰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970년대 '자비의 소리' 발간
4쪽 포교 전단지 폭발적 인기

아함경 읽고 부처님 가르침에 눈떠
찬불가 100여곡 작사…테이프 배포

대중들에게 찬불가를 알리고 관객과의 소통을 꾀하고자 마련된 붓다콘서트는 매 회 350여 관객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는 늘 도심에서 상설 불교 콘서트를 열고 싶어하던 반 선생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찬불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찬불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정적인 면에서나 인력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변 도움도 받고 사비를 들여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크게 호응을 해주니 참으로 기쁘고 고맙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붓다콘서트는 시작부터 그리 여유롭지 못했다. 어렵게 시작 했지만 공연비용을 줄이고 줄여도 최소 600여 만원 가량의 경비가 들어간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공연은 현재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그는 지금 보이는 어려움보다는 더 큰 미래를 보고 이 콘서트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음악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료 콘서트를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출연진에게도 무료 공연을 부탁하기보다는 적게나마 출연료를 주고자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와 관객 모두를 만족시키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반 선생은 붓다콘서트를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공연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를 알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그는 사비를 들여 붓다콘서트 로고가 새겨진 배지 1천 개와 오프너 1천 개를 제작해 배포하며 붓다콘서트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열린음악회는 누구나 한번쯤 보고 싶어하는 공연이잖아요. 그런 공연처럼 우리 붓다 콘서트도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불교인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공연을 시발점으로 불교 음악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콘서트를 보러 오고 대중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죠"

그는 불교음악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참인 1백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다. "세상에는 많은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불자들도 많겠죠. 100만원 후원자 100명만 모아도 우리 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문화 포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문화 포교의 서원을 세우다

반영규 선생은 재가불자로 문화 포교에 뛰어든 지 40년여 년이 되었다. 어렸을 적 불전에 공양미 올리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불교는 기복신앙이라고만 생각했다. 결혼 해서 아내 권유로 절에 나가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때도 기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접하게 된 〈아함경〉 등 불교 서적을 통해 부처님 법의 위대성에 눈뜨기 시작했다.

"당시 종로 일대 서점에서 불교 서적을 접하게 됐어요. 부처님 법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그때야 알게 됐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서적들이 일본어로 돼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글로 된 포교문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자비의 소리' 입니다"

당시 편집·출판 계통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그는 문서포교를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는 한 불교 출판 편집자에게 이 계획을 말했더니 그는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며 만류했다.

1년을 망설였다. 그러다가 조계사에서 우연히 만난 혜일 스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꼭 해보라고 용기를 주셨다. 그렇게 1973년 1월 혜일 스님의 글 '버릇 세계'가 실린 '자비의 소리' 첫 호가 탄생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4쪽짜리 포교 전단지 1만 5천 장은 전국 사찰과 군부대 교도소 등에 배포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각 사찰에서 전단지를 보내달라는 주문이 쇄도했다. 이후 '자비의 소리'는 최대 5만 장까지 인쇄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당시 일반인들을 위한 포교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매우 반응이 컸어요. 군부대와 교도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소리'를 읽었죠. 배타고 해외로 나갔던 해군 한 명은 몇 달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종이가 닳을 때까지 보고 또 보고 했다더군요. 50대 전후의 불자라면 '자비의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즈음 반 선생은 찬불가를 통한 포교에도 박차를 가한다. 노래만큼 좋은 포교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는 작사를 시작했고 작곡가 故 서창업 선생 등이 곡을 붙였다. 서울대 작곡과에서 공부한 신예 작곡가 서창업 선생은 이를 계기로 찬불가 작곡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의 창작곡은 다양하다. 청소년들의 주제곡이라 할 수 있는 '붓다의 메아리'를 비롯해 '뉘우치오니' '산사의 봄' '날마다 좋은 날' '자비의 나라' '무상계' '사래밭 아리랑' 등의 창작은 물론 교성곡 '사바의 바다' '불 밭에 피는 꽃' 오페라 '나무꾼과 선녀' 등도 창작했다. 이후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그의 가사는 더욱 빛을 발했다. 박범훈 前 중앙대 총장과 김회경씨가 곡을 붙이기도 했고 김영임 등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지금까지 작사한 노래만도 100 여곡이 넘는다. 재가불자 작사가로서 찬불가 운동에 참여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반영규 선생으로 불교 음악사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주목 받는 인물 중 한 명이라 말할 수 있다.

"불교 음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사와 곡을 쓰는 사람 모두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혼을 실어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야 진정한 찬불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작사한 많은 노래 중에서도 아내와 연관된

교계 첫 삼보 청년 합창단 조직
전국 사찰 합창단 효시 되기도

음악 법회 '붓다의 메아리' 동참
중고교생 포교·교화에 큰 몫

노래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무상게'는 30여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며 지은 시에 박범훈씨가 곡을 붙인 작품이다.

'곱디 고운 베옷 입고/꽃신 신고 가는 님아/이승의 짐 홀홀 벗고/고이 가소 정든 님아/사바 고해 괴롬일랑/한강물에 띄우고/지난날 맺힌 한/바람결에 흘날리고'

이 곡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마음이 절절하게 배인 작품으로 불교계 49재에서 단골 천도가로 애송되고 있다.

이후 찬불가는 자비의 소리에 악보와 함께 배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불가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활자와 악보만 보고 찬불가를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테이프를 만들어 보급하자는 결심을 하고 당시 찬불가에 관심을 가져주었던 몇몇 스님들의 도움으로 수개월에 걸쳐 테이프를 제작했다. 이렇게 찬불가 테이프는 자비의 소리와 함께 전국에 무료 배포됐다.

"당시 악보와 함께 찬불가 가사가 담긴 자비의 소리를 배포했죠. 그런데 어떻게 찬불가를 배우냐는 문의가 쇄도했어요. 그래서 동명여고 학생들과 함께 녹음실을 찾아가 찬불가를 녹음해 테이프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찰에도 일반 가정에도 녹음기가 없었어요. 당시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불자들 찬불가 불렀으면”



반영규 선생은 ‘풍경 소리’와 함께 매달 전석 무료 붓다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붓다 콘서트 출연진들과 함께한 반영규 선생(앞줄 오른쪽 첫번째).

국내에서는 녹음기 생산이 되지 않았고 일본에서 몰래 기계를 들여와야 할 정도로 녹음기가 귀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절에서는 부잣집 신도의 카세트를 빌려 노래를 듣는 진풍경이 벌여졌죠”

도심속 음악회 ‘붓다콘서트’ 열어
100명 문화 후원인 조직이 꿈

세상의 희망이 되어

늘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던 반 선생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포교를 생각하게 된다. 바로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었다. “재가자들이 조직한 삼보법회가 풍전호텔에 공간을 빌려 일요법회를 열고 있었어요. 법회가 끝나면 청년들을 모아서 서창업 지휘자와 함께 삼보 합창단을 지도했어요. 이후 조계사 도선사 등의 사찰 합창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는 불교계 합창단의 효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뿌린 문화 포교의 씨앗은 나날이 번성해 갔다. 이후 사찰마다 많은 합창단이 생겨났고 찬불가 작곡가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씩 합창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사찰마다 합창단 창립이 유행하다시피 했죠. 자고 일어나면 사찰 합창단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합창단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시는 불교 쪽에 인력도 많았고 젊은층의 호응도 컸어요”

이후 반영규 선생은 동덕여고 김재영 선생과 함께 각 학교 불교 학생회를 주축으로 한 합동음악법회 ‘붓다의 메아리’도 창단하게 된다. 청소년이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반 선생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불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의 공연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대학로 흥사단 건물을 빌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불교 학생회와 함께 음악 공연과 연극 꽁트 등을 공연했죠. 탤런트 이순재, 권투선수 홍수환, 학사 가수 유승엽, 애국지사 김관호 씨 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회를 거듭할수록 관중들이 늘어나서 더 큰 장소로 무대를 옮겨야 할 만큼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의 청춘콘서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며 공연은 승승장구 했죠”



반영규 선생이 제작한 붓다콘서트 캠페인 배지

이런 문화 포교의 원력은 그의 역 저서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반 선생은 〈자비의 소리〉〈나무석가모니불〉〈희곡집 아자타사투왕〉〈붓다-그 생애와 사상〉〈새로운 마음의 불교〉〈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법화경 30일 공부〉 등을 펴냈다. 또한 재단법인 대원정사 출판부의 주간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당시 월 10여 권의 서적을 출판하면서 〈빛깔 있는 책〉 등 불교도서 출판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대원정사 출판부에서 일할 때는 정말 다양한 책들을 출간했죠. 당시는 추석과 설 명절만 빼놓고는 매일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포교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9년까지 군법사가 없는 군부대를 찾아가 15년 동안 법회를 열고 찬불가를 가르쳤다. 초파일 때는 군인들에게 수계식을 해주고 크리스마스에는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며 군포교에도 매진해 왔다. 삼선포교원신도 회장을 역임하면서 등산법회를 열어 절이 있는 산을 찾아다니는 것은 물론 수원 포교당 신도들과 불교 문화재 답사를 하는 등 최근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본지와 함께 혜초 교성곡 공연 때 무대 감독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다양한 불교 공연 무대를 만들어온 장본인기도 하다. 지난해 그는 부처님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교성곡 가사를 완성했다. 이제 그의 서원은 이를 무대에 올려 전세계인이 감동 받을 수 있는 불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전세계인에게 사랑 받는 작품이죠. 불교는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없는지 안타까웠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공연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교성곡가사를 썼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원소스멀티유즈의 콘텐츠인 셈이죠. 이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반 선생은 현재 침체된 불교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포교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품바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공연을 해요. 불교 공연도 마찬가지에요. 관객이 있고 호응이 있어야 흥이 나 공연을 하지요. 지금 우리는 불교문화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스님들은 사찰 건물 불사에만 힘쓰지 문화 포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계의 지성들은 불교에 눈을 뜨고 있는데 한국 불교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죠. 재가불자들이 힘을 합쳐 다시 불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문화가 다시 살아 나야 합니다”

반 선생은 이렇게 불교문화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따끔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이런 반영규 선생의 모습에서 우리 불교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 불교문화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는 반영규 거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불교문화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비 오는 날이면



동국대 명예교수

비도 장단 가락을 타는 것일까.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이니. 이번 비는 예사롭지 않다. 아마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려는 비인 듯 하다. 문명에 찌들린 영혼을 깨워주기 위해 거푸거푸 인간 세상에 알려주는 천상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생각은 추억의 실타래를 풀어낸다. 마치 새벽녘 하늘 별빛이 누구와 윙크를 하고 있듯이 추억은 세월을 훌쩍 넘어 다가온다. 동요가 생각난다.

이슬 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 갑니다
파란우산 깜장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세 개가…

동요 속에는 학교 길의 우산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 작가가 본 등굣길의 모습은 그랬는지 모른다. 하지만 등굣길의 모습은 훨씬 다양한 풍경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학교 가는 길에서 먼저 만나는 낯선 손님이 있다. 두꺼비이다. 두꺼비는 언뜻 보면 개구리 같이 보이지만 두꺼비과의 양서류이다. 돌이나 풀 밑에 숨어 산다. 생김새야 개구리 같이 생겼으나 그 보다 몸집이 크며, 피부가 두껍고, 흑갈색의 등은 우툴두툴하다. 마치 군자의 도라도 익혀 세상에 나온 듯 걷는 양이 범상치가 않다. 비를 피해 뛰고 있는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하는 듯도 하고, 너희들 같이 뛰기만 하다 보면 지치기 일수이니 쉬지 말고 나같이 걸어 보라고 …. 그것도 느리게 걸어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듯 하다. 두꺼비 집이라고 하면 전기 안전기를 연상하는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세상이지만, 원래는 농기구인 쟁기의 술바닥이 들어가 박히게 된 모습의 빈속을 말한다.

바둑이도 한몫한다. 바둑이는 꼬리만 젓고 따라 나서지 않는다. 비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녀석도 우산 없이 학교길을 배웅하기가 여간 거역스러운 일인 듯 하다. 그저 눈 맞춤으로 대신하고 딴전만 피운다. 앞발로 제 몸치장이나 한다거나 괜스레 신발이나 물고 좌우로 흔들어댄다. 학교 가는 길이 무슨 원님 행차 길도 아니니 따라나서지 않는 바둑이를 탓할 일도 아니다. 간밤에 요란스럽던 맹꽁이도 깊은 잠에 빠진 듯 하고 ….

비 오는 날이면 그림자 마냥 따라다니는 추억이 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나에게 비 오는 날이면 유혹이 따른다. 학교를 어떻게 갈까, 아니면 아예 가지 말까의 망설임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우산 때문이다. 당시 내게 있어 동화속의 우산은 딴 세상 얘기였으니 말이다.

마루에는 요소나 질소 비료 포대가 한 길 넘게 쌓여 있기가 일쑤였다. 빈 비료봉지를 따서 임시변통으로 우장을 만들어 쓰고 학교에 가려면 심난하기 그지없었다. 왠지 동네 사람이나 친구들의 시선을 온 몸에 받는 듯 하였으니 어린 시절이야 그럴만도 한 일이 아닌가. 짚이나 띠로 촘촘히 엮어 만든 도롱이 보다야 심플하였지만 영 내키지 않는 우장임에는 분명하였다. 어른들에겐 흔한 모습이었지만 어린이의 행색이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 못내 챙피하다는 생각까지 들기에는 큰 무리가 아니었다. 어드메쯤 쓰고 가다보면 거센 빗줄기에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지기 시작하는 나의 우장옷은 이별을 고하게 된다. 논둑이나 길가에 던지고 나면 홀몸이 된다. 축축한 허물을 벗고 난 개운함이야 잠시이고 의지처를 찾게 된다. 처마 밑이다. 점방문을 열지 않은 처마 밑이나 제재소 처마 밑에 몸을 의탁하면 제격이다. 교실에서 책보를 펴면 책과 노트의 모서리는 물을 먹어 축처져 기력을 잃었다. 이런 일쯤이야 시간이 지나면 깔끔히 해결될 일이다. 단 젖은 노트에 필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워 난제를 만나기도 한다.

비단 비가 내리는 날이 아니라 해도 길 바닥이 지적지적만 해도 나의 구원 투수 비료포대

“문밖에서 들리는게 무슨 소리냐”
“빗방울 소리입니다”
“빗방울 소리에 사로 잡혀 있구나”

우장이 생각난다. 어디로 날아갔을까. 아니면 농부의 손길이 미쳐 어느 대지에 묻혔을까. 그도 아니면 모진 빗속에 할퀴어 산산히 부서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그 종이는 화창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가벼이 다져 훨훨 창공을 날아 갔을거라고. 소년의 꿈을 싣고 높이 높이 날았을 것만 같다. 그때 그 소년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그리운 날의 추억은 이렇게 감미롭고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소리련가.

신발장에 포개어 있는 다양한 우산을 본다. 별반 정이 가지 않는다. 그 옛날 그리도 갖고 싶었던 검정우산도 파란우산도, 그 시절에는 없었던 색 다른 삼단으로 접는 우산에도 눈길이 머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저 햇볕에 말려 물기가 가시면 거두어 예전 자리에 놓아 둘 뿐, 그리움의 그닐거림이란 찾을 길 없다.

연못가에 빛바랜 봉선화 잎이 아느작거리고 있다. 잎이야 이내 시들겠지만 가지에 매달린 삭과는 다음 해를 기약하고 있을 것이다. 내 우장이 꿈을 키웠듯이 ….

불현듯 선사의 경책이 떠오른다.

“문 밖에 들리는 게 무슨 소리냐?” 제자는 “빗방울 소리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너는 빗방울 소리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였다.

난 우장에 사로잡히지나 않았나 살펴봐야겠다.

한국불교교육대학 천불사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공동주최!
천안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수강생 모집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W웨딩컨벤션 2층)

일 시	강 사	주 제
제1주 9. 5 (수)	정병조 총장	한국인의 종교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제2주 9. 12 (수)	박영길 교수	인도의 수행론 – 불교의 요가수행
제3주 9. 19 (수)	박영길 교수	요가행법의 이론과 실수(實修)
제4주 9. 26 (수)	한지연 교수	잃어버린 문서의 고향 – 호탄
제5주 10. 10 (수)	한지연 교수	살아있는 불교박물관 – 돈황
제6주 10. 17 (수)	차상엽 교수	다시 보는 티벳인들의 삶과 문화
제7주 10. 24 (수)	차상엽 교수	티벳인과 티벳불교, 과거와 현재
제8주 10. 31 (수)	석길암 교수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의 발원지 – 장안기행
제9주 11. 7 (수)	석길암 교수	천안 직산, 원효의 깨달음을 말하다
제10주 11. 14 (수)	김천학 소장	삼국시대 불교의 일본전파에 얽힌 이야기
제11주 11. 21 (수)	김천학 소장	현대 일본인의 불교신앙과 신들의 세계
제12주 11. 28 (수)	정병조 총장	한국의 종교와 불교의 미래를 말하다 (수료식)



시내버스 이용시
터미널/역전에서 병천, 수신, 독립기념관 방면 330, 331, 350, 352, 381, 400, 401, 402, 410, 411, 412, 413, 420, 430, 431, 481, 500, 510, 520, 530, 532, 540, 550, 590, 592 (동중학교 앞 하차)

자가용 이용시
–천안IC → 목천(독립기념관)방향으로 주행시 천안삼거리공원, 동중학교 앞
–목천IC → 천안방향으로 주행시 천안삼거리공원 동중학교 앞

W웨딩컨벤션 ☎ (041) 569-2211

강의 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81-1 W웨딩컨벤션 (천안 삼거리공원 맞은편)
접 수 041) 557-3223 팩스041) 555-6550 (한국불교교육대학 천불사 종무소-수강료 5만원)
수료하신 분은 「한국인문학지도자」 자격 수료증을 드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왕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美, 일본이민자 미국불교교회

새 교주 "삼보 세계에 알리겠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원을 두고 있는 미국 불교 교회(Buddhist Churches of America; BCA) 전경. 사진 왼쪽 상단은 BCA 14대 교주로 선출된 코도 우메쥬.

1800년대 후반 미국에 이민 온 일본인들이 세운 미국 불교 교회(Buddhist Churches of America; BCA)가 최근 14대 교주를 선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코도 우메쥬(Kodo Umezu)다. 그는 8년간 교주를 역임해온 코신 오구이(Koshin Ogui)에 이어 신임 교주로 발탁돼 새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우메쥬 교주는 "BCA의 목표인 정토진종을 널리 알리는 것 뿐 아니라 불(佛)·법(法)·승(僧) 삼보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겠다"며 "BCA가 국제적인 종교 조직으로서 종교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사찰과 공동체에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도 우메쥬 교주는 일본 후쿠오카서 태어나 1973년 일본 용곡대서 불교학 전공으로 졸업하고 BCA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일본 불교 최대 종파인 정토진종(淨土眞宗)을 기반으로 하는 BCA는 일본 교토 혼간지파에 본산 사원을 두고 있으며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약 1만 6000회원들과 60개 이상의 소속사찰을 갖고 있는 대규모 불교 모임이다.

또한 BCA는 캐나다, 남미, 호주, 네팔, 대만,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정토진종과 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CA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이민자법으로 중국노동자들의 입국이 금지되자 이들을 대신할 값싼 노동자 수요의 증대로 일본 노동자들이 본토에 대거 입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 이민자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근처서 벼를 성공적으로 경작했으며, 결국 쌀을 캘리포니아 주 농산물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런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에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1898년 정토진종 선교사들이 진출해 들어온 것이다.

美전역에 1만 6000신도 포진

남미, 유럽, 호주 등 포교활동

'교회'는 미국적응 위한 의지 표현

美 군종법사 파견하는 유일 교단

그 이듬해에는 본토 최초의 일본 불교사찰이 샌프란시스코에 건립됐으며, 북미불교선교교회(Buddhist Mission of North America; BMNA)가 발족했다. 불교선교회는 적극적인 미국화 정책을 내세워 일본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1924년 미국의 '동양인 배제법'으로 알려진 이민정책으로 사실상 아시아계 이민이 금지되자 북미불교선교회는 포교활동에 큰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BMNA는 다시 활기를 띤다. 2차 대전 동안 미국 정부가 태평양 연안에 있던 약 12만명의 일본계 주민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다.

미국 불교 교회(Buddhist Churches of America)라는 새 이름을 채용한 북미불교선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원을 두고 후지모토 호겐 스님을 주축으로 전국 수백명의 수감자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이들이 출옥한 후에는 정신적 힘이 되어 주는가 하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왔다.

'교회'라는 표현은 자신들을 의심하는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BCA는 이름뿐 아니라 사찰을 기독교 교회와 비슷하게 만들고, 일요일에 집회를 하며, 오르간과 피아노를 예불 때 사용하고, 찬불가와 성가대를 사용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일본 이민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BCA의 중심은 여전히 일본계 신자들이지만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고, 2006년에는 유럽계 미국인이 처음으로 교회의 수장이 됐다.

BCA는 공식 홈페이지에 신도수가 1만 6000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1996년 당시 BCA 신도 수는 78만 명이었다는 통계수치가 있을 정도로 BCA의 규모는 대단하다.

이 같은 BCA의 교세(教勢)는 산하기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BCA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정규학위를 수여하는 승려양성기관인 불교대학원(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IBS)을 갖고 있으며, 정토진종 가르침을 전파할 지도자를 연수하고 전세계 불교문화를 교류하는 포럼 등을 개최하는 불교교육중앙회(Center for Buddhist Education; CBE)와 전세계 여성 불교도들을 결집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불교여성협회(Federation of Buddhist Women's Associations; FBWA), 불교언론 법륜신문(Wheel of Dharma)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BCA는 미국의 군대에 불교 군종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불교 교단이기도 하다.

이나은 기자

"대처강요한 일본은 깊이 반성해야"

세계의 불교학자(30)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

日 도쿄대 명예교수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삼국 중 불교가 가장 늦게 전파된 곳은 일본이다. 그러나 19세기말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부터 일본불교는 세계 불교학계를 제패했다고 할 정도로 불교학과 문헌학이 왕성하게 발달했다.

일본에서 연간 생산되는 불교학·인도학 관련 서적과 논문의 양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많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세계의 불교학계를 이끈 일본 학자는 대부분이 문헌학자였으나 현재 일본 불교 연구는 사상사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학자인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63) 日 도쿄대 명예교수는 사상사적인 관점에서 불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스에키 교수는 일본 고대불교와 중세불교를 전공하지만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동아시아불교나 근대불교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했다. 불교 내 종파나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 방식을 꺼린 그는 불교를 시대의 흐름과 사상사 속에서 찾고 연구 하고 있다.

불교가 일본 근대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스에키 교수는 그의 저서 〈근대 일본과 불교〉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불교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을 점검했다. 아울러 근대 지식인이 불교 사상 연구에 힘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에키 교수는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일본 불교의 관계가 복잡하고 중요한데, 그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라며 "일부 불교도들은 전쟁에 반대하기는 커녕 장려했다. 이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지도자 키요자와 만시(清澤滿之)의 제자들 중 일부는 아주 공격적이어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미타불의 힘에 대한 순종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며 "1945년 이후 불교 각 종파들이 이에 대해 회개하고 책임을 인정했다. 물론 모든 불교도들이 전쟁에 협력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종교문제는 국가나 전쟁 등의 세속 문제를 초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전론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에키 교수는 〈근대 일본과 불교〉 서문에 학자로서 양심적인 고백을 담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고대·중세관이 실은 근대가 돼 형성된 것으로 근대의 각인이 강하게 찍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사 연구에서 연구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고, 순수하게 객관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성립한다. 우리들은 근대적인 역사관·종교관에 빠져, 그것을 과거에 투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에서 나는 근대 불교 사상 연구를 착수하게 됐다. 또한 이 책에서 일본의 근대불교와 아시아의 관계를 다루었지만 대부분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나의 공부가 미진한 까닭이며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식민지 정부는 한국 승려에게 대처(帶妻)를 강요하는 등 폭거를 자행했다. 그것은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그는 근대의 일본불교가 어떤 사상을 전개하고 활동했던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상사적 관점서 불교연구

日근대불교 연구통해

전쟁장려한 日불교 비판

흔히 일본 불교를 '장례식 불교'라고 한다. 이에 대해 스에키 교수는 '사자(死者)의 철학'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일본은 집집마다 불단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을 위해 일정시기에 절에서 천도제를 지낸다. 이런 현상을 '장례식 불교'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일본인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근본적 관념을 가르쳤다"고 말한다.

스에키 교수에 따르면 이런 불교의식이 무상감(無常感)을 일본인에게 인식시켜 줬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인들은 죽음을 상기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대승불교는 죽은 자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대중들이 대승불교를 따르게 된 이유도 불교도들이 부처의 죽음 이후 부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에키 교수는 1973년 도쿄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동 대학원의 인문과학연구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저서로는 〈헤이안 초기 불교 사상의 연구〉 〈일본불교 사상사 논고〉 〈일본불교사-사상사로서의 접근〉 〈해체되는 말과 세계〉 〈'벽암록'을 읽음〉 〈가마쿠라 불교 형성론〉 〈중세의 신과 불〉 등이 있다.

이나은 기자

대만 불교 사원서 최초 동성 결혼



대만의 불교사원에서 여성 동성애자 커플을 위한 결혼식이 치러졌다.

불교 사원에서 최초의 레즈비언 결혼식이 8월 11일(현지시간) 대만에서 치러졌다고 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성애자인 피시 후앙(30)과 연인인 유야팅(30)은 북서부 타오위안현에 위치한 불교사원에서 시흐 차오 후이 주지스님의 축복 아래 결혼식을 치렀다. 이날 결혼식에 후앙과 야팅은 모두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으며 약 300명의 불교인이 이 커플의 앞날을 위해 염불을 외웠다.

후앙은 "우리의 결혼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각이 많이 바뀌었으면 한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동성애간 결혼을 합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흐 차오 후이 주지스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산 증인"이라며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두 명의 여성이 당당하게 나섰다"고 밝혔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로 동성애 단체들은 수년째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동성애 집단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 레즈비언 80쌍이 단체로 결혼식을 하고 1000여 명의 친인척을 초대하는 대형 피로연을 가졌다.

대만 정부는 2003년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 합법화 법안을 마련했지만 마잉주 총리는 법제화 이전에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과 키스해 감옥신세

佛관광객 스리랑카서 기념사진 찍다 유죄판결

외국인 관광객이 스리랑카 여행 중 불상을 훼손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8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온 여성 2명, 남성 1명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100여㎞ 떨어져 있는 도시 갈레(Galle)에서 불상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사진현상소의 신고로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관광객들이 불교 사원 안에서 불상과 키스하는 모습을 포즈로 취하고 사진으로 찍은 것.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판사는 "관광객들의 행위는 신성한 종교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 모욕을 느끼기에 충분해 유죄판결을 내린다"며 이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5년형과 강도 높은 노동 및 벌금을 물도록 지시했다.

스리랑카는 상좌불교(테라와다)를 믿는 국가로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이 단정치 않으면 입장할 수 없으며, 불교이미지와 불상을 훼손할 경우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한 5명의 아랍인이 불교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2010년 한 무슬림 상인은 부처님 이미지가 새겨진 열쇠고리를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해 미국의 힙합 음악가 에이콘(Akon)은 자신의 뮤직비디오 '섹시 칙(Sexy Chick)'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불상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넣어다가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비자 허가를 거부당했다.

이나은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안날,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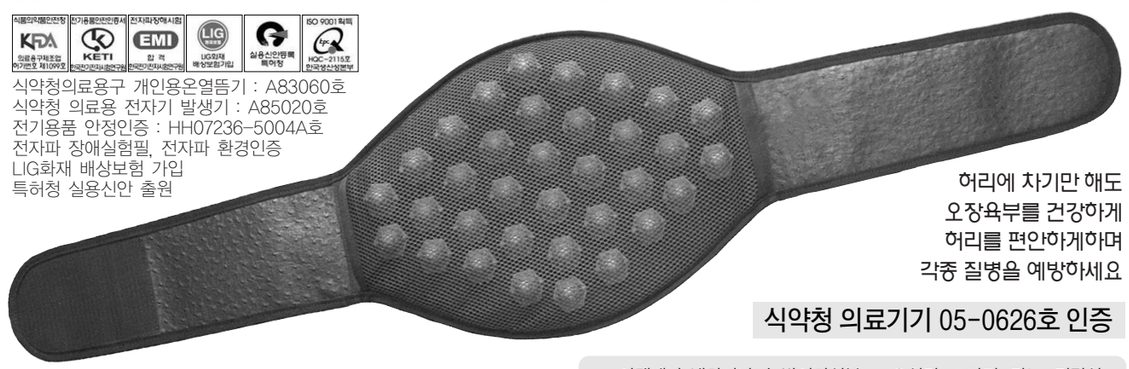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양지국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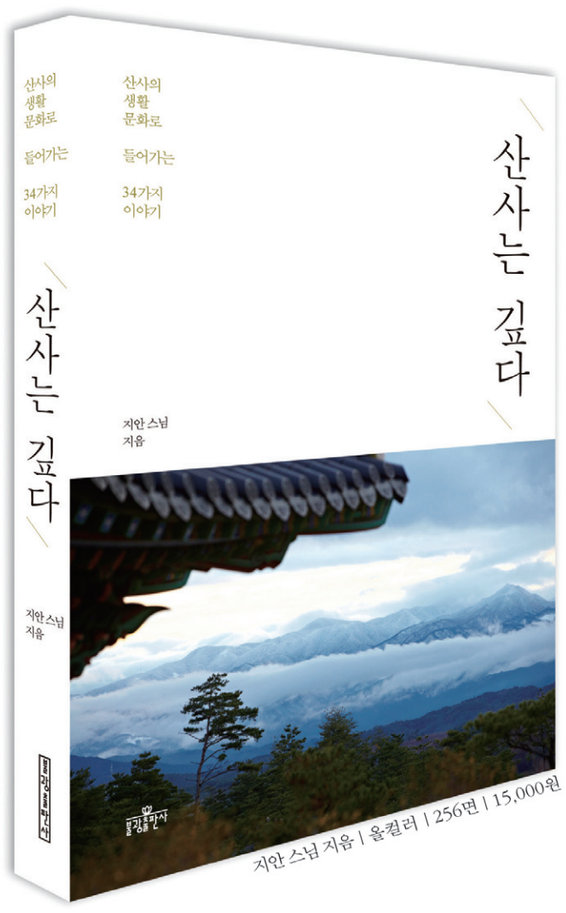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소임
기침
도량석
종송
예불
공양
간경과 논강
운력
염불
기도와 정근
취침
출가
삭발
수계
법명
가사
총림
안거
용맹정진
포살과 자자
대중공사
경행
시봉
만행
토굴
다비와 사리
법회와 재일
시다림과 49재
시식
축원
방생
관불과 연등
우란분절
보살계



우리 산사의 진면목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었을까!

지안 스님의 40년 절집 생활에서 걸러낸
산사 생활의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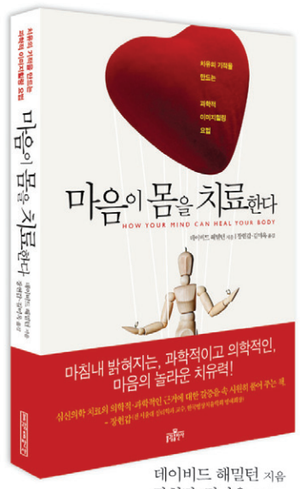
지안 스님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정법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HOW YOUR MIND CAN HEAL YOUR BODY

치유의 기적을
만드는
과학적
이미지힐링
요법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지음
장현갑·김미옥 옮김
372면 | 17,000원

건강 부문 베스트셀러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제 당신도 느껴 보라!

심신의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책은 이미지힐링과 믿음, 긍정적 사고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저자는 혁명적인 '양자장 치유법'을 언급하면서 상상력과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방어 기제와 치유 시스템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고려 유물서 커피잔 원형을 보다”

고려 청동 찻잔 소견


고려 청동 찻잔

차(茶)의 기원은 몇가지 이설(異說)이 있긴 하지만 기원전 고대 중국의 삼황(三皇)중 한 분인 신농(神農)씨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불을 지피고, 농사를 시작한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왕이다. 어느 날 그가 나무 아래서 물을 끓여 마셨는데, 나뭇잎 서너 개가 주전자에 떨어져 우러난 물을 마셨는데 그 차맛에 감탄하여 계속 마셨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신농씨가 수백가지 풀을 먹다 독에 중독되어 정신을 잃고 어느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다. 그 때 바람을 타고 푸른 잎사귀 하나가 신농의 입으로 떨어졌는데, 이 잎을 먹자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독이 해독되었다. 그 잎이 바로 찻잎인 것이다.

또 다른 전설은 보리달마(菩提達磨)에 의한 것이다. 어느 날 그가 참선을 하던 중에 졸음을 쫓기 위해 우연히 찻잎을 씹어 먹었는데, 바로 정신이 맑아지

차의 기원 다양한 전설 전해
한국 차 불교 흥망성쇠와 연관
천년 전 찻잔서 차문화 읽어내

고 졸음이 없어져 큰 뜻을 이루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그가 졸음을 쫓기 위해 두 눈썹을 잘라서 던져 버렸는데, 그 곳에서 차나무가 생겨나서 차에 졸음을 쫓는 성분이 생겼다고 한다.

차의 학명(學名)을 뜻으로 풀어보면 ‘중국의 동백나무’라는 뜻인데, 동백과 과목(科目)에 속한다. 중국이 차의 기원지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차의 명칭에 있는데, 차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차(茶)와 영어이름인 티(tea)가 모두 중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렇다.

복건성(福建省)과 광동성(廣東省)은 차의 집산지로 중국 전역에서 만들어진 차는 이곳으로 모여서 차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육로로 차를 수입한 나라들은 광동성 발음인 ‘차’를 사용하고, 해로로 차를 수입한 서유럽의 국가들은 복건성 발음인 ‘티’로 불렀다.

차에 관한 문헌 중에 동진(東晋)시대의 상거(常璩)가 쓴 화양국지(華陽國志)엔 중국 남방 파촉지역에 향기 좋은 차가 있어 주나라 무왕에게 공납하였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미 3천년 이전에 차의 재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본기 흥덕왕 3년(828년)에 중국차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대렴(大廉)이 차 종자를 가져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고 적혀있다.

다성(茶聖)으로 알려진 조선 후기의 대선사(大禪師) 초의(草衣)는 한국의 다도의 대표 인물이다. 그가 다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시대부터 심었던 차나무 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차는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 발전하다가 조선시대에는 배불(排佛) 정책 때문에 시들해졌다.

우리의 차는 불교와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됐든 초의 사상은 다선일미(茶禪一味)사상으로 집약되는데 그의 사상은 차를 마시되 법희선열(法喜禪悅)을 맛본다는 것이다. 즉, 차 안에 부처님의 진리(法)와 명상(禪)의 기쁨이 다 녹아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승가서는 차보다는 커피를 더욱 즐겨한다. 중국의 보이차 등 가격이 폭등하고, 저질의 하품들이 고가로 진열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경제적인 비용과 저급한 품질의 차를 마실 수 없었던 관계로 많은 스님들이 차를 포기하고 커피로 돌아섰다.

커피의 기원에도 많은 설화가 있지만 에티오피아의 고산서 살던 칼디라는 양치기가 염소들이 어떤 나무의 붉은 열매를 따먹고 흥겹게 뛰노는 것을 보고 따먹은 데에 유래한다고 하는데, 근처 이슬람 사원의 승려들이 잠을 쫓는 효능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퍼졌다고 한다.

이 찻잔은 비록 거의 천년(千年)의 세월을 지나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특이하게도 커피잔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 물론 고려시대 당시에는 찻잔으로 쓰여졌을 이 잔이 커피잔의 원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 신기한 일이다. 무엇을 마시며 수행할 것인가…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비상 꿈꾸는 청년의 참회와 성장 그려

영화 ‘미운오리새끼’ 30일 개봉


주인공에게 깨달음을 준 행자 역의 문원주.


곽경택 감독의 열 번째 영화 ‘미운오리새끼’는 방위병 낙만(김준구 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장 드라마다.

신인 배우 전격 캐스팅 눈길
곽경택 감독 경험담 영화화
방위병 시절 만난 행자 통해
삶의 지혜 얻는 계기 마련

20대 청년인 낙만은 가족이라는 숙명적 울타리와 거대한 공룡 같은 사회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한다. 그래서 자유롭고 싶은 낙만에게 가족은 무거운 족쇄고 권력자의 횡포가 난무하는 군대는 인정할 수 없는 부조리의 향연이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주인공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곽경택 감독의 열번째 영화 ‘미운 오리새끼’는 방위로 입대한 20대 청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다. 군이라는 불합리한 세상에 방위병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 주인공 낙만의 군생활 6개월에는 20대 청년의 성장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영화 ‘미운 오리 새끼’는 곽 감독 데뷔작인 단편영화 ‘영창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이다. 당시 영창이야기는 제2회 서울단편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유명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영화는 8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친구’, 블록버스터를 표방했던 ‘태풍’, 스타들이 주연을 맡았던 ‘똥개’ ‘통증’ 등 기존 곽 감독 영화와는 차별화를 이룬다.

곽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던 ‘기적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인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했고 감독과 스태프도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영화에 참여했다. 스타 감독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곽 감독은 “영창이야기를 장편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투자를 받지 못했다. 기적의 오디션을 하면서 신인배우들의 열정을 보았고 촬영지로 염두에 두었던 군부대가 철거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뭐에 홀린 듯 이 영화를 찍자고 결심했다. 1주일 촬영비만으로 시작해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 촬영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시사회까지 열게 되니 정말 기적 같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미운오리새끼지만 또 누구나 백조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취지를 전한다.

전직 사진기자 출신이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줄을 놓아버린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어머니. 주인공 낙만에게 아버지는 벗어나고 싶은 구질구질한 현실이고 어머니가 있는 미국은 이상향이자 천국이고 극락이다. 방위병으로 6개월만 견디면 그는 미국으로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했다. 그렇게 이발병으로 입대한 낙만은 사진찍기, 바둑 두기, 변소 청소는 물론 헌병을 대신한 영창근무까지 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1987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방위로 18개월 군생활을 했던 곽 감독의 경험담을 토대로 했다. 그리고 당시 만났던 행자라는 인물은 이 영화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주요 인물인 동시에 현실 속 감독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행자는 헌병대 영창에 들어와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 그리고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함께 했던 일화는 곽 감독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영화의 한 장면이 되었다.

“당시 위생차가 화장실을 푸려면 장병들이 몰래 먹고 버린 비닐봉지들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때 꼬챙이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손에 똥을 안 묻히려고 안간힘을 썼죠. 행자에게도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려고 했는데 행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으로 쓰레기를 쑤욱 빼내는 거에요. 이렇게 하고 손 씻으면 된다고 행자가 말할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행자의 이런 행동은 곽 감독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한다. 손을 씻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쓰레기를 빼내면 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며 상황을 겁내고 어렵게 만들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이후 복잡한 일에 부딪히면 곽 감독은 행자와의 화장실 청소를 떠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손을 씻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일이 풀리곤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런 불교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곽 감독은 前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지거 스님과 인연을 맺으며 복지관에서 6여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제 영화 속 주인공은 세상의 부조리와 가족의 현실과도 직면한다. 또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된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또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그렇다. 20대의 청년은 나중에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누구나 백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운오리새끼는 오늘도 날개를 파닥거리며 비상을 꿈꾸는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의 길 ‘타타가타’

부처님 일생 표현한 8곡 실어



부처님 일생을 다룬 음반 ‘타타가타’

불교명상음악 컬렉션 시리즈 음반 ‘Tatha-gata(타타가타)’가 콘텐츠 코리아에서 발매됐다. 타타가타는 ‘하나의 꽃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의 이파리에도 하나의 부처님이 계신다. 싯다르타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 또한 우리 모든 중생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앨범은 중국 최고 작곡가이자 상하이 음악원 교수인 하훈전이 작곡하고 프로듀스한 기념비적 앨범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Path to Enlightenment)’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 앨범은 ‘큰 깨달음(Great Enlightenment)’을 얻어 여래가 된 부처님 일생을 그리고 있다. 앨범은 티베트 음악을 중심으로 그레고리안 성가, 아랍음악

티벳음악 그레고리 성가 등
다양한 음악언어 펼쳐 보여

등 인류의 다양한 음악언어가 융합되어 있는 통섭(通涉)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영국 ‘BBC라디오3 월드뮤직 어워드’에서 아태지역 최우수 가수상을 수상한 사딩딩(Sa Ding-ding), ‘제 7회 인디펜던트 뮤직 어워드’의 월드퓨전부문 수상자이자 중국앨범 중 최초로 전세계 100만장 이상 판매기록을 가진 다다와(Dadawa)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뮤지션들 100명 이상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불교를 상징하는 보리수 나뭇잎 그물모양 잎맥을 손으로 그린 표지가 인상적인 이 앨범은 2010년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타이틀 곡 ‘Heaven Outside of Heaven(天外天)’은 불교에서 말하는 끝없이 드넓은 거대한 우주공간인 대천세계(大千世界)를 묘사하고 있다. ‘Heart of the Void(虛空之心)’은 사물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뜻하며 몽환적인 중창이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사딩딩과 다다와가 부르는 ‘타타가타(Tathagata)’는 신비한 천상의 목소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02)1661-3164

정혜숙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 아미타불 /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네팔 인도 불교8대성지 완전정복 13일. 대한항공 직항. 월요일 출발가능 / 요금문의
* 인도상품 다양합니다. 문의주세요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 189만원. 금-일요일 출발
▣라오스 성지순례 6일 / 토요일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혜거 합장

여름 산사 추억

불국사서 발견한 신라의 '美'



박 대 성
화가

이미 추분을 넘겼건만 여전히 폭염의 날씨가 기승을 부린다. 8월의 말미를 흠뻑 적시는 줄기찬 빗물, 이는 빈번히 폭우로 돌변하여 반도의 곳곳에 심한 홍수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런 중에 여름의 늦더위까지 가세하고 있어 푹푹 찌는듯한 찜통날씨를 이겨내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다.

이열치열이라 했던가마는 역부족인지라 이럴 땐 더위와 정면대결하지 않고 차라리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피서의 방법일 것이다. 나는 근간 10여년이 동안 경주의 자연을 빼앗다시피 침점하고서 매년 뜨거운 폭양과의 대결보다는 화업매진에 몰두했다. 찬 기운 냉골로 통하는 남산자락 신라천년 토향을 코로 맡으면서 삼릉계곡의 소나무숲에 칩거처럼 숨었다고나 할까?

주야로 필묵과 더불어 씨름하는 나의 일상, 획기적 기능의 이것이 나의 피서법이다. 아니 이것을 피서라기보다는 우연히도 부여받은 천혜의 은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도 할 만한 이유가 먼 나변에 있지 않은 것이 산과 강, 경주의 산천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에 다른 어느곳보다도 뛰어난 환경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한국이 금수강산인 것처럼 우리나라 명산대천마다 큰 사찰이 조성된 것은 가까이 풍부한 수자원의 비근함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경주 불국사의 경우는 이와 반대다. 즉 경주 불국사는 물이 요구되는 주변적 조건에서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옛 선현들은 그 자명한 현실극복의 하나로 첨단의 지혜를 동원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한다. 참으로 경탄을 금치못할 선조들의 대자연관, 놀랍게도 극점의 경지를 보는듯하다.

> 뉴욕 화실에서
> 현대미술 정체성
> 찾아 헤메다
> 떠올린 불국사
>
> 선학과 미학의
> 복합적 화두
> 우주로 통하는 창
>
> 미친듯이 불국사
> 전경을 그렸다
> 현재와 과거를
> 넘나 들며

즉 물이 넉넉지 못한 자연지세의 극복을 위해 차경(借景)이라는 편법을 택한 것이고 보면 이 어찌 범상을 초월한 기발한 발상이 아니겠는가.

토함산 정상에 석굴암을 만들면서 동해(東海)라는 대자연의 수원(水原)을 빌려썼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동악(東岳)준령의 용허리에 불국정토 부처의 안상을 내려놓고 무한량 넓고 깊은 동해의 바닷물과 수평선의 태양을 끌어들였다.

이로써 우주간 기골의 핵심인 물과 불을 내재케 하여 가이 지구상에 다시없는 전대미문의 명작건축을 완성해 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의 문화유산이고 보면 이 어찌 신라인 건축가 김대성의 예지가 놀랍다 하지 않을까?

지난 1995년에 세계적 현대미술의 메카로 이름나 있는 뉴욕 17번가 소호에 화실을 내고 있을 즈음이다. 당시 나는 1년여 동안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곳에는 복잡다양하게 모여 있는 세계 만국인들과 우뚝 치솟은 빌딩과 넘쳐나는 자동차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질서속의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었다. 이 혼란한 도시 속에서 어느날 갑자기 나는 뒤통수를 후려치는듯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우치는 순간 내가 떠올린 것이 불국사였다. 내 어릴적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고요한 아침의 자연에서 보았던 전경이 선연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갑자기 들끓기 시작하는 경주 불국사에 대한 지극한 향수가 나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한국불교가 던져놓은 선학과 미학의 복합적 화두, 불국사는 우주로 통하는 창(窓)이 있었다. 나는 그길로 즉시 따뜻함과 포근함이 채근하는 경주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스산한 토요일 오후의 어느날 해질녘에 당도한 불국사. 절마당 한켠 노송아래서서 무한감회에 잠겨 쳐다보았던 불국사 전경의 위대함이란 그야말로 두다리가 후들거려 버티기 힘든 흥분 그 자체였다. 지금도 그때의 두근거림을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 불국사 요사채 선정실을 빌리는 대행운의 기회를 얻고서 미친듯이 불국사 전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규모에서 동서간에 워낙 넓은 가람인지라 가시거리가 좁아 전체의 표현에 많은 애를 먹었다. 거기서 완성한 두 점의 불국사 대작을 두고서 생각할 때 아마도 신라의 그 분, 김대성 혼령의 도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

신문과 방송은 온통 혼탁한 이야기로 들끓고 행복과 건강을 누리며 사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 과학문명의 우수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땀 흘리고 노력하며 몸으로 일구어 살던 선현들의 삶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것은 나만의 허구적 망상일까? 이렇듯 불국사를 내왕하며 나는 현재 속 과거를 또 과거 속 현재를 생각해본다.



그림 · 박대성

무심에서 빚어낸 부처님 미소

조각가 김은현 展 9월 4일까지

"흙작업에 임할 때는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무엇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없어요. 그저 무심히 흙 만지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그리고자 하는 얼굴이 이미지처럼 떠오르죠. 그것이 동자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성숙한 여인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조각가 김은현 작가의 7번째 개인전 '명상-덜어내기'가 9월 4일까지 종로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김 씨는 서산마애삼존불 금동보살반가사유상 등 민불의 미소를 연상케하는 도조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지금까지 도예의 전통적 기법과 현대조각의 조형적 감각을 접목해 작품활동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 역시 조용하고 온화하면서도 부드러운 한국적 얼굴 이미지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라쿠, 장작가마 등 다양한 소성방법을 통해 탄생한 작품에는 오랜 시간 명상수행과 금강경 독송을 해온 작가의 수행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작가는 명상을 통해서 얻는 내면의 성찰 그 기쁨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업을 흙과의 대화이며 교감이라고 말한다.

"대학시절부터 명상을 하며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왔어요. 수행은 서양미술을 전공한 저에게 동양의 정신을 일깨워주었죠. 흙이 내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흙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흙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흙이 되고 흙이 내가 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도출해내죠. 이 과정에서 천년전 순수한 염원을 담아 불상을 새겼던 우리 조상들의 민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 오랜 명상수행 작업에 반영
> 동자승 로터스 등으로 승화
> 20여 점 작품으로 탄생

그래서 작가는 과도한 조형작업을 피하고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친근한 얼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흙덩어리를 타원 혹은 원형으로 만들고 손으로 주무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눈썹과 눈, 코와 입술의 윤곽을 간단히 붓으로 그려냈다. 이렇게 작가는 석고틀 성형기법으로 합장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덜어내기' 흙을 말아올리는 코일링기법으로 동자승의 모습을 표현한 '내가 나에게' 등 민불의 미소를 담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김은현 작가는 선화예고 서울대 조소과 이화여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과 뉴욕 도쿄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를 열었다. (02)730-7818

정혜숙 기자



'덜어내기' 김은현 作.

용문사 산사 콘서트…9월 1일

수익금 전액 장학금 전달

양평 용문사가 9월 1일 오후 7시 용문사 경내에서 12회 '산사 나눔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좌석을 유료화하고 수익금 전액을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티켓은 지정석 3만원 자율석 1만원으로 현재 지정석 6백석은 매진 상태다.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은 "단순한 음악회를 떠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아프리카 말라이 기술학교 건축 비용 지원, 스노우보드 청소년 육성 등에 힘써왔다. 이번 콘서트 수익금 역시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취지를 전한다.



장사익, 박완규, 정율스님 등이 출연하며 비보이 등의 공연도 이어진다. 공연전에는 장학금 및 환자지원금 전달식도 진행된다. 호산 스님은 "이번을 계기로 꾸준히 장학사업이 진행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 청소년 꿈나무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031)773-3797

덕주사 종교평화 음악회

월악산 덕주사가 9월 8일 경내 마당에서 '제 6회 종교평화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한영애, 뉴트라팝스오케스트라, 최현아, 마하연 합창단, 김영수 신부(기타 연주)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덕주공주 다례재 및 육법 공양, 종교 평화 합창 공연에 이어 산사음악회로 이어진다.

원적정사 산사음악회 펼쳐

깊어가는 가을 원적정사가 9월 1일 오후 7시 원적정사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펼친다. 이번 음악회에는 김수희 이광조 임지훈 최현아 니르바나합창단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 등이 참여하며 여현아 씨가 사회를 맡아 대중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운송 (경남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서구 약사사)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혜공.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법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감 찰 부 장 서암 (부산 북구 만덕 약수사)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경남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경남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삼국유사 명쾌하게 읽어주는 책



불국토를 꿈꾼 그들
정민 지음
문학의 문학 펴냄
1만8천원

〈삼국유사〉를 읽어준다. 알듯 말듯 난맥처럼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불교를 중심축으로 하여 활발한 상상력과 명쾌한 지적 추리력으로 파헤쳐나간다. 책 읽어주는 책이다.

〈삼국유사〉는 단군 조선에서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고전이다.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의 역사와 과거의 문화를 알게 해주는 소중한 사료다. 이런 〈삼국유사〉는 1972년에 완역본이 출간된 이래 많은 관련 연구와 출간이 있어왔다. 끊임없이 들여다보게 되는 텍스트인 것이다.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텍스트인 것이다. 그것은 저자인 일연 스님의 독특한 언어가 지닌 탄력 때문일 것이다. 현실과 비현실을 허물고 넘나드는 노련한 그의 언어로 인해 후대의 독자는 그 변화무쌍한 스펙트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불국토를 꿈꾼 그들〉은 그런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은유된 언어들을 읽어준다.

"백제에 미륵사가 있었다면 신라엔 황룡사가 있었다. 황룡사는 신라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두 가람의 중앙에 우람하게 솟았던 9층 목탑에는 어떤 염원이 담겼나? 전불(前佛)시대의 가람터란 무슨 뜻인가? 부처들이 여기저기 땅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고, 불상과 탑과 종의 규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황룡사지 장륙삼존대좌와 심초석. 사진중앙부 9층 목탑지 중심에 놓여 있는 큰 돌이 가섭불연좌석이라는 설이 있다.

만큼 커졌다. 신라와 백제는 왜 전쟁 중이었음에도 엄청난 물력을 쏟아 부어가면서 대규모 사찰 건립에 경쟁적으로 몰두했을까? 그 속사정이 궁금하다." 책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사람들 의식에 불교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다각적인 기술과 흩어져 있는 의미의 재조합 등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 제4. '탑상' 편에는 가섭불의 연좌석 이야기가 나온다. 신라인들이 말했던 불국토의 중심축 황룡사와 9층탑 이야기다. "신라 월성 동쪽 용궁 남쪽에 가섭불의 연좌석이 있다. 그 땅은 바로 전불시대의 가람터다. 지금 황룡사의 땅은 이 일곱 가람의 하나다. 국사를 살펴보니, 진흥왕 즉위 14년(533),

기원전 인도를 출발한 아쇼카의 배
1300년만에 신라의 땅에 도착

개국3년 계유 2월에 월성 동쪽에 신궁을 세우는데, 황룡이 그 땅에 나타나므로 왕이 이를 의심하여 고쳐 황룡사라 하였다. 연좌석은 불전 뒷면에 있다." 이어지는 '장륙존상(丈六尊像)' 이야기다. "얼마 되지 않아, 바다 남쪽에서 한 척의 큰 배가 하곡면의 사포로 와서 정박했다. 살펴보니 첩문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있었다. '서축(인도)의 아육왕(아쇼카왕)이 황철 5만7천 근과 황금3만 푼을 모아서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배에 다 실어 바다로 떠내려 보내며 빌었다. 원컨대 인연 있는 나라 땅에 이르러 장륙의 존용을 이루소서' "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어디서도 주조하지 못한 장륙존상을 신라는 단 한 번에 완성한다. 책이 〈삼국유사〉를 다시 읽어준다. "기원전에 인도를 출발한 배가 그 많은 크고 작은 나라와 8만 개의 촌락을 거쳐 약 1300여 년 만에 신라 땅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니, 사실의 언어로 받아들일 일은 애초에 못 된다. 결국은 인도의 아쇼카 왕의 염원을 이어 신라 땅에서 장륙존상을 조성해 전불시대의 가람터에 봉안했다는 의미만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일연 스님은 이중 삼중으로 관련 문헌 근거를 반복 배치함으로써 황룡사 9층탑이 갖는 영험을 부각시켰다. 또한 황룡사 창건에서 9층탑의 건립에 이르는 90년의 대역사가 오로지 부처님의 섭리에 의해 전불 시대의 자취를 되찾고, 국태민안의 염원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음을 밝힌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90년의 역사를 그렇게 잡아놓았던 것이다. 〈불국토를 꿈꾼 그들〉이 다시 읽어준다. 18세기 문화를 꾸준히 탐구해 왔던 저자는 삼국유사엔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한다. "승려이자 당대의 지식이었던 일연 스님은 고문헌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발로 뛰는 현장 탐방 등으로 자료에 신빙성을 더하고, 개개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정보의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되도록 장치해 두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 지향하고 있으며, 곳곳에 의미의 발화점을 숨겨놓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예민한 촉수가 우리를 그 곳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저자 자신조차 수수께끼를 던지며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고전 읽기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5~8/2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산사는 깊다	지안	불광출판사
8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9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10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지장보살 신앙성과 다라니 유용성 밝히다

지장보살다라니수행법, 지장보살신앙 연구

무통 스님 지음 | 해조음 펴냄 | 3만원



〈지장보살신앙 연구〉는 저자 무통 스님이 2012년 봄 위덕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기존의 통념적인 지장보살의 이해를 넘어 위경 논란에서 벗어난 〈대방광십륜경〉, 〈대방등대집경〉, 〈대승대집지장십륜경〉을 토대로 지장보살의 원류적 신앙성을 밝혔으며, 한 질로 묶여 출간된 〈지장보살다라니 수행법〉은 보살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라니의 유용성에 대해 집중했다.

명부세계의 교주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을 영겁도록 제도하겠다는 비원(悲願)을 세운 지장보살의 대원은 그 원의 크기가 대승불교의 모든 보살 중에서도 으뜸이다. 그런 지장보살을 신봉하는 지장보살신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신봉되어 온 보살신앙 중의 하나로서 〈대승대집지장십륜역〉 10권, 〈지장보살본원경〉 2권, 〈점찰선악업보경〉 2권 등의 경전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신앙이다.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신앙은 신행 차원보다는 지장보살의 본원력에 따라 조상들의 사후(死後)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 동안의 지장보살에 대한 많은 논저와 연구들 또한 대부분 민간신앙과 결합된 형태의 차원이거나 무속신앙과의 혼재 속에서 다뤄진 단편적인 성과에 불과했다. 〈대방광십륜경〉과 〈대방등대집경〉, 〈대승대집지장십륜경〉을 일차적 전거로 삼은 〈지장보살신앙 연구〉는 지장보살의 대원행과 다라니문을 경전과 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장보살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성을 밝혔다. 지장보살의 정체성에서는 '극락왕생의 직전 지대, 즉 예토와 명부의 유정들을 성숙시켜 정토왕생의 조건을 완성해 주는 보살'이라고 정의하며 기존의 범 정토 신앙과는 거리를 두었다. 지장보살신앙의 본의를 정립했으며, 지장보살 관련 경전에서 설하는 다라니의 의미를 밝혀 지장보살 신앙의 여러 의례가 교리적 의미를 상징하는 형식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장보살다리니수행법〉은 대승경전들의 다라니에 대한 기능과 의미의 변화과정에서 대승불교의 교법을 수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이를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라니의 의미와 기능을 설하고 있다.

다라니(陀羅尼)는 경전의 내용이나 불법, 불, 보살에 대한 염원 등을 함축한 구절의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총지(總持) 능지(能持)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라니의 어원은 '기억하다', '간직하다', '집지하다' 등의 뜻을 가진 범어의 어근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라니는 불경의 내용을 억지(憶持)하여 잊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염송함으로써,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고 지혜를 기르는 출세간의 공덕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다라니가 지닌 공덕은 세간의 공덕을 지향하는 주문의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다. 초기의 대승불교에서 경전을 수지, 독송, 억지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실천자인 보살의 실천덕목으로, 보살들은 경전의 독송과 억지로 인해서 해탈을 위한 출세간의 공덕과 치병, 증재 등의 주술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었다. 책은 대승경전들에서의 다라니에 대한 기능과 의미의 변화과정에서 대승불교의 교법을 수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이를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라니의 의미와 기능을 설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 분리될 수 없는 양극단

선과 악의 얼굴

스티븐 배철러 지음 | 박용철 옮김 | 소담출판사 펴냄
1만3천8백원



부처님이 나란자라 강둑 위에 살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 명상 수행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때 마라(魔羅)가 부처님에게 다가가 연민에 가득 찬 얼굴로 말을 걸었다. "그대는 너무나 야위고 창백해 보이는군요." 그러고는 다시 말했다. "이러다간 곧 죽고 말 것이오.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 삶을 살며 선업을 많이 행할 수 있을 테니 말이오!" 티베트에서 8년, 한국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4년간 선불교를 공부한 영국의 불교학자 스티븐 배철러의 '선'과 '악'의 탐구와 해석이다.

부처님이 말했다. "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너의 군대를 본다. 마라여! 만약 온 세상이 모두 너에게 굴복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는 돌멩이로 구워지지 않는 그릇을 깨버리듯, 지혜의 힘으로 너의 군대를 그렇게 박살낼 것이다."부처님이 유혹을 물리치자 마라의 힘은 무용지물이 됐다. 부처님은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함께하되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마라는 쓸쓸히 독백한다. "고타마와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붓다는 없다〉와 〈연꽃 속의 보석이여〉의 저자는 불교 경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불교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종교 단체나 학문에 얽매이지 않고 불교적 무신론자이자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다. 저자는 불교적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인 선과 악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인간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했다.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 세상의 혼돈과 갈등 등 모든 고통의 근원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악마'의 지배 때문이라고 보고, 그 악마를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 세상은 왜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을까? 저자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세상의 고통은 악마의 지배 때문'이라고 답한다. 오랜 세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불교에서의 악마, 즉 '마라'란 선과 동일한 존재에서 나타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극단임을 설파한다. 이렇듯 인간의 삶을 지배해온 악마와의 동거가 숙명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악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에 이르는 거의 모든 종교와 신화, 보들레르, 카프카, 막스 베버 등의 문학, 사회, 철학, 심지어 진화 생물학 등을 종횡무진하며 선과 악의 패러다임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박재완 기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동의보향 무료 향기 체험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화주시면 바로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택배비용 본사부담)

동의보향 덤 증정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시 수량별 추가 덤 증정
(전제품 선물용 쇼핑백 포함)


동의보향 복주머니
(12x19cm, 100g)

동의보향은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동의보향은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공간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천연향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좌선과 명상은 위대한 뇌훈련법”



선과 뇌
아리타 히데호, 겐유 소큐 지음
이성동 번역
운주사 펴냄
1만3800원

여기 저기서 ‘힐링’ 바람이 거세다. 방송이나 출판 등 힐링 관련 주제로 넘쳐난다. 유독 지금처럼 전 사회적 화두가 된 것은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다는 반증이다.

이런 인간의 ‘고’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불교다. 불교의 태생 자체가 인간의 ‘고’에 대한 자각과 그 해결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참선은 불교 기본 수행법 중 하나다. 따라서 당연히 이 둘도 힐링의 유효한 방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위나 경험칙을 넘어 과학적 입증이 요구된다.

이 책은 각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좌선의 문제에 천착해 온 의학자와 수행자가 과학적 근거와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좌선과 명상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논한 대담집이다. 특히 생리학자인 아리타 교수의 연구 분야는 ‘좌선과 뇌간의 세로토닌’으로, 그는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는 세로토닌 신경이 쾌락에 관여하는 도파민 신경과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대뇌와 자율신경의 작용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좌선이나 명상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그것이 이뤄지는 경로와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 세로토닌 신경세포는 주로 뇌간에 분포돼 있으며, 한정된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조절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특수한 신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뇌간은 언어 · 이성 · 판단 · 의식 등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에 작용해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 뇌간(세라토닌)과 대뇌피질은 서로 대비 관계에 있다. 즉 뇌간(세라토닌)이 활성화되면 대뇌피질이 억제되고, 반대로 대뇌피질이 활성화되면 세라토닌이 억제되는 것이다.

좌선이 뇌에 미치는 영향 대담집
“좌선 세라토닌 활성화에 효과
몸과 마음 편안히 해준다” 결론

대뇌피질 활성화는 좌뇌 활성화를 말하고, 이는 의식의 각성상태이다. 반대로 세라토닌 신경계 활성화는 좌뇌를 쉬게 하는 것으로, 이는 언어기능과 생각, 논리적인 사고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뇌간 활동을 우위로 만들고 반대로 대뇌피질을 바보로 만들어 뇌간 중심이 되는 몸의 상태, 즉 언어와 이성 기능을 쉬게 하는 것이 좌선과 명상이라고 겐유 스님은 말한다.

아리타 교수는 호흡, 씹는 것, 보행이 뇌간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한다. 그 세 가지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해 대뇌피질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통증 억제 작용까지 한다고 한다. 즉 좌선과 호흡법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복식 호흡을 시킨 후 뇌파를 측정한 결과, 깨어 있을 때 뇌파인 베타파서 서서히 알파파가 나오는 것이 관찰됐다. 이는 대뇌피질 활동이 억제돼 이런저런 생각을 쉬고 마음이 안정돼 간다는 의미다.


심신 건강을 위해 좌선과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아리타 교수의 실험에서, 진언(眞言) 등 그냥 운율을 따라 읊게 한 경우에는 알파파가 많이 나왔는데, 교리가 해석된 불경을 읽게 한 경우에는 알파파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에는 좌뇌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타 교수는 불경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운을 밟아 읊는 게 몸과 마음에 좋다는 색다른(?) 결론을 도출해 냈다.

마지막으로 겐유 스님은 좌선이든 염불이든 절이든 리듬 운동이든, 반복을 권한다. 반복은 종교적인 ‘행’이고, 반복함으로써 언어 뇌가 점점 쉬게 되어 생각이 감소하고 의식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식 집중이 세라토닌을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아리타 교수의 실험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생리학자와 선승의 대담은 ‘좌선과 명상, 그리고 리듬 운동은 뇌를 정화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상쾌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끝맺는다. 이들은 이 대담에서, 기와 꿈, 마음의 문제, 세로토닌과 호흡법과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 번뇌와 세로토닌, 깨달음과 세로토닌, 선이 몸과 뇌에 좋은 이유 등의 주제에 대해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를 풀어나간다.

보이는 것, 증명 가능한 것만을 추구하는 과학자와 보이지 않는 것,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저자의 입장은 때로 상충될 때도 있다 하지만 서로 보완관계를 이루며 좌선과 명상 효과에 대해 의견 접근과 공감을 이루어 간다. 김주일 기자

–아리타 히데호(有田秀穗)는?

1948년 동경 출생.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동해대학 병원서 호흡기를 전문 진료했다. 쓰쿠바대학 기초의학교실서 뇌신경 기초 연구에 매진한 후, 뉴욕주립대에 유학했다. 1996년부터 동방대학 생리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세로토닌 결핍뇌〉 〈우울증과 키레루(キレる)를 치료하는 훈련〉 등이 있다.

–겐유 소큐(玄侑宗久)는?

1956년 후쿠시마현 출생. 게이오대 중국문학부를 졸업하고 여러 직업을 체험한 후 교토 천용사 전문도량에 입문했다. 현재는 임제종 묘심사파인 복취사 부주지로 있으면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중음의 꽃〉으로 제 125회 아쿠다카와(芥川)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물의 축선〉 〈선적 생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염불선… ‘자심즉심’ 알고 행하는 것

초기선종 동산법문과 염불선

박건주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3천원



“대저 수도의 체를 말한다면 자심의 당체가 본래 청정하며, 불생불멸하고, 분별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성이 원만한 청정심이라는 이 지견이 곧 본사(本師)이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염(念)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수심요론〉중에서”

염불 법문은 원시불교에서부터 설해져 왔고, 교의 진전에 따라 여러 차원의 행법이 펼쳐졌다. 근래는 염불선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널리 유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염불선이 어떠한 행법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뚜렷한 이해를 갖지 못한 듯하다.

달마대사를 초조로 하는 중국 선종은 제 4조 도신대사와 제 5조 홍인대사의 이른바 동산(東山)법문에서부터 염불 법문을 펼쳤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방편의 칭명(稱名) 염불과 염념상속(念念相續) 행 내지 관행(觀行)으로서의 염불행을 아우르면서 궁극에는 달마대사 능가선(楞伽禪)에 의해 성취하는 길을 개시(開示)한 것이다. 그래서 ‘염불’이 아니라 ‘염불선’이라 할 때는 능가선으로서의 염불선을 말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뜻을 도신 대사의 〈입도안심요방편법문〉과 홍인대사의 〈수심요론〉 〈능가사자기〉에 전하는 〈능가인법지〉의 글 등에서 뚜렷이 살필 수 있다.

이 책은 1세기 전 돈황서 새로 발견된 법문 원문을 역주 해설하면서 능가선으로서의 염불선이 어떤 행법인가를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능가선은 초기 선종기서부터 난해한 법문으로 정평 나 있다.

따라서 본서에 어려운 법문이 나오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문 논리를 따라 들어가면 이치로 들어가는 길(理入)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근래 ‘염불선’이란 용어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법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뚜렷이 알지 못한 채로 행해지고 있다. 여러 경론서 염불선이라 불리는 여러 행법이 소개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만 염불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소승서 설하는 염불선이 있고, 대승서 설하는 염불선이 있으며, 여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논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단지 달마대사를 초조로 하여 이루어진 선종에서 설하는 염불선에 대해 설명하는데 머무른다.

저자 입장에서는 초기 선종 법문에서 보이는 염불선이 최상승의 원만한 염불선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선지(禪旨)가 심오하고 현묘해 올바로 알아 행하는 이가 드물게 되고, 나중에는 왜곡 내지 곡해돼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먼저 초기 선종에서 설하는 염불선의 뜻을 밝히고, 후대에 다른 방향으로 엇갈린 모습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진정한 염불선이 정립되어 널리 유포되길 바라는 것이 저자의 원력이다.

초기 선종에서 설하는 염불선은 자심(自心)이 즉심(卽心)임을 알고 행하는 선법이다. 당념 당처의 심성(心性)이 불가념(不可念)이고, 무심

초기 선종 염불선 법문 소개
분별 떠나 무심이 진정한 염불
〈광륜〉에 소개된 것 수정 보완

임을 먼저 뚜렷이 알아야 행해지는 선법이다.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행이나 어떤 대상에 전념하는 행이 아니라 당념 당처의 즉심(卽心)서 본래(無心)임을 알아 즉심에 무심하는 행이다. 즉 마음을 아무데도 둠이 없이 있는 것이 곧 진정한 염불(念佛)이고 염불선(念佛禪)이다.

염념상속(念念相續)의 행은 수행의 공통사항이지만 어떤 상태로 염념상속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마음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 집중하며 염념상속하는 행은 아직 최상승선(달마선)의 선리를 알지 못하는 행이다. 대승의 수많은 경론과 초기 선종 법문에서 다각도로 자성불(自性佛) 법문을 간곡히 펼친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

한편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계간 〈광륜(光輪)〉지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재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강릉 성원사 주경스님(2010년 입적)의 요청으로 집필한 〈염불선이란 무엇인가〉를 후편으로 붙여서 결론과 요약, 후대 전개사를 기술했다.

김주일 기자

마음 다스릴줄 알면 바로 ‘행복’

자비의 힘

파멜라 블룸 지음 | 이상목 번역
돈을 새김 펴냄 | 1만원



흔히들 ‘세상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마음먹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20년간 명상 수행과 불교에 대해 연구해온 파멜라 블룸은 완전한 행복의 비밀을 깨우친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으며, 행복을 ‘의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저자는 그들이 찾은 비법을 공유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저자는 내면의 자비심을 깨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티베트 불교에서 가르치는 명상법을 권한다.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명상 수행은 자기 자신의 평안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타인의 고통을 껴안고 전체의 평안과 행복을 구하기에 이른다. 이 책에 등장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명상을 활용하여 자비라는 본성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슬픔과 불안의 뿌리를 제거하고 행복의 근원을 발견하여, 감히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평온과 행복을 얻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행복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동기를 부여한다. 김주일 기자

과학적 근거 제시한 호흡 수련법

호흡수련과 기의 세계

전영광 지음 | 좋은 땅 펴냄 | 2만4천원



“입으로 길게 숨을 토하게 되면 몸 안의 압력이 현저히 낮아져 코로 들이키는 호흡”이 저절로 되고, 책을 읽거나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다. 3분여 만에 입안이 마르고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은, 혈관을 막고 있는 노폐물을 태우기 때문이다.

고답적이고 어렵기만 하던 기의 세계를 과학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저자는 〈호흡수련과 기의 세계〉를 통해 선도수련과정에서 야기된 시행착오와 좌절, 실패의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책은 지난 1997년 1권 이후 3권까지 출간되는 동안 교보문고의 건강의학 분야 베스트셀러 4위와 7위로 선정되는 등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제 4권은 저자가 40여 년에 걸친 선도수련의 경험 아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질환해소 호흡법이란 주제로 호흡수련에 대해 쉽게 풀어냈다.

이 밖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선도수련과정서 야기된 시행착오와 좌절, 실패의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해 독자들의 공감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고답적(高踏的)이고 어렵기만 하던 기(氣)의 세계를 과학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34㎝


육각초 7.0ƒ× 34


연화 大 9.5ƒ× 11㎝, 연화 中 9ƒ× 10㎝, 연화 小 7ƒ× 6.5㎝

밀납연화 小 7ƒ× 6.5㎝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혜숙과 혜공이 세속과 함께 한 까닭은?

생명체에 자비를…생사 자재한 삶 지향

화광과 동진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그 법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이다. 여기서 '도는 고금의 으뜸[道冠古今]이며 덕은 천지의 짝이다[德配天地]'는 뜻이다. 윤리는 공동체라는 동아리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원리이다. 때문에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추방되게 마련이다. 생활공동체 혹은 수행공동체인 상가에 출가한 성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평등과 화합의 공동체인 상가를 구성하는 출가자들에게는 엄격한 계(戒)와 율(律)이 정해져 있다. 계와 율은 구속일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계와 율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자 남을 지키는 일이다. 계와 율이 구속이 아니라 대자유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면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계와 율은 출가자의 존재이유이자 재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이기도 하다.

불교 전통에서 보면 출가자는 계와 율을 수지를 목숨의 수지로까지 여겼던 실례들이 적지 않다. 계는 오계로부터 팔계(팔관재), 십계, 이백 오십 계 또는 삼백 사십 팔계 혹은 오백계로 확장된다. 때문에 오계만 지켜도 절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정한 수행력을 획득한 뒤에 계와 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았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허공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체(戒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계에 붙들리지 않고 계상(戒相)과 계용(戒用)에 의해 보살행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불교 전통에서는 신라시대 서민불교의 문을 연 혜숙(惠宿)과 혜공(惠空) 및 대안(大安)과 원효(元曉) 등과 같은 자유인이 있었다.

혜숙과 혜공의 생평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해」편 '이혜동진' (二惠同塵) 조목에 실려 있다. 일연은 이들 두 사람의 가풍을 『노자』 4장의 '화기광 동기진' (和其光, 同其塵)에서 따와 '동진'으로 조목 이름을 붙이고 있다.

깨침을 얻은 이는 "그 빛을 조화시켜서 그 티끌세상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혜숙과 혜공은 너무나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계체 위에서 세상을 따르는 계상과 계용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전생의 석가보살이 자신의 살점을 떼어 비둘기의 목숨을 대신하려 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은 보살의 대비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혜숙 선사

혜숙은 화랑이었던 호세랑(好世郎)의 무리였으나 자취를 감추고 적선촌에 이십 여년을 숨어 살았다. 때마침 국선(國仙)이 교외에 사냥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혜숙이 길에 나와 말고삐를 잡고 청하였다. "소승도 따라 가기를 청합니다." 구참이 허락하였다. 혜숙이 옷을 벗어젖히고 종횡으로 내달리자 구참은 매우 기뻐하였다.

잠시 쉬는 동안 그들은 고기를 삶고 구워먹었다. 혜숙도 같이 먹으면서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앞으로 나아와 말하였다. "지금 더 좋은 고기가 있으니 더 드시겠습니까?" 구참이 좋다



혜숙 선사 영정(오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고 하였다. 혜숙이 딴 사람을 물리치게 하고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소반에 바쳐 올렸다. 옷에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구참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러는가?" 혜숙이 말하였다. "처음에 공이 어진 사람이라 나를 용납해 주고 만물에 통달하였다 여겨서 따랐소. 그런데 이제 공을 보니 살육을 탐하고 남을 헤쳐 자신의 몸 살리기에만 성실할 뿐이니 어찌 어진이나 군자가 할 일입니까? 공은 우리와 함께할 무리가 아닙니다." 혜숙은 옷을 털고 가버렸다. 구참은 크게 부끄러워 하였다. 혜숙이 먹던 것을 살펴보니 소반에 담았던 고기가 조금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남의 악한 행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법력(法力)을 갖추어야만 한다.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혜숙은 계와 율의 체화(體化)를 통해 우러나온 수행의 힘으로 보살행을 할 수 있었다.

계에도 붙들리지 않은 자유

'계에도 붙들리지 않은' 혜숙의 보살행은 사람들에 의해 곧바로 신라 조정에 알려졌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진평왕은 사신을 보내 혜숙을 맞아오라 하였다. 사신이 오자 혜숙은 어느 여인과 함께 자리에 누워 있었다. 사신을 여인과 함께 누워있는 혜숙을 보고 더럽게 여겨 돌아갔다. 사신이 혜숙의 처소를 떠나 7, 8리쯤 되는 곳에서 혜숙을 만났다. 그는 혜숙에게 오디서 오느냐고 물었다. 혜숙이 말하였다. "성안에 보시하는 집에서 7일 재(齋)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오." 사신이 그 말대로 진평왕에게 아뢰었다. 임금은 사람을 시켜 보시한 집을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를 해 보니 사실이었다. 그 뒤 오래지 않아 혜숙이 갑자기 입적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현(耳峴)에 장사를 지냈다.

때마침 그 마을 사람이 이현 서쪽에서 오다가 혜숙을 만났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오래 살았으니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오." 두 사람은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 마을 사람은 혜숙이 반리쯤 가더니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현 동쪽에 오다가 혜숙을 장사지내려 모인 사람들을 만나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였다. 그들이 무덤을 헤쳐 보자 짚신 한 짝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그는 삶과 죽음[生死]에도 자유자재하였다. 경주 안강현 북쪽에는 그가 머물렀던 혜숙사가 있었고 그곳에 부도가 있었다고 한다. 일연은 그의 보살행을 기려 "들판에서 사냥하고 여인과 누웠다가/ 짚신 한 짝만 남겨 놓고 어느 공중으로 갔는가"라는 찬시를 남기고 있다. 이어 또 그를 혜공과 함께 '세속의 불

신라 서민불교 문연 두 선사
혜숙, 왕 육식 보며 자기살 올려
계율 체화 힘으로 보살행
생사 경계에서도 자유자재

속에서도 타지 않은 보배로운 연꽃' [花中蓮]이라고 기렸다. 욕망의 불꽃조차도 그의 계체(戒體)를 태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유 자재하였다는 말이다.

혜공 선사

신라 서민불교의 기수인 혜숙과 짝을 이루는 혜공은 천진공(天眞公)의 집에서 고용살이 하던 할미의 아들(憂肹)이었다. 일찍이 천진이 종기를 앓아서 거의 죽게 되자 문병하러 오는 이가 길을 메웠다. 그때 일곱 살이었던 우조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집에 무슨 일이 있기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주인 어른의 병이 악화되어 장차 죽게 되었는데 너는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우조가 말하였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히 여겨 천진에게 말하였다. 천진이 우조를 불러오라 하여 병상 앞에 앉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후에 종기가 저절로 터졌다. 천진은 우연이라 여겨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사이 우조는 장성하여 천진을 위해 매를 기르는데 그의 마음에 썩 들었다.

일찍이 천진의 아우가 관직을 얻어 외지에 가면서 그에게 매 한 마리를 임지에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 주었던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공이 갑자기 그 매 생각이 나서 내일 새벽에 우조를 시켜 가져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조는 벌써 주인의 뜻을 알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그 매를 가져와 천진에게 바쳤다. 천진이 크게 놀라 비로소 전에 종기를 낫게 했던 일도 신기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말하였다. "내가 지성(至聖)하신 분이 우리 집에 의탁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릇된 말과 예 아닌 일로 욕을 많이 보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스승이 되시어 저를 인도해 주소서." 드디어 천진은 우조에게 절을 하였다. 우조는 자신의 영험이 이미 드러



혜공 선사 영정(오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났기 때문에 결국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이름은 혜공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세간을 따른 이유

혜공은 늘 한적한 절에 있으면서 매양 삼태기를 짊어지고 술에 취하여 미친 듯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부궤화상' (負簣和尙)이라 하였고 그가 있는 절을 부개사(夫蓋寺, 부개는 삼태기의 신라말)라 하였다. 또 그가 부개사 우물 속으로 들어가면 몇 달씩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우물의 이름을 혜공이라 하였다. 우물 속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푸른 옷을 입은 신동이 먼저 솟아나왔다. 해서 절의 승려들은 그가 나올 때를 짐작하였다. 하지만 우물에서 나와도 옷이 젖지 않았다. 그는 만년에 항사사(恒沙寺, 현 吾魚寺)로 옮겨 머물렀다.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를 '항사성인' (恒沙聖人)이라고도 불렀다. 그때 원효(元曉)는 여러 불경의 소(疏)를 짓다가 의심이 나면 혜공에게 가서 물으며 가끔씩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원효와 혜공이 개천에서 고기와 새우 등을 잡아먹고는 돌 위에 똥을 누었다. 혜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네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 이 때문에 오어사라고 이름지었다. 일찍이 구참공이 산에 유람갔다가 혜공이 산 속에서 죽어 썩은 시체에 벌레난 것을 보고 한참 슬퍼하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자 혜공이 크게 치하여 저자에서 노래하면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하루는 새끼줄을 가지고 영묘사(靈廟寺)에 들어가 금당과 좌우 경루(經樓)와 남문의 낭무(廊廡)를 둘러 묶고 강사(剛司)에게 이르기를 "이 새끼줄을 반드시 3일 뒤에 풀라"고 하였다. 강사가 이상히 여겨 그대로 하였다. 과연 3일 만에 선덕여왕(善德女王)의 어가가 행차하였다. 지귀(志鬼)가 불을 질러 탑을 태워버렸으나 오직 새끼줄을 둘러 맨 곳만 화재를 면하였다.

또 신인종(神印宗) 조사(祖師) 명랑(明朗)이 금강사(金剛寺)를 새로 짓고 낙성연(落成演)을 베풀었다. 모든 고승들이 모였지만 오직 혜공만이 오지 않았다. 때문에 명랑이 곧 향을 피우고 빌자 조금 있다가 혜공이 왔다. 때마침 큰 비가 왔는데도 혜공의 옷은 젖지 않았고 발에는 흙도 묻지 않았다. 혜공이 명랑에게 말하였다. "은근히 부르기에 왔소." 그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자취가 있었다. 임종할 때는 공중에 높이 뜬 채로 입적하였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리가 나왔다. 일찍이 승조의 『조론』(肇論)을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것이다." 일연

혜공, 어려서부터 영험함 보여
거리에서 노래 춤 즐기며 보살행
임종할때는 공중에 뜬채 입적
혜숙과 혜공 계체 무너지지 않아

은 이 일을 근거로 혜공이 승조법사(僧肇法師)의 후신(後身)인 것을 알겠다고 하였다. 일연은 혜공의 보살행을 "술집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우물에서 잠을 잤네"라며 기리고 있다. 또 혜공을 혜숙과 함께 보배로운 '세속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보배로운 연꽃' [花中蓮]이라고 기렸다. 욕망의 불꽃조차도 그의 계체를 태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유 자재하였다는 말이다.

삶과 죽음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수행해야 하는가.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생유와 본유와 사유와 중유의 삶을 살아간다. 때문에 이 반복되는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고' [持戒] '율을 지키기' [持律]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유혹과 갖은 경계에 불들리지 않고 자유 자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체(戒體)에 대한 확고부동한 체화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삶의 매듭과 죽음의 매듭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조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혜숙과 혜공의 계체는 그 어떤 욕망의 불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보살은 '계율'이라는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자비'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채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다가가는 존재이다. 혜숙과 혜공은 '세속으로 나아가기' [同塵]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날을 정진하였까. 동시에 우리는 세속에 나아가기 위해 얼마만큼 정진하고 있는가 되물어 본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한길사, 1997; 2002; 2009).
고영섭, 『원효탐색』(연기사, 2002;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석에서 나온 금강석이 광석을 자르듯이 자기가 저지른 악업이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자기가 저지른 악업이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넝쿨이 자기가 기댄
나무를 휘감아 말려 죽이듯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 법 구 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초 능 력 개 발
초능력 개발 비법 전수
– 초능력 개발사업 하실 분에 한함
– 신내림에 실패하신 분에 한함
오십견 치료 (1~5회 완치)
치료비법전수
010-5822-076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당 유무선 마이크
설치될 법당에서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가능합니다.
도시형 100만원 전후
전통목조사찰 200만원대
특허등록업체 한성음향
010-4440-868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적은 보시금으로
의식에 필요한
사물 다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법고,태징,북,목탁,요령 등
010-3657-6302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천도재, 49재,
바라무, 점안식 등
아주 저렴하게
집전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010-4193-1707
철학 1개월 수강으로
개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891-1051
051)891-72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7139-8631
010-9127-633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성남, 65세 이상)
010-8894-398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농사지을 관리
처사님도 함께 모십니다
(곡성 태안사)
(보시금 상담 후 절충)
010-8617-636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 주)
017-206-0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합천)
010-9506-5706

심 와 기 도
• 삼생에서 지은 죄와 빚을 아우러서 지우는
영통기도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경북 문경
경기도 여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 십 니 다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기도스님
모십니다
(마산)
055)248-2644
011-597-35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
010-4727-0311
031)965-2807

모 집
예비 승려를 모집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 여권용 사진 2매 (60세 이하)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60세이하, 숙식가능한 보살님 (부부도 가능함) 급여 상담 후 결정
(용인시 수지구)
031)262-0606 / 010-8930-157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시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동국대학교평생교육원 육임학강좌
국가사. 기업사. 인간사에서 최고적중률의 육임!
국가 및 기업체 운영자에게는 제갈공명의 지혜를,
인생상담업 종사자에게는 정확한 피흉추길을,
일반인에게는 생활에서의 지혜를 갖추게 한다.
• 강사 : 이우산 (육임입문 저자) / 초급반 9월 3일(月) 개강
• 수강신청 : 02)2260-3728-30 (동국대)
• 강좌문의 : 02)816-2115 (이우산)

불교전문 교정인을 찾습니다
불교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교정, 윤문 전문인을 모십니다. – 재택근무 –
간단한 테스트 후 교정료 결정
전문가로서 경험있는 분만 전화 요망
한국불교대학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 납골당 신축, 증축 전문 시공사
– 결로방지 100%. 온난방 100% .환기 100% . 인테리어 100%
■ 안치대 설치 전문 업체
– 황금색 스텐 안치대. 원목 안치대. 주물 안치대 . 강화유리 안치대 .
■ 성심 시공사의 안치대 명성
– 성심시공. 믿음시공. 완벽시공. 심플시공 . 엄숙경건. 최상의 인테리어
※ 꼼꼼한 판단과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010-3390-116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0-3618-6061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약수선원
- 주 지 : 오성(정영훈)
- 승려번호 : 0782-090
- 주 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 2리 84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 개강일 :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2. 수 업 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5. 강주스님 : 현공스님 (010-4783-0077)
6. 접수기간 : 상시모집 (전화접수 가능)
7.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 없이 가능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 / 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고 려 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평생 불교사업을 원하시는 분께 특별히 소개하오니 뜻이 있는분 의심마시고 연락바랍니다.

02)2233-2050
010-8808-1797

불자정보 26 | 903호 | 전면광고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76평
- 요사 : 146평
- 부지 : 51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전남 남원
- 법당 : 23(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19,000평
- 가액 : 9억

- 위치 : 경남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11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 대지 980여평
- 임법당, 요사채 1~2층. 50평
- 별채 10평. 연못 1개
- 가액: 3억 5천만원

010-8660-9449
011-779-9565

시골집안내

- 위치: 충북 영동 추풍령
- 대지 100평, 건물2동
- 무료임대, 수리비 약간
- 시골생활 및 수행하실 분

043)745-8186
010-2101-818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530평
- 법당 : 25평
- 요사 : 70평
- 가액 : 1억 7천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7억 (은행 3억 가능)

아름다운 대사찰

- 총부지 : 약 4700평
- 목조법당 42평(목조 와가건물 8동)
- 명부전, 나한전, 산신각, 요사책
- 대종각, 대법고, 주차장 500평
- 총가액: 30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 부지: 650평, 법당 30평
- 요사 50평
- 차량진입
- 산과 호수가 있는곳
- 가액: 7억 7천만원

010-4586-4525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 국가지정 문화재 거대 마애불(보물)
- 시내중심 최상의 불사조건
- 영험한 마애불상 주변 평지 같은 임야 8500평 중 잡종지로 전환 가능한 땅1000평
- 가액 : 20억

010-5012-2238

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유원지 부근
- 임야 : 3만 5천평
- 현재 한옥 2채 현재 임법당 운영
- 사찰 및 연수원 양로원 적합
- KT서원주역 10분거리 청량리역에서 30분거리, 통신광케이블 도로포장
- 평상 7만원 절충가능

010-2554-6727

토 굴 안 내

- 청청바다가 보이는 토굴
- 위치: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 삼존불, 각단탱화, 공양간, 산신각
- 현재 운영중
- 가액: 8천 5백만원
- 평수 약 130평

010-8643-5235

수호공인 삼보기획

절집안의 부동산은 삼보기획에서 확실하게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은 생명, 법률,세무, 무료상담 환영합니다.
양도,전,월세,경매,분양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연락주세요.

010-6722-2211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이마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011-809-7434주인직접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평수: 4층 건물에 2,3층 사용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700만원, 상담후 결정

010-8390-6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
- 법당 (종교집회장 25평, 요사 (한옥1동)25평
- 산신각 5평, 공양간 20평 (조립식), 심야보일러
- 용궁있음, 법당, 요사 등기필 (공시지가 2천 8백만원)
- 사용대지 약 3천평 (연 임대료 60만원)
- 가액 : 4천 7백만원

010-6470-141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가
- 대지 80평, 요사채 실평수 30평
- 법당 15평
- 가액: 1억 7천만원
- 주인직접, 절충가능함
- 전세, 월세도 가능합니다
- 꼭 하실분 전화주세요

011-792-896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 도시권 지목: 임야 자연녹지지역
- 치악산조망 주변혐오시설 없음
- 도접 : 전기 상상외 싼 땅 11702㎡
- 약 3540평 융자 6500만원 포함
- 승계가능 양도가 2억

010-6460-1316

도 심 안 의 산 중 사 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강남포교원안내

- 위치: 논현역 1번출구 1분거리
- 2층 35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5만원
- 관리비 5만원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780-3580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 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시문화재 등재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조절가능)

011-623-4487
011-229-41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7평, 지하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 (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000만원포함)

010-3194-373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서구
- 법당 40평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탱화
- 깨끗하고 조용한 산자락 사찰,
- 약간의 텃밭도 있음
- 가격절충

010-5346-413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내 • 총평수 : 1천평, 대지 300평
- 자연석 바위로 기초하여 법당, 신중단, 영가단을 법당 내에 설치하고 법당 내벽은 푸른대나무를 사용하여 신성함을 더했고, 옆면, 뒷면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쌓여있다.
- 절마당에 작은 연못, 앞은 계곡의 물이 사계절 흐르고 사찰로 진입하는 단독 길은 산밑의 도로와 일반국도에서 50M 걸어오면 계천을 걷는 원형다리. 밑에는 맑은 물속에 물고기가 놀고있는 천해의 경관이다.
- 법당, 주지실, 산신각, 요사채. 건물 4동. 가액 : 3억 5천

055)224-3385 주지 합장

전 국 사 찰 안 내 전 문 공 인 중 개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양도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 람 010-8980-4789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홍천읍에서 5분거리
- 425평, 건물 45평
- 토굴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500만원

010-8983-52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밑
- 대지 195평, 도심 포교 최적지
- 법당 40평(장엄완벽) 방3개
- 후원채 20평, 화장실 따로
- 보증금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4천만원(1억 들었음)

010-7181-679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포동 위치한 사찰
- 지하철 3분거리 버스정류장앞
- 대지 : 178평, 건물 : 113평
- 요사채 방4, 화장실3, 공양간, 응접실, 찻방
- 가액: 7억 3천만원 (은행 3억)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 대지 533평, 법당 23평(콘크리트건물)경관 전망 좋음
- 요사채 23평 • 가액: 2억 6천 꼭 하실 분 절충가능,

- 김천 구미 각 15분거리, 도심지역 사정상 급 양도
- 사찰터 사찰관련 부지 최적지(계획관리구역)
- 대지 형질 변경 됨, 경관 전망 좋음
- 833평 • 가액:1억 5천만원 꼭 하실 분 절충가능,

010-4514-3136(스님직접)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50평, 방 2, 법당, 공양간, 최고시설
- 화장실2, 창고1,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500만원 (사정상 급 양도)

010-4708-4557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11-870-0021

포 교 원 안 내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 대지 : 98평
- 요사채 :방3칸 거실:1 화장실 :1
- 법당 :30평
- 보증금: 500 월세: 30만
-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 4753-828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3천만원

010-4085-11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사 찰 안 내

- 부산 기장구 기장읍 대라리
- 평 수: 80 평
- 건 평 :40 평 (2층 건물)
- 가액 : 3억5천만원 (가격은 절충)

010-7459- 29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 평수 226평, 법당 15평
- 요사채 20평
- 가액: 7500만원

010-4536-8175

사 찰 (급) 안 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진다. - 법구경 -

여름방학 특집 - 불교적 힐링 '미디어 다이어트' 〈3〉 미디어 다이어트의 핵심원리

'알아차림' 생활명상으로 중독을 자각하라

현대 사회는 정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 수많은 정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서 부유(浮遊)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유하는 정보들을 취사 · 선택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한다. 하지만, 이런 IT기기는 반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미 게임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미디어에 무분별로 노출된 청소년들이다. 특히 방학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이에 본지는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현황과 영향 그리고 불교적 힐링 '미디어 다이어트' 방안을 여름방학 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미디어에 과몰입 중독되어가는 과정을 보자.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나 인터넷이 욕구의 단계를 넘어 몰입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물리적인 시간의 양이나 정신적인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아진다. 해야하는 일들이 미뤄지거나 놓치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또한 게임이나 인터넷을 마치고나면 무기력해져 모든 일을 하기싫고 짜증이 많아지게 된다. 부모님들의 간섭과 다툼이 많아진다.

미디어에 과몰입되었다는 것은 몸이 미디어기기에 종속되었다기보다는 마음이 미디어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몸을 끌고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어떤 요소가 몸을 주도해 갈까?

마음의 구성요소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아차림(sati,자각)' 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를 이해해보자.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문득문득 현재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알아차릴 때가 있다. 화를 내면서도 지금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 참 나누다가도 지금 자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마음은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그 행위나 생각, 감정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이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다이어트는 알아차림(자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핵심요소를 이해하고 이의 힘을 키워서 과몰입이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진단지나 외부의 지적에 의해서, 미디어에 중독되고 난 한참 후에 이를 자각(알아차림)하게 된다. 하지만 게임이나 인터넷에서의 자극이 너무 강하고, 그 미디어에 장시간 훈련된 마음이라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않다. 그 욕망과 싸워 거기서 빠져나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스펀지에서 물빼는 방법을 활용한다.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을 때, 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스폰지 속으로 들어가 물을 밀어내는 방법은 안될 것은 없지만 많이 까다로울 것이다.

하지만 스펀지 바깥에서 지긋이 스펀지를 눌러주거나, 손으로 움켜쥐게 되면 스펀지 안에 있던 물은 한결 수월하게 빠지게 된다.

과몰입 · 중독된 상태에서,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고 싶은 욕망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것이라 생각하면 답을 구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곳의 힘을 키워서 그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쉽다. 마치 스펀지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스폰지 바깥에서 손의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알아차림이라는 하는 마음 핵심요소의 힘을 키워 미디어 다이어트를 해야한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마음의 4가지 구성요소 중 알아차림(sati,자각)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의 자극이나 내적 사유작용이나 감정작용에 쉽게 끄달려 다니게 된다. 하지만 일정한 훈련을 하게되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져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작용으로부터 빠져나오기도 한결 수월해 진다.

알아차림의 힘이 커질수록 자각의 단계가 점점 앞당겨지게 된다. 재미 · 흥미의 단계에서 욕망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에서만 알아차림이 되어도 미디어에서 빠져나오기가 한결 수월할 뿐 아니라 그 힘이 욕망을 누를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미디어중독이라는 말은 낯설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개할 것은 알아차림 강화훈련으로 좌선, 행선, 생활선을 기본으로 한다.

먼저 **좌선**(Sitting Meditation)이다. 순서대로 따라하면 된다.

① 방바닥이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는다. 방석을 깔 때는 가능하면 얕고 편편하게 한다. 의자에 앉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등을 벽이나 의자에 기대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발은 편안하게 놓는다. 이때 한발은 안쪽으로 두고, 나머지 발은 밖으로 둔다. 이때 두 발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가 수행을 하듯이 발을 꼬고 앉으면(결가부좌) 오히려 명상에 방해만 될 뿐이다. 허리는 곧게 펴고, 머리는 똑바로 들고, 눈은 살포시 감는다.

③ 알아차리는 마음을 배에 툭 던져 놓고, 배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이때 배를 인위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되며, 배의 움직임은 생체리듬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 수행자는 단지 그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만 해야 한다. 이때 알아차림의 초점은 배의 움직임, 즉 속도감을 따라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배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운동이지 명상이 아니다. 명상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명상 바탕한 치유로
욕망 단계서 제어
좌선은 배의 움직임
행선은 발바닥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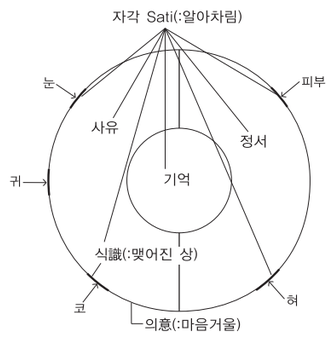
④ 배를 관찰할 때, 그 관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날 경우가 있다. 그때는 즉각 배의 관찰을 중지하고 해당 방해 요소를 관찰해야 한다. 가령 '소리가 들리면 들림, 들림', '모습이 보이면 보임, 보임',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 망상', '아픔이 있으면 아픔, 아픔' 하고 해당 방해 요소를 관찰한 후 즉시 배의 관찰로 되돌아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망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의 활력을 키우는 것이며, 현상에서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보는 것이다.

⑤ 좌선 시간은 정해 놓고 할 때는 한번에 60 분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는 시간에 구해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 위빠사나명상의 처음과 끝이다. 너무 간단하고 명쾌해서 오히려 혼돈스럽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수행을 하루에 20시간 정도씩, 약 한달 만에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만일 하루에 30분 정도씩만 하게 되면, 하루에 하는 8시간의 노력을 열배 스무배 이상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청소년들이 좌선을 통한 알아차림 명상을 진행하고 있다.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중독을 치유할 힘을 갖는다.



마음의 구성인자
1. ① 의(意, 마음거울) – 인지기능
2. ② 식(識, 맺어진 상) – 반영기능
3. ③ 기억(記憶) – 저장기능
4. ④ 자각(念) – 알아차림 기능

마음의 작용
5. ① 사유작용 – 논리 · 비교 · 분석 · 종합기능
6. ② 정서작용 – 감정기능

다음은 **행선**(Walking Meditation)이다. 명상이라고 하면 앉아서 하는 좌선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행선이 좌선보다 세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좌선을 할 때는 배의 움직임이 알아차림의 초점이지만 행선을 할 때는 발바닥이 알아차림의 초점이다.

1단계 행선 (왼발 - 오른발) 약간 빠르게 팔을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걷는다. 이때 알아차림의 초점은 발바닥의 움직임에 둔다.

3단계 행선 (왼발(오른발) 들어 - 앞으로 - 놓음) 팔은 앞이나 뒤로 고정시킨 후, 1단계 보다 조금 느리게 걷는다. 이때 알아차림의 초점은 발바닥의 움직임, 특히 무게에 둔다.

6단계 행선 (왼발(오른발) 들려고 함 - 들어 - 앞으로 - 놓음 - 닿음 - 누름) 팔은 앞이나 뒤에 고정시킨 후, 가능한 최대한 느리게 걷는다. 이때 알아차림의 초점은 발바닥의 움직임, 특히 무게에 둔다.

발을 관찰할 때, 그 관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날 경우가 있다. 그때는 즉각 발의 관찰을 중지하고 해당 방해 요소를 관찰해야 한다. 가령 소리가 들리면 들림, 들림, 모습이 보이면 보임, 보임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 망상, 아픔이 있으면 아픔, 아픔하고 해당 방해 요소를 관찰한 후 즉시 발의 관찰로 되돌아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망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마음의 활력을 키우는 것이며, 현상에서 있는 그대로 실재를 보는 것이다.

행선 시간은 정해 놓고 할 때는 한번에 60분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에는 시간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특히 길을 걸을 때나 식사 후에, 1단계 행선을 하게 되면 집중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60분으로 정해놓고 행선을 할 때는 1단계 5분, 3단계 5분, 그리고 6단계 50분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명상**이다. 명상을 좌선이나 행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사물의 움직임이나, 자기 자신의 몸의 움직임, 더 나아가서 감각 대상이 의식에 반영되는 순간 알아차리는 일상선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이 글은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미디어 다이어트캠프〉 관련 내용입니다. 글=이태호 기획이사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전통 범음범패 (바라 · 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사 물
불교의식
기초교리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연 락 처 : 051)442-1818.
fax 051)442-1817
010-9467-0340
(교육상담 성각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현우경' 이야기 (35)

아라한이 된 500명의 상인

바다 신에게 물 한 모금을 공양하니…

어느 나라에 500명의 상인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상인들은 모두 모여 중요한 회의를 열었다.

"혹시 다들 그 얘기 들었소?"

"무슨 얘기 말이오."

"동쪽 바다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 곳에 아주 진귀한 보물이 가득 묻혀있다 하오."

"그 말이 사실이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확인해 봤소. 우리가 그 보물을 캔다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오."

상인들은 의논 끝에 모두 바다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며칠이 지나 그들은 출항준비를 마치고 동쪽 바다로 향했다. 출항한지 일주일쯤 지나 그들은 동쪽 바다 복판에 이르게 됐다. 그때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검게 변하고, 파도가 심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상인들은 몹시 당황해 우왕좌왕 했다.

"아니 갑자기 날씨가 왜 이리 험하게 변한단 말인가?"

그때 멀리서 몸집이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머리에 뿔이 달린 바다괴물이 상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바다괴물은 배에 다다라 상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무서워 절대 이 바다를 지나지 못할 것이다."

한 상인이 나서 괴물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많소.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전혀 두렵지 않소."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체 무엇인가?"

"나쁜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만 가지의 고통을 받는다 하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다 들었소. 몸이 찢기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며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수천만 년을 지낸다고 하오. 나는 당신보다 이런 사실이 더 무섭소."

이 말을 들은 바다괴물은 상인들의 배를 놓아주고 형체를 숨겼다. 그렇게 시간이 며칠이 흘러 배가 다시 몇 리를 지났을 때 상인들은 바짝 말라 죽어가는 한 사람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인들은 그 사람을 바다에서 건지고 치료해 줬다. 그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상인들이 물었다.

"어쩌다 바다에 빠져 이토록 마른 것인가?"

"나보다 더 마른 이를 본적이 있소?"



삽화 · 강병호

그때 또 한 상인이 대답했다.

"당신보다 더 여윈 것이 있소. 세상에 태어나 남의 것을 탐하고 질투하고 보시할 줄 모르면, 훗날 지옥에 떨어져 몸은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아 수천 년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들었소. 그래서 형상이 당신보다 더 여위었을 것이오."

이 말을 듣자, 물에 빠졌던 사람은 배 안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상인들은 다시 배를 몰고 길을 떠났다. 몇 리를 지나자 아름다운 인어가 배를 가로막았다. 상인들은 인어의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 반했다. 인어가 물었다.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한 상인이 나서 말했다.

"그대보다 아름다운 것이 많소. 항상 남을 공경하고 지혜롭게 살면 훗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들었소. 당신은 그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외모를 갖고 있소."

그때 갑자기 인어는 바다의 신으로 번해 본래 모습을 드러내 물었다.

"내가 지금 한 모금의 물을 마실 것이다. 이 한 모금의 물이 많은가? 바닷물이 더 많은가?"

"한 모금 물이 많습니다."

"어째서 바닷물보다 이 한모금 물이 더 많단 말인가."

"만일 세상에 태양이 여러 개가 뜬다면 모든 물은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한 모금의 물을 누군가에게 공양한다면 그 마음은 억 겁의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신이 상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저희들은 보석을 구하기 위해 섬으로 향하던 길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바다를 건너왔지만 섬이 보이지 않아 헤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다신은 갑자기 바닷물을 일으켜 배를 순식간에 섬 앞에 다다르게 했다.

"지혜로운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 좋은 곳에다 이 보석을 쓰도록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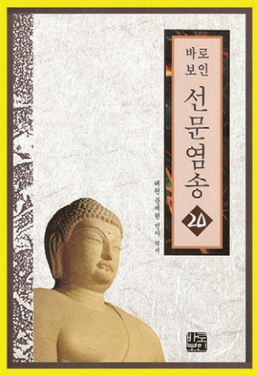
상인들은 모두 기뻐하며 바다의신에게 감사해 했다. 상인들은 보석을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돌아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했다. 그러자 모두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열려 그 자리에서 출가해 훗날 아라한이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20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0권 출간!
설봉선사, 암두선사, 고정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자유인으로서 한 걸음 걸음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발심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 인터넷을 통해 큰스님 법문을 보다보니 발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얼마 전부터는 절에도 다니면서 마음공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발심자에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만 초발심에서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첫째에 믿음과 진실과 물러서지 않음과 또 근실함과 자기 분수력, 언제나 분수를 상실하면 욕심이 되니까요. 그러한 것을 지키면서, 진실도 그저 진실이란다고 뺏다 끼었다 할 그러한 아량, 지혜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 거짓말하지 말란다고 그저 나쁜 소리든 좋은 소리든 갖다가 들입다 해 놓곤 싸움을 붙이거나 그런다면 이거는 진실이라도 진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거는 곧이곧대로 하다가는 뭐 회사엔 다 다녔고, 또 여자도 살림을 그 화목하게 살려면 어렵고, 이런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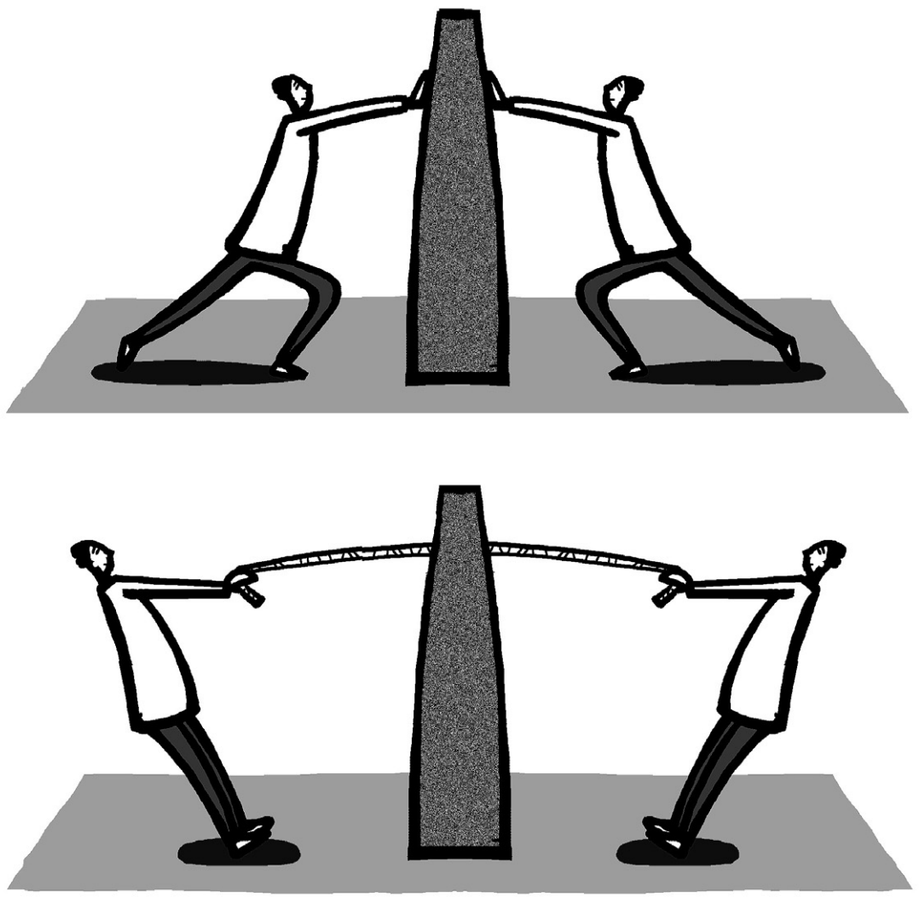
그러니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 데에 첫째에, 즉 말하자면 돌장승이 돼라. 내 모든 걸 한데 모아서 그 한 점의 마음에서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자체가 움죽거림이 없으니 돌장승과 같다 이 소립니다. 이거 돌장승과 같아야 한다, 사람이.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들이고 내는 걸 한데 모아 놓으니까 임신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렵니다. 그러면 임신을 만들려면 다 놔야 임신이 되는 거죠, 한데 뭉쳐서 놔야. 들이고 내는 걸 한군데다가 둬야 차차 차차 임신이 된다. 이건, 즉 말하자면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하세요. 또 어린애란다고 정말 어린애 낳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임신이 되면, 임신이 되기 이전에 초발심에서 한데 모아서 임신이 되게끔 하는 문제. 또 임신이 되면은 임신이 되는 대로 잘, 배 속에 있는 거를 잘 성장을 시키는 데의 문제. 고담에 어린앨 낳게 되면 잘 안으로 굴려서 키우는 데 문제. 잘 키우는 것은 자기 안으로 굴리면서 항상 지혜롭게 내고 들이면서 체험하고 자꾸 이렇게 안으로 굴리는 게 자기를 자기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서로 초발심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그 배우는 사람들대로 한 번씩들 얘기들도, 증언도 해 보실 만합니다. 또 애를 뱄으면 뱄다 증언을 하고, 살아나가는 데 이렇게 애를 배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만 건강합니까?" 하고 왜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그렇게 서로가 질문을 하고 서로 증언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배울 수 있고, 또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거를 똑바로 잘 생각해서 나갈 수 있게끔도 됩니다. 또 애를 낳아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증언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이게 보살행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한 사람이 그 공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백 사람이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도 할 겸 우리가 서로 함이 없이, 즉 말하자면 애기를 낳은 사람은 함이 없이 할 것이요, 또 그 낳아서 기르는 사람은 함이 없이 그 말을 증언을 할 것이요, 애를 밴 사람은 밴 대로 함이 없이 증언을 할 것이요. 또 애를 배기 이전에 모든 것을 놓는 과정, 즉 종문서를 태워 버리는 과정을 겪는 데는 또 함이 없이 그 모든 거를 맡겨 놓고서 그냥 증언을 한다면 우리가 배우는 데 참 그 남들도 좋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잠자코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같이 같이 공부들 할 수 있잖습니까. 또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이 묻지 않는 거를 억지로 발사하지 말고, 정말 애를 배서 난 사람들은 바깥으로 발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안으로 굴리면서도 남이 질문할 때는 그 사람에 알맞게 대답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 증언들을 하신다면 배우는 사람도 또는 배운 사람도 서로 지혜를 넓히며 또 배워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사회초년생입니다

문)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절에서 학생회 청년회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막상 사회에서의 생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배님들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 앞길도 벌써 걱정이 됩니다. 스님,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믿음과 패기가 없고 용맹정진이 없다면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한 걸음을 떼도 무겁고 좀더 인내성 있게 떼어 놔야 할 거고, 생각을 해도 좀 무겁게 하면서 그 종종걸음을 걷지 않도록, 한 걸음을 떼어 놔도 백 걸음 못지않게 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패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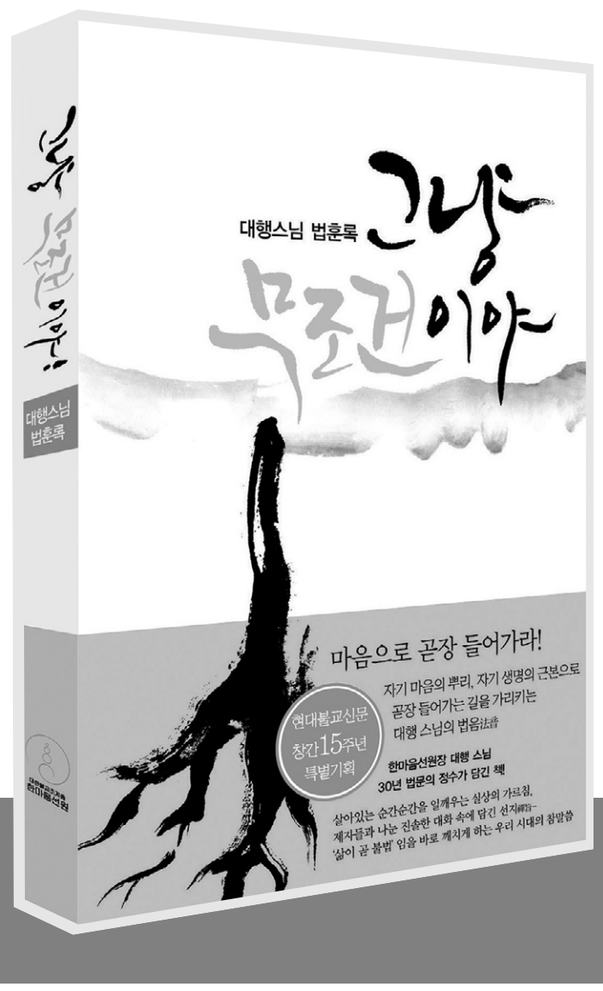
우리가 전체 이 한 몸을 우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각자 각자 이 몸뚱이 하나에 생명들이 수억 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한데 포섭해서 그 인연에 따라서 여러 그 마음들이 종합해서 한데 모인 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만치, 죄도 선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패기가 물러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저런 생각이 들고, 수만 가지의 생각이 돌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고 가라앉히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선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구성된 선장, 즉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원자력발전소가 자기 한 몸뚱이에 구성돼 있다면, 바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도 그게 맞뚫렸습니다. 바깥으로 열고 나가는 것도 그 문을 붙잡아야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도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문을 열려면. 본래는 문이 없는데도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있는데도 문이 없다는 것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으면서도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원리기 때문에 안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바로 그 버튼이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이려도 바로 그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버튼 하나에, 안팎이 붙어 있는, 뚫린 그 버튼 하나에 줄이 만 개가 있다면 만 개가 죄 각각이라는 얘깁니다, 무전통신 줄이. 즉 법망에 그 무전통신 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붙어 있는 줄에 이건 우주의 버튼을 누르는 우주 줄이고 이거는 삼천대천세계의 줄이고 이것은 또 소천세계 중천세계 등등.

또는 우리 몸을 종합병원이라고 그런다면 거기는 다양하게 이비인후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과 외과 뭐, 전부 있습니다, 안과니 뭐니. 그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남의 말에 끄달리지 마시고 항상 내 중심에 의해서 사세요

☞ 29면에서 계속

데 소소영영한 게 우리가 목이 아프면 벌써 나한테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로 갑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로 갑니다. 그런데 대의적으로 쓸 때는 이게 종합병원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종합병원' 이러지 어떠한 이비인후과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종합병원'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하나가 종합병원이라면 천체 종합병원의 근거지입니다.

내가 이 말 저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고 뜻을 모르실까 봐 이러한 말을 합니다마는 임신을 해서 어린앨 뱄어도 그 탯줄을 잡지 못하면 그 전체 부위에서 나오는 그 액체의 자기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탯줄을 언제나 자동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탯줄을 놓친다면 그 어린앤 떨어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탯줄을 잡지 않는다면 고아가 됩니다, 고아. 어디서라도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갈 수가 없고 자꾸 걸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버튼은 안팎에 맞뚫린 하난데 수없이 우주 줄이 있고, 즉 말하자면은 세계 줄이 있고 또 국가 줄이 있고 또 사회 줄이 있고 또는 우리 가정 줄이 있고 내 몸의 줄이 있고 몸의 세포의 모든 기능의 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한테 닥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으로부터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아, 사무실에 나가서 상대를 만나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참 까다롭다 할 때 바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벌써 거기에, 내 이 바깥의 버튼에 벌써 신호가 온 겁니다, 안에서. 그러면 안으로 다시 버튼을 누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 무전통신으로써.' 하고. 그럼으로써 이걸 안으로 누른다면 바로 안에서 직접 그쪽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간 뒤에 바로 바깥 버튼을 또 누릅니다. 그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안의 버튼을 반드시 누름으로써 내가 전화통에다가 먼저 전화를 하고, 알려 놓고 바깥으로 가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아주 유유히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깥에서도 나를 그렇게 그 상대방으로서 깔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주 유유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안으로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되자 서로가 서로를 양보할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게 되지만, 만약에 이 안으로서 통과가 안되고, 마음으로 통과가 안되고 거죽으로 말을 해 봤자야 그건 백문선이 헛문선이에요. 걸리고만 넘어갑니다. 그러니 안팎을 다 응용하고 그 활용하려면 이 무의 50프로, 유의 50프로가 맞먹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지혜로운 생각이 났다가도 아주 옹졸한 생각도 납니다. 그러나 옹졸한 건 옹졸한 것대로 쓰이고 큰 거는 큰 것대로 쓰일 때 자기를 언제나 더 잘 압니다. 자기 환경을 너무 잘 압니다. 자기의 마음 씀씀이도 더 잘 알고 지금 자기 앞에 처해 있는 그 자체의 환경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큰 거를, 자기한테 오지 않을 것을 크게 생각을 해서 욕심내지 않아도 내가 지혜가 자꾸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지능이 발달되고 활용을 하게 되자 이건 점점 점점 자기도 모르게 넓어집니다. 넓어져서 우주도 삼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스스로서, 남이 벌써 나에게 큰 그릇이라고 담깁니다. 내가 담으려고 하기 이전에 벌써 담깁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여러분이 적다 크다 없이 닥치는 대로 안으로 굴려서 안으로 그 버튼을 누르고서 하고, 또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 안에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만 항상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즉 말하자면 상품자리 중품자리 저 하품자리가 한데 합쳐진 즉,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믿음과 패기가 없고
용맹정진이 없다면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한 걸음을 떼도 무겁고 좀더 인내성 있게 떼어놔야 하고
생각을 해도 좀 무겁게 하면서
종종걸음을 걷지 않도록,
한 걸음을 떼어놔도 백 걸음 못지않게 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문)사는 게 참 천차만별입니다

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천차만별입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 이러한 인생살이가 다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인과응보를 받는 것이겠죠?

답) 우리가 용광로에다가 헌쇠들을 다 집어넣고 다시 생산을 해서 내는 것은 물질이지마는, 우리 마음으로는 체가 없기 때문에 무쇠도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원은 누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잘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에서도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참답게 나갈 수도 있는가 하면 그냥 마구 아무렇게나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내 주장심이 아주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무서운 칼이 아주 연하고 잘 드는 칼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서 중력을 잃지 말고, 남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항상 내 중심에 의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내 중심, 그 한마음 한 점 속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거기에 있고 그 일생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돼 봐야 보살의 행을 할 수 있지 부처님이 되지 않고야 어떻게 보살행을 하며 법신의 행을 하며 모든, 즉 말하자면 자비의 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가 한 것이 이렇게 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바로 보살행을 못합니다. 이것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도 걸리지 말고, 그 법에도 걸리지 말고 아무것도, 아무것에도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 대로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게 업이라면 바로 부처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또 잘못해 가면서,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해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하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동등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 없다는 결론에서 억겁을 거쳐 오면서 쓰라린 아픔에 이어가는 그 피를 흘렸기에 우리는 더 피를 흘릴 수가 없고, 더 아픔을 당할 수도 없고 더 속박당할 수가 없고, 더 노예로 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스럽게 자유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보람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어디다 대고 불공을 올려야 되는지요

문) 저는 불공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저는 계속 부처님에다 대고 했는데 엊그저께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마음에다 대고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관세음보살을 찾을 때는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을 찾을 때는 지장보살을 마음에다 대고 생각을 하면서 불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건 요렇게 표현합시다.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납니까? 자주 하는 얘깁니다만 아들을 만나고 어머닐 만나고 할 땐 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져서 나투어 돌아갈 뿐이지 한 사람이 백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이 열 가지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한 가지 어떠한 일을 할 때 즉, 집안일을 하더라도 치우고 닦고 밥하고 뭐 빨래하고 이럴 때, 빨래할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밥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하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돌아가니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을 불러도 결국은 자기가 불렀고 또 용왕님을 찾았어도 자기가 불렀고, 자기의 마음이 간절하게 찾았으니까 자기 찾은 고놈이 바로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는 열 가지 백 가지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생 무생이 다, 부처 중생을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맞기도 하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좋은 소리도 듣는 겁니다. 나 빼놓고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니 뭐 저, 산신이니 신중당이니 뭐, 칠성이니 또 용왕이니 약사보살이니 이렇게 쭈욱 해 놓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마음에 모두 있는 거지, 이름이 각각 있다고 그래서 그 이름대로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깁니다. 우리가 눈 달린 데 코 있고 코 있는 데 입 있고 입 있는 데 귀 있고, 요렇게 이름만 다 각각 있었다 뿐이지 다 한군데 붙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각각 찾고 각각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법당의 부처님께서도 이 형상은 여러분의 몸이요, 부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러니 나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요, 내 육신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이요,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높고 낮음도 없고 그러면서도 아주 높고 낮음이 없는 그 가운데 거기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여여하게 새록새록이 묘법이 나온다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되고 싶은데…

문) 우리 주변에는 병들어 괴로워하거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등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답)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자기의 그 핵, 즉 말하자면 원자 속에서의 입자, 입자 속에서 분자로 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돼 주는, 보이지 않는 데 오고 감이 없이 그렇게 오고 가면서 내가 돼 주는 그런 반면에, 스스로서 자기가 한생각을 내면 빛보다 더 빨리 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가면서, 실천을 해 가면서 이 마음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의 인연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고쳐 주기도 하고 자기가 이끌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을 면하기도 하고 또 가환을 없애기도 하며 이렇게 해 나가고 있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 실천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이 마음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부엉이걸이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 핸드폰걸이

옴자 차걸이는 불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옴자 모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옴자를 지니고 있으면 나쁜일을 물리쳐주고 늘 수행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엉이 걸이는 항상 밤에 눈을 뜨고 있어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고 안녕을 기원해주는 새 입니다. 집안이나, 핸드폰 걸이로 사용하시면, 당신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목어 걸이는 불교의 4가지 보물 중 한가지로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물속의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눈을 뜨고 있다하여 수행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어를 옆에 두시면, 수행하는 마음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에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옴자차걸이 4종류

종 류	가 격	제 조	용 도	기 타
옴자차걸이	33,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노리개	빨강,노랑,파랑,녹색
부엉이걸이(大) 부엉이걸이(中) 부엉이걸이(小)	20,000원 15,000원 10,000원	국내제작 국내제작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방향제	페퍼민트 자연향


목어걸이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참회 없는 용서는 가능한가?



김호성
동국대 교수,
일본불교사연구소 소장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범한 역사적 죄업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없다.

그러한 죄업을 말끔이 씻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이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외교적 수사로 가득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내 쏟아지는 망언들이 그러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았다. 특히 최근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다시금 예전의 제국주의 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왜 일본은 진심어린 사죄를 못하는 것일까?

사죄나 참회는 원래 어려운 일이다. 자기부정(自己否定)이기 때문이다.

자기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인데, 사죄나 참회는 그러한 자기를 무(無)로 돌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곧 부처로 등극하게 되리라. 참회를 통해서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이 그런 맥락에서이다.

한 개인이 잘못을 사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의 국가 내지 민족이라는 거대아(巨大我)가 자기부정에 이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까지 부정해야 할 터인데 말이다.

뿐만 아니다. 일본의 역사는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해온 역사이다. 물론 우리(삼국)라는 중개항을 거친 수입이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직접수용으로 나아간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중국과 대면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다. "해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지는 나라의 천자에게"라는, 외교문서의 표현에서도 그런 자존감(自尊感)이 나타나 있다. 이제 중국문화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화가 있다. 그것이 더욱 우수하고 독창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 하에 성립하는 것이 국학(國學)이고 신도(神道)이다. 침략주의 철학은 이들을 그 모태로 하였다.

일본은 패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원자탄을 앞세운 물리전(物理戰)의 패배일 뿐 사상전(思想戰)의 패배는 아니었다. 일본이 독일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학이나 신도, 또 그들과 동조한 불교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자칫 일본의 역사와 그 정체성 자체의

일본 침략철학 살아나나
자기 정체성 지킬때 애국
용서로 원한 갚는것이 불교

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반성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들이 사죄하기 어려운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서 잠을 못 이룬다. 그들이 치유해 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덧내기 일쑤다. 그래서 앙앙불락, 울분을 토해내기 일쑤다. 그러면 또 그들 중의 애국주의자 들은 2차, 3차의 상처를 내려고 달려든다. 애국은 좋다. 하지만 애국주의는 내 나라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대한 배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도 '애국'을 넘어서 '애국주의'로 달려간다. 애국주의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준다.

이 악순환을 끊는 길은 없을까? 있다. "원한을 원한으로써 갚지 말라. 원한을 쉼으로써 원한을 갚아라"는 『법구경』의 말씀을 실천하면 된다.

참회 없이도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다. 그런 뒤에 역사적 허물이 무엇인지, 사상적 오류가 무엇인지를 조근조근 일러주면 어떨까?

다만 부처님 제자들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한일 간에는 숨 쉴 수 있는 작은 틈새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교는 애국주의가 아니라 중생주의라는 점만 깊이 성찰할 수 있다면 가능할 터인데…. 그것이 가능할지? 나로서는 아직 확신이 없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사부대중 칼럼

사찰음식과 수행정신 그리고 건강



적문 스님
평택 수도사 주지

종단에서는 지난 8월 21일 '사찰음식 우수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명대 황지윤 교수가 '사찰음식 정의'를, 종단 최초로 한국 외식산업 연구소 연구원 정경란 박사가 '사찰음식의 영양 분석'을, 그리고 혜전대 김경임 교수가 '사찰음식 영양학적 우수성'을, 필자는 '사찰음식의 조리법'을 발표했다. 칼럼의 초반부터 발표자들의 성명과 제목을 길게 소개한 이유는 모든 것이 조계종단에서 획기적으로 시도한 자못 의미심장한 최초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사찰음식은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며 우리의 문화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정신과 건강을 맑게 하는 친환경적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연잎밥 산채모듬밥 아욱국 사찰김치 취나물 들깨무침 우엉잡채 무왁저지 방아잎장떡 산초장아찌 다시마찰밥부각 감자부각 송차 등은 대표적인 사찰 음식이다.

이런 사찰음식들은 칼로리 및 단백질,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 지방의 고른 섭취가 가능하다.

또 충분한 식이섬유의 섭취는 식물성 식품군 섭취가 감소하는 한국인의 식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적정한 칼슘 및 철분의 섭취도 가능하다.

질병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중 지질, 혈당, 혈압 등을 낮추며 나물과 해조류에는 동물성 식품에 비해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이 모두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그러나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좀더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출가 수행자들은 삶과 죽음이라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고자 출가하였기에 '수행'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이 사찰음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려자각 선사는 〈귀경문〉에서 '육미부정(六味不精)하고 삼덕(三德)이 불급(不給)이면 비전좌소이봉중야(非典座所以奉衆也)오(緇門警訓)'라고 했다.

대중스님들의 음식조리를 담당하는 전좌 소임자는 먼저 육미(쓴맛, 단맛, 짠맛, 싱거운 맛, 신맛, 매운 맛)를 정결(精潔)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삼덕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삼덕이라 함은 청정(淸淨), 유연(柔軟), 여법(如法)의

사찰음식 조리는 마음공부
삼독심제거, 자비심 증장
음식에 담긴 정신 배우자

조리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도원(道元)선사는 〈전좌교훈(典座教訓)〉에서 '불법승 삼보(三寶)에 올리는 음식물을 직접 조리한다는 사실에 순수하고 기쁜 마음을 지녀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듯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요리를 해야 하는 어버이의 마음(老心)을 갖추어야 하며, 세 번째는 큰 산과 큰 바다와 같이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넓은 마음(大心)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날이 밝거나 해가 져도 재료는 공양주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마음은 재료 위에서 언제나 재료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며, 수행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고기는 물론이고 오신채(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는 날로도, 익혀서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자비심을 증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업중생은 물론이고 무연중생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언명령이고 수행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가치이다.

진정 '사찰음식의 우수성'은 올곧은 수행자의 참된 수행의 모습에서 그 진면목을 찾을 수 있다.

사찰음식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그 속에 담긴 수행정신을 더욱 살려야하는 이유다. 바로 이 대목이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설하신 신(信)·해(解)·행(行)·증(證)의 가르침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社說

늦었지만 신선한 명상과 뇌과학 바람

법륜, 혜민 스님들로 인해 촉발된 '힐링'과 '치유'는 시대의 트랜드가 됐다. 심지어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힐링채널 '휴(休)'를 개국하기까지 했다.

채널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명상에 가깝다. 자가 치유를 위한 명상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에도 참선을 응용한 명상과 뇌과학 관련 강좌와 연구, 저술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는 9월부터 진행하는 불교대학 강좌에 이런 트랜드를 반영했다. 오는 9월 7일부터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를 신설·진행하고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알아차림 명상을 이용한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을 개강했다.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의 경우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번 강좌는 좌선, 행선을 통한 마인드케어 기술과 마음 과학, 심리학, 상담 이론까지 배울 수 있다.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강선원과 가천의대는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그 결과 명상 후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있음이 조사됐다.

이런 명상과 뇌과학의 상관성은 서구사회에서 더 높은 관심과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뇌과학 서적은 대부분 서구 사회의 연구를 반영한 것들이다. 매뉴얼화, 과학화된 명상 방법론들이 이제 한국불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복에 머물던 한국불교의 '마음'을 수행이라는 '마음자리'로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연구기관과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을 주창하는 한국불교의 수행체계가 어디와 있고, 진정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해야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하철 '풍경소리' 철거 납득 안돼

지하철에 가면 항상 눈이 먼저 가는 것이 있다. 부처님 말씀이나 위인들의 일화 등에서 감동적인 것들을 뽑아 게시판으로 걸어놓는 이른바 지하철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다. 이들은 삭막한 지하철에 감로수 같은 법문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곧 철거될 거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지하철 '풍경소리' 측이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난 8월 16일 '서울지하철 불편사항 개선사업' 일환으로 5, 6, 7, 8호선 141개 역에 걸린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철거 이유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 1월 발족한 '서울지하철 환경개선 시민개혁단'의 표본조사 결과 5백여 건의 개선 사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종교 관련 부착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7월 31일 열린 시민정책 토론회에서 종교적 형평성 문제로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 철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풍경소리의 게시판은 단순히 불교의 포교수단이 아니다. 이젠 종교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게시판에 적힌 글을 읽고 용기를 얻는 감성 문화콘텐츠가 됐다. 1999년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시민들에게 일상의 감동과 지혜를 전해줬다. 전국 지하철역과 철도역 등에 2천 6백여 개가 설치될 만큼 규모가 커졌다.

특히 후원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운영하는 공익성 비영리 단체의 오랜 활동을 칭찬은 못 할망정,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서울시의 조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게시판이 종교적 형평성에 어떻게 위배가 되고,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서울도시철도공사측은 이번 결정을 다시 철회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작대기 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소림 벽면 달마도

이제까지 보아 온 달마도가 아닌 완전 새로운 모습의 소림 달마도

달마대사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대사께서 행사신 면벽도는 달마도중 으뜸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중국 소림사의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거사님께서 불교계에 입문하게된 보은으로 오랜 연구 끝에 108가지 모습의 백팔 달마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요모습들을 선정해 그린 108장의 달마도를 다시 108번 그려서 11,664장의 달마도를 불자님들께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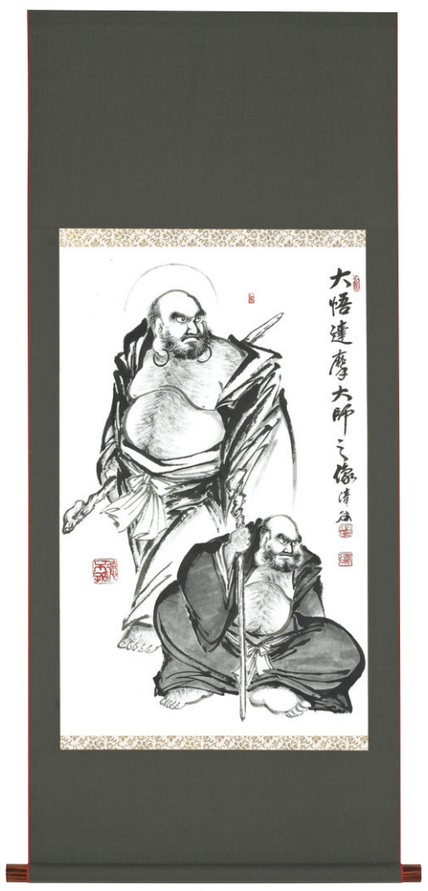
또한, 모든 불자님께서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30만원의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표구대와 제작비인 99,800원의 가격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림 면벽 달마도는 꼭 벽에 걸어 놓지 않아도 상자에 넣어 보관만 하여도 기를 발산되며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드리며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시면 세월이 지나도 그림이 변하지 않고 습기를 제거하고 좀이나 벌레가 쓸지 못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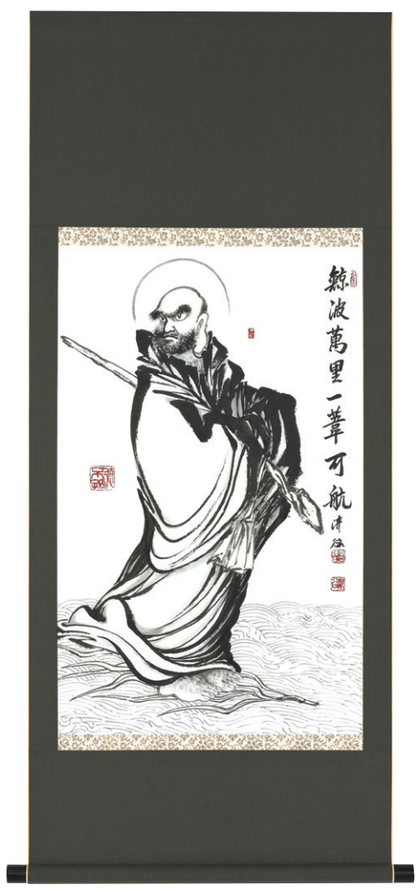
소림 달마도를 집안이나 사업장에 모셔두면 그림속에 발산하는 기로 인해 삼재 소멸 및 가정이 평안해 질 것입니다. 특히, 개업을 하시거나 집안에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모셔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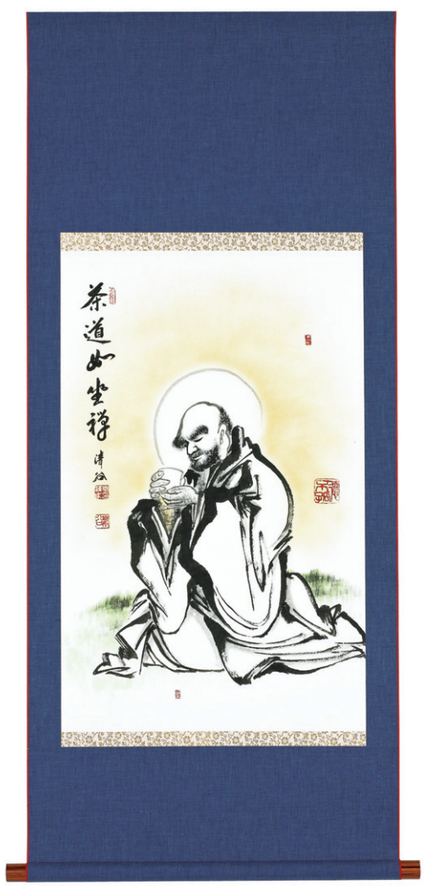
※ 전품목 사은품으로 용달마 순금카드 1점을 드리며 진품 확인서도 같이 드립니다. / 배송 기간 – 최대 일주일 (작품 작업시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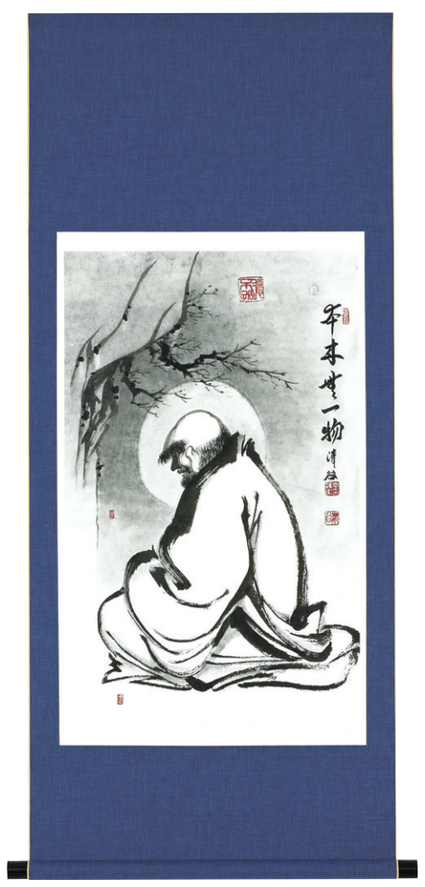
대오달마



노엽달마



다도달마



면벽달마


보관함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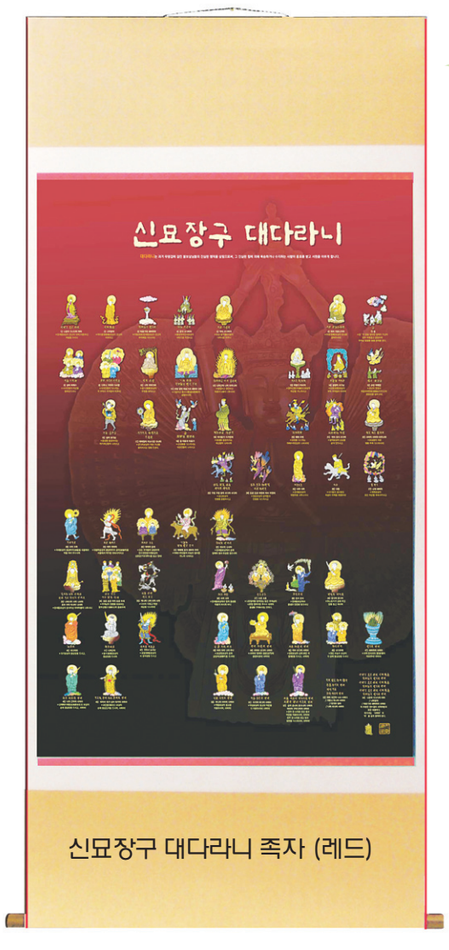
- 크기 : 125Cm×60Cm
  (오동나무상자, 핀고리박스 포함)
- 가액 : 99,800원 + 사은품


<사은품>
용 달마 순금카드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 42수진언

그림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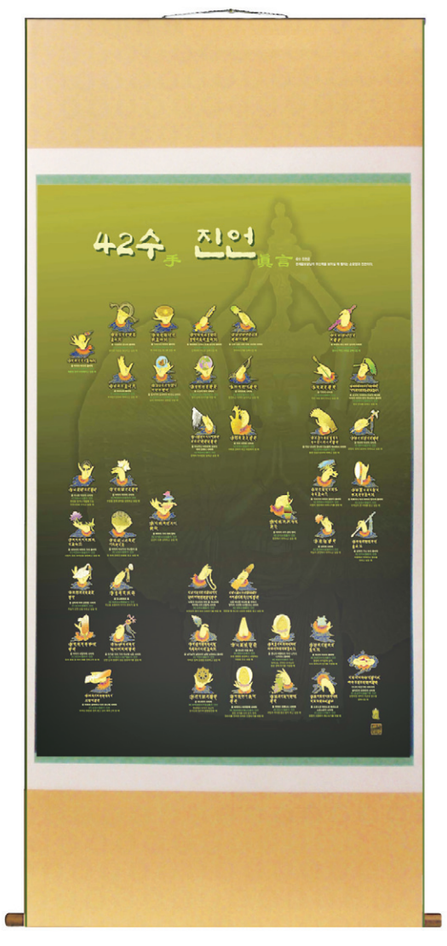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 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